

The 21<sup>th</sup> KOREA  
WOMEN'S  
LEADERSHIP  
AWARD

# 제21회 한국여성지도자상

한국YWCA연합회는 올해도 한국씨티은행과 함께  
한국 여성지도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한국여성지도자상'을 진행합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변화를 이끄는 여성, 정의와 평화 실현을 위해 기여한 여성,  
미래세대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활동을 이어나간 여성이 있다면 주저말고 추천해주세요.

접수기한 : 2023년 9월 8일(금)

시상부문 : 대상, 젊은지도자상

자세한 내용은 한국YWCA연합회 홈페이지(ywca.or.kr) 뉴스/공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 한국 YWCA

2023년 7·8월호  
July·Aug Vol.585

### 기획 정전 70년, 휴전에서 평화로

동아시아 정세와 전망, 평화 구축을 위한 제안  
정전 70주년에 평화를 생각한다  
정전 70년, 전쟁을 끝내고, 지금 평화로!

### 이슈포커스

한국정부의 공조속에 현실이 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 중·인 제11차 한일YWCA협의회

한·일YWCA '동아시아 생명과 평화' 논하다

### 크리스찬의 눈으로 보는 문화

아름다운 것들을 본 죄 - 다큐멘터리 영화 <수라>

## YWCA 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00여 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낮은 데로 임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한국YWCA 02.774.9702

(사)강릉 033.651.1385	(사)안동 054.854.5481
(사)거제 055.682.4950	(사)안산 031.483.6536
(사)고양 031.919.4040	(사)안양과천군포의왕 031.455.2700
광명 02.895.1966	(사)양산 055.367.1144
(사)광양 061.762.0012	(사)여수 061.654.2161
(사)광주 062.609.1300	(사)울산 052.247.3520
(사)군산 063.462.4491	(사)원주 033.742.6090
(사)김해 055.332.6000	(사)의정부 031.853.6332
(사)남양주 031.577.7762	(사)익산 063.857.8910
(사)남원 063.632.7002	(사)인천 032.424.0524
(사)논산 041.736.7393	(사)전주 063.224.5501
(사)대구 053.652.0070	(사)제주 064.711.8322
(사)대전 042.254.3035	(사)제천 043.645.2580
(사)동해 033.531.3007	(사)진주 055.755.3463
(사)마산 055.246.8746	(사)진해 055.542.0020
(사)목포 061.242.1611	(사)창원 055.283.9488
(사)부산 051.441.2221	(사)천안 041.575.0961
(사)부천 032.668.9700	(사)청주 043.265.3700
(사)사천 055.833.2344	(사)춘천 033.254.4878
(사)서귀포 064.762.1400	(사)충주 043.848.3240
(사)서울 02.3705.6000	(사)통영 055.646.2547
(사)성남 031.708.2503	(사)파주 031.945.5998
(사)세종 044.865.2432	평택 031.651.7701
(사)속초 033.635.3523	(사)포항 054.274.4444
(사)수원 031.252.5111	(사)하남 031.793.7771
(사)순천 061.744.7990	



#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멈추는 우리의 물결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방류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다에 가지 않고 수산물을 먹지 않으면 되나요?  
일본정부가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을 철회하고,  
더 이상 생명의 바다에 핵오염수를 투기하지 않도록 함께 외쳐요.  
함께 생명의 물결을 만들어요!

모두의 바다, 오래오래 깨끗하도록  
우리의 물결로 방사성 오염수 함께 막아요!



## 우리의 물결 잇기

1. 우리는 오염수를 막는 물결, 바다색 옷을 입어주세요!
2. W 모양으로 손을 뻗어 물결이 되어주세요!
3. 게시글로 업로드 후 해시태그로 SNS 물결을 이어주세요!



#SAFEWAVE

#YWCAWAVE

#NO방사성오염수

## 2023.7·8 한국YWCA



### 표지이야기

한국전쟁 정전 70년인 2023년, 유례없는 전쟁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7월 22일(토) 한국YWCA는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대회와 행진·전쟁 위기를 넘어, 적대를 멈추고 지금, 평화로!>에 주최단체로 함께했다. 연합회와 16개 회원YWCA 활동가들이 서울광장과 광화문에서 한반도 평화를 염원했다.

### 2023년 9·10월 주요일정

- 9월 1일 월례아침기도회
- 9월 1일 한일YWCA 오염수 방류 대응 긴급 국제웨бина
- 9월 2일, 9일 YWCA우리가족 금융경제교육
- 9월 6일 양성평등임금의날 워크숍
- 9월 18일-23일 2023 반핵아시아포럼
- 9월 23일 기후정의행진
- 10월 4일 월례아침기도회
- 10월 7일-8일 YWCA우리가족 금융경제교육(금요일)
- 10월 17일 2023 YWCA정책협의회
- 10월 21일-30일 사무총장 해외연수

### 제59권 제3호 통권 585호

2023년 8월 25일 발행 (등록번호 마00096)  
발행 (사)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원영희 편집인 구정혜  
편집 최수신나 이주영 정소연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길 73 (사)한국YWCA연합회  
디자인 굿플러스커뮤니케이션즈(주) 02)6080-9858  
인쇄 제일프린텍  
전화 02)774-0230 |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www.ywca.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ywcaorea  
구독료 연간 2만 5천원  
계좌번호 농협 386-17-000052 한국YWCA연합회



## 한국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 목 차

- 04 **이달의 생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는 우리 YWCA, 열이 한 걸음으로! | 정혜원
- 05 **월례기도회** 하나님의 영광과 기다림 | 김영름
- 기획 | 정전 70주년, 휴전에서 평화로**
- 06 동아시아 정세와 전망, 평화 구축을 위한 제안 | 김준형
- 09 정전 70주년에 평화를 생각한다 | 김성경
- 11 정전 70년, 전쟁을 끝내고, 지금 평화로! | 황수영
- 이슈 포커스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 14 한국정부의 공조속에 현실이 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 김혜정
- 17 **YWCA 변화와 혁신14** 민간단체보조금 둘러싼 정치적 공격, 무엇을 위한 것인가? | 류홍번
- 20 **탈핵** 신규핵발전소 건설, 무엇보다 생명과 안전을 위해 | 변인희
- 22 **성평등** 남녀동등한 참여 Parity 그리고 민주주의 | 김은경
- 24 **소비자 운동** 디지털 헬스케어와 의료소비자 운동 | 안정희
- 26 **청년토크** 범죄도시 | 대학·청년YWCA
- 28 **이달의 현장 ①**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대회 | 편집실
- 30 **이달의 현장 ②** 2023 탈핵활동가대회 | 김민경
- 31 **이달의 현장 ③** 8.12 오염수 해양투기 전국행동 사전집회 | 편집실
- 32 **이달의 현장 ④** 2023 Y-틴 전국회원대회 | 이은혜
- 34 **이달의 현장 ⑤** 부천YWCA 대학·청년YWCA 창립총회 | 박지인
- 중·인 | 한일YWCA협의회**
- 36 한·일YWCA '동아시아 생명과 평화' 논하다 | 편집실
- 39 한일YWCA협의회 참가기 | 고미연·이예림
- 40 **법인이사 해외연수기** 각자 다른 모습이어도 정의·평화 생명의 가치 나눈 시간 | 조은지
- 42 **크리스찬의 눈으로 보는 문화** 아름다운 것들을 본 죄 다큐멘터리 영화 <수라> | 이윤숙
- 44 **미술가 산책** 강북에선 영국 거장을, 강남에선 한국 괴짜를 | 김민주
- 46 **성명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투기 저지 한일YWCA공동성명서
- 47 **성명서**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서 성별영향평가 지표 삭제는 퇴행이다.
- 48 **평화대회 결의문** 정전 전쟁 위기를 넘어, 적대를 멈추고, 지금 평화로!
- 49 **성명서** 인류와 생명에 대한 범죄행위!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결정 반대한다!
- 50 **연합회 소식**
- 57 **회원YWCA 소식**

# 그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는 우리 YWCA 열이 한 걸음으로!



**정혜원**  
(사)한국YWCA연합회 이사

절기상 '입추(立秋 8월 8일)가 지났지만 전국은 여전히 무덥다. 태풍 '카눈'이 지나가자마자 선선한 바람은커녕 곧바로 발령된 폭염 특보는 폭염 경보로까지 격상되었다.

폭염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가장 주요한 요인은 지구 온난화다. 이러한 지구 온난화로 시작된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탄소) 감축목표를 세우고 국제법령 제정과 온실가스(탄소) 배출권, 탄소세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에도 기온 상승은 계속되고 있다. 즉 지구의 평균 기온은 21세기 들어와 19세기 후반 평균보다 1.2°C 상승하였고, 21세기 말까지 평균 기온이 1.8~6.4°C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엔과 적십자의 공동 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전 세계적인 38건의 폭염으로 7만 명 이상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였으며 지구 기온이 2°C 상승할 경우 폭염 발생률이 14배 높아진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처럼 폭염은 우리 삶의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무엇보다 건강에 많은 위협을 주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이나 5세 이하의 어린이,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들의 건강 피해는 삶의 질뿐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어 기후 재난의 불평등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사람뿐 아니라 생태계 전체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지구촌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큰 재난을 안겨 주고 있는 지구온난화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화석 연료의 사용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로 가속화

되었다. 산업과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 삶이 편리해질수록 기후재난이 일어날 확률 또한 높아진다. 결국 우리들의 욕심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파괴하였으며, 이는 다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도미노가 된 것이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들이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약1:15)는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감히 말하겠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에서도 등불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우리 YWCA 자매들이다. 하나님의 창조질서 보전을 목적으로 우리 YWCA는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하나님의 창조질서 회복과 생명 존중'이라는 가치 하에 '탈핵기후생명운동을' 중점운동으로 결의하였다.

작금에 경험하고 있는 잔인하기까지 한 이 기후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핵에너지가 아닌,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에너지, 지역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새로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정책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8,9월 안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선언한 일본과 이를 해당 국가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뒷집지고 있는 정부를 향해 8월의 장마와 퇴약별 아래서도 굴하지 않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운동'을 벌였다.

혼자 열 걸음이 아닌 '열이 한 걸음으로 사는 지혜로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성이 회복된 사회, 하나님의 정의·평화·창조질서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YWCA 자매들, 활동가들이 자랑스럽다. 🙏

# 하나님의 평강과 기다림

요한복음 14:27



**김여름**  
새문안교회 교육부 목사

살롬! 평화의 인사 살롬은 참으로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아름다운 만큼 이 세상에 평화가 펼쳐지기가 쉬우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살롬이 이 땅에 실현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분단 국가로 70년 이상이 지난 한국 사회의 특징은 사회의 많은 문제를 이념 대립의 주제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으로부터 큰 사건에 이르기까지 마음의 분열, 지역의 분열, 사상의 분열이 일어나 본질이 흐려진 싸움만 남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독교 사상이었던 톨스토이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던 간디도 폭력으로 시작한 폭력의 굴레는 벗어나기 어려운 인간의 한계임을 처절하게 느끼며 악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닌 타인을 선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기독교의 평화가 무엇이기에 삶을 대하는 그 목적이 달랐을지 우리는 더욱 예수님의 평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눅 2:14)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 14:27) 이것은 그 당시 로마제국 아래에서 신음하던 평화를 두고 한 말씀이었습니다. 물리적인 힘의 평화는 그 힘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금세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는 평화였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은 평화 곧 예수님의 평화는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오셔서 그 죄를 십자가

의 대속함으로 자기를 내놓아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회복시켜 놓은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단절로 사망과 고난과 질병을 짊어진 채 살아가다가 어느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원수 되었던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회복시켜주셨습니다.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과 같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롬 5:2)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해 각자의 목적이 있도록 지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그것이 성취될 것을 믿고 의지하며 그것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고 즐거워할지라도 그런 세상을 바라며 갈 때 늘 어려움이 도사립니다. 매번 무너지는 마음과 어려운 상황들, 물리적인 압박 모든 것이 쉽게 될 것 같지만 금세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기다림이라는 요소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간과 사건 속에서 성숙하게 만들어 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술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작은 겨자씨가 자라 큰 나무가 되는 것과 같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평강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기다림으로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

# 동아시아 정세와 전망, 평화 구축을 위한 제안

김준형

한동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

## 격변의 세계질서와 한반도-동아시아 위기

현 국제질서는 지난 30여 년의 탈냉전 체제가 조성한 나라는 협력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가 급속하게 무너지고, 지정학의 도래와 각자도생의 파편화가 부상하고 있다. 무엇보다 초강대국들의 세력 변동으로 국제질서의 불안정성이 점점 커진다. 미·중 전략경쟁의 격화와 더불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탈냉전 이후 한계 속에서도 어느 정도 작동했던 협력 및 공동안보는 약화하고, 배타적 민족주의와 동맹 간 진영 대결 체제가 심화한다. 이미 미디어와 다수 국가에서는 현 국제질서를 '신냉전'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동시에 변동하는 국제질서의 실체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미·중이 체제와 이념이 분명 다르고, 미국이 대중봉쇄를 위해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진영을 나누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신냉전을 기정사실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선불리 신냉전으로 규정하면 과거처럼 한 진영을 배타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기 쉽다. 미국의 주도로 추진되는 글로벌 진영화의 이면에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실익 추구가 작동함으로써 진영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다극화의 경향도 강하며, 미·중 관계가 악화일로로만 간다는 것도 선부른 예단이다. 그렇다고 파편화 및 다극화 현상이 신냉전보다 더 낫거나, 또는 위기의 대안이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한편에서는 신냉전의 담론에 올라탄 미·중 대결구조가 펼쳐지고, 다른 한편에서는 다극의 행위자들이 글로벌 거버넌스 틀이 무너진 상태에서 무차별적으로 자국 이익을 추구할 때 훨씬 혼란스럽고 위협해질 수 있다.

대한민국은 구한말과 2차 세계 대전 직후 전환점에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충돌지점으로서 겪었던 대외환경의 위기를 다시 맞고 있다. 1990년대 초 냉전체제 붕괴와 탈냉전 도래의 기회를 놓치는 바람에 분단 구조를 해체하지 못하고, 2018년 큰 희망과 기대를 품게 했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이후 기나긴 교착에 빠져들었다. 이후 북미 및 남북관계는 악화일로였고, 미·중 및 미·러 관계의 악화와 2022년 5월 보수 강경의 윤석열 정부의 집권이 더해지면서 한반도의 위기는 가중되고 있다.

## 미국의 전략과 윤석열 정부

미국이 2차대전 후 아시아 전략으로 구축한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미국을 중심에 놓고 아시아 주요 국가들과 다수의 비대칭 양자 동맹을 구축하는 방식이었다. 양자 동맹을 통해 미군이 직접 주둔해 안보 우산을 제공함으로써 반공 전선을 형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았다.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도 같은 방식과 맥락으로 결성되고 운영되었다. 그러나 냉전이 심화하면서 다수의 양자 동맹만으로는 북방 세력 견제의 한계를 느끼고 미국은 동맹국 간의 연결도 적극적으로 고려했다. 특히 중국, 소련과 인접한 한국과 일본의 안보적 연결이 중요한 전략적 숙원의 하나였다.

한·미 및 미·일 동맹이라는 두 개의 양자 동맹에서, 더 긴밀한 3자 협력의 틀, 또는 한·미·일 유사 동맹의 실질화를 통해 미국의 영향력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전략은 레이건과 부시 정권에서 본격적으로 시도되었으나 제도화까지 나가지

는 못했다. 그러다가 오바마 정권 들어 중국의 급부상에 대한 위기감으로 제시도 된다. 오바마 2기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은 전후 알타·포츠담 체제의 부활을 넘어 한·미·일 유사 3각 동맹의 '실질화'가 핵심적인 전략 중 하나였다. 이후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미국의 전략적 필요를 위해 일본의 재무장을 제한하는 기능을 배제하고, 일본의 군사 및 경제적 동원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전환했다. 미·일 동맹은 밀월관계로 가고, 아베 정부는 미국의 정책에 대한 단순한 조응을 넘어 정상 국가화라는 일본의 미래전략으로 활용했다. 그것은 미·중 갈등 구조를 활용하여 군사적인 제한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었다.

미국은 한·미·일 군사협력 구축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이 한·일 관계 때문임을 알고 있었다. 동시에 그 원인으로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는 일본의 반역사적 행동을 비판함으로써 한국의 도덕적 우위를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미국의 전략적 필요가 절실해지면서, 그리고 일본이 미국의 아시아 전략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우경화나 역사 왜곡에 대한 비판에 가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가치와 인권을 중요시하는 미국의 민주당 정부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이 이전 충분한 성의를 보였다는 식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런 맥락에서 2015년 웬디 셔먼 미국무부 차관의 망언은 다분히 의도적이었고, 이후 미국 정부의 압박은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이어졌다. 그러나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고, 문재인 정부에 의해 위안부 합의는 뒤집히면서 미국의 계획은 차질을 빚었다.

윤석열 정부의 집권은 미국에 새로운 기회의 창이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대북 강경 및 친일·친미 노선을 확실히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으로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했다'라는 식으로 규정하였다. 전임 정부가 신남방정책 등을 통해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의 인·태 전략에 동시에 참여함으로써 한반도가 갈등의 중심 무대가 되는 것을 막으려는 노력을 모호성으로 폄하하고 진영을 명확하게 선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후 진영편향의 외교에 일관성을 보여줬고, 내용상으로도 대미 및 대일 외교가 전부이다시피 했

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1월 동남아에서 열린 일련의 다자회의 참석을 계기로 대외전략으로 <인·태 전략>을 천명하고, 한·미·일의 <프놈펜 공동선언>을 통해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 등 대륙을 견제하는 해양 세력에 본격적으로 동참할 것임을 선언했다.

한국이 미국이 지휘하는 해양 세력 편에 서고, 미·일과 함께 대륙 세력인 북·중·러를 적대적으로 포위하는 선봉에서겠다는 전략이 미국의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이익은 결코 아니다. 분단 및 정전 상태에 처한 우리가 한반도와 인접한 북·중·러와 적대적 관계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게다가 부분적 협력이 아닌 동맹 파트너로서 일본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가치'를 내세우며 진영을 가르는 미국이, 더욱이 인권과 가치를 중시하는 민주당 정부가 불의한 과거에 눈을 감고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부추기는 행보를 무비판으로 수용할 수는 없다. 지난 3월 6일 굴욕의 <강제동원해법> 발표 10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미국이 오바마 정부 시절부터 그토록 간절히 원했고, 일본이 열심히 장단을 맞췄던 한·일 유사 동맹의 실질화는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수용하면서 급진전하고 있다.

##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제안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힘을 통한 안보'와 '진영편향의 외교'는 오늘날 미·중·러가 벌이는 지정학적 충돌 국면과 맞물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에 치명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로마의 군사 전략가 베게티우스의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경구를 자주 인용하며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했다. 대비를 잘하면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격언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독일의 평화학자 피터 징하시는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준비하라"는 말로 반박했다.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독재를 준비할 수 없는 것처럼,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할 수는 없으며, 반대로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들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안보는 매우 중요하고, 국가가 국민의 생

존을 확보할 수 없다면 어떤 계획도 무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강 대 강의 전쟁불사론으로 긴장을 조성하고, 배타적 진영에 속해 강대국 전략경쟁의 충격을 모두 감당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 외교의 자율성과 주도권을 높이는 전략 필요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우선 진영편중의 전략은 우리의 외교 역량을 지정학과 군사동맹의 범위 안에 갇히도록 만들 우려가 있다. 대한민국은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발전과 번영을 이뤄왔다. 확장억제, 전략자산 전개, 한·미 연합훈련 확대 등을 통한 외교의 안보화와 경제와 기술 등 가히 모든 영역의 군사화는 올바른 길이 결코 아니다. 분단체제 형성 이후 한 번도 그 당위성과 효용성을 재검토한 적이 없는 친미 편승의 외교로는 한반도와 동북아에 전혀 이해 당사자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없다. 우리의 선택은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해 미·중의 패권적 관할체제를 약화함으로써 외교의 자율성과 주도권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것이다.

대외환경의 악재들을 극복하기 위해 추구해야 할 가치는 평화의 복원과 협력을 통한 공존의 모색이다. 내부적으로는 분단체제에 기생하며 기득권을 유지해온 안보 장사꾼들을 정리하고, 외부적으로는 극우민족주의 강경파들이 득세하는 한반도 주변 국제질서에서 중심을 잡고 주도적인 외교로 평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미·중 전략경쟁의 판에서 배타적 선택의 프레임에 빠져들지 말고, 유사한 입장과 능력을 지닌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완충지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미·중 대결구조가 현 국제질서에서 결정적 변수라고 하더라도, 프레임 안에 갇혀 수동적인 외교로는 미래가 없다. 한국이 원하는 나라, 한국을 원하는 나라들이 함께 완충과 협력의 연대가 될 수 있는 '제3의 지대'를 만들어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 유럽과 더불어 인도, 아세안, 호주 등도 연대에 포함한다면 제3의 지대는 큰 영향력을 보유할 수 있다.

특히 미·중 및 미·러 관계가 악화하면서 인류 공동의 과제인 평화, 기후변화, 팬데믹, 핵확산 등에 대한 협력이 사라지

고,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개발원조가 후 순위로 밀려나면서 불안정성이 커지는데, 제3세대 구축을 통해 그 공백을 메울 수도 있다. 윤석열 정부가 외교를 독점하고 강경한 대북정책과 진영편향의 냉전적 외교를 지속한다면, 시민사회가 뒷짐을 지고 있을 수만은 없다. 미약하더라도 세계평화 세력의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저항해야 할 것이다.

미·중 갈등이 격화될수록, 한국의 운신이 어려워질 것은 명확하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되, 한중 관계를 손상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견지했는데, 이것은 보수세력의 프레임 씌우기인 ‘전략적 모호성’과도 차이가 있고, ‘미·중 사이의 엄격한 균형’도 아니다. 사실 한국의 역대 어느 진보 정부도 미·중 사이의 균형을 추구했던 적은 없었다. 미·중 사이에서 국익을 챙기는 실사구시의 방안을 모색했을 뿐이다. 그래서 균형보다는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용어가 더 바람직하다. 유럽이나 인도가 채택하고 있기도 하고, 균형이라는 용어로 인한 친중 프레임에 피하는 데도 효과적인 것이다. 미·중 전략경쟁에서 남북한이 대결구조로 갈 경우, 한반도는 대리 희생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이를 피하려면 평화공존의 담론을 적극적으로 발신해야 한다.

###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준비하라

근대 철학자 중에 최초로 체계적인 평화론을 구축한 에라스무스는 아무리 정의롭지 못한 평화도 어떤 정의로운 전쟁보다 낫다고 주장하며, 돈을 주고서라도 평화를 살 수 있다면 사야 한다고 했다. 평화학의 세계적 대가인 요한 갈통은 안보를 통한 평화보다 평화를 통한 안보가 훨씬 값싸고, 더 낫다고 했다. 우리는 ‘평화문 촛불의 기적’을 등에 업고 미국을 향해, 세계를 향해, 협력과 평화공존, 민주주의 같은 가치 외교의 가치를 당당하게 올려야 한다. 이것이 세계가 함께 사는 길이며, 우리도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평화 담론으로 안보 포퓰리즘과 가짜 통일론을 극복하고, 남북관계의 적극적 개선을 통해 운신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 시발점은 남북관계 개선이고 종착점은 동북아 평화 및 세계의 평화가 될 것이다. 

# 정전 70주년에 평화를 생각한다

##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동아시아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려는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묶어내는 3각 동맹을 통해 세계 패권을 유지하려 한다. 이에 질세라 중국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고 이젠 핵보유국이 된 북한과도 더욱 돈독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과거에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진영이 맞부딪던 곳이 한반도였다면 이제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세력에 의해 다시금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탈냉전이 진행된 1990년대 초반 이래로 한반도에서 이토록 군사적 위기가 도래한 적이 있었던가. 한국전쟁이 ‘정전’체제로 전환된 지 정확하게 70년, 다시금 한반도 평화는 남북 사이의 문제만이 아닌 강대국 두 진영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전쟁이 냉전 시대의 열전이었다면 신냉전 시대에 또 다른 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 정전은 ‘교전을 중지한 상태’, 정전체제의 비정상성

주지하듯 한반도에서는 정전이 끝나지 않았다. 현실에서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법적으로도 교전이 잠시 멈춘 상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1953년 7월 27일에 마크 W 클라크 유엔 총사령관, 김일성 북한군 최고사령관, 팡덕회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3자가 정전협정을 체결한 것에 기초해서 현재 한반도의 ‘정전체제’가 구축되었다. 여기서의 정전(停戰)은 “교전을 중지한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정전협정은 군사적 합의문의 성격을 지닌다. 특히 정전협정문에 교전을 중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명기하면서도 향후 정치 회의를 통해서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문제를 협의”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전쟁의 평화

적 종결을 위한 제네바 정치회담(1954년 4월 26일~6월 15일)이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나게 되면서 결국 지난 70년 동안 한반도에서는 정전협정에 기반을 둔 정전체제가 구축되었다.

교전이 멈추기는 했지만 남북의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 대결은 더욱 격화되어 왔다. 남한은 불안정한 안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한미군사동맹에 매달리게 되었고, 결국 1954년 11월 18일에 <한미방위조약>이 발효되었다. 북한은 군사동맹의 수준은 아니지만 중국과 1961년 7월 11일에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을 맺었다. 남한은 주권 국가의 요건 중 하나인 ‘전시군사작전권’이 없는 기이한 형태로 남겨져 있으며, 북한은 미국과 남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핵개발에 매진하게 되었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 모두 상시적 전시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으며 이는 양쪽 모두의 비정상적인 사회를 구성하는 데 근간이 되었다.

남북의 군사비 지출 규모만 봐도 정전체제의 비정상성이 확인된다. 남한은 북핵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목 아래 세계 9위 규모의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북한 또한 GDP 대비 군사비 지출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로 알려져 있다. 안보의 이름으로 시민들의 권리가 무시되는 일이 비밀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비정상적인 젠더 불평등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남북 모두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정전체제를 끝내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안보의 문제를 넘어서 남북한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서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

### ‘적 vs 민족’이라는 분열적 정체성

물론 한반도에서 지난 70년 동안 다시 전면적인 교전이 일

어나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이들도 있다. 강력한 한미동맹의 효과로 남한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정전체제가 만들어낸 '교전이 멈춘 상태'가 평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남북은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면서도 동시에 통일을 이뤄내야 하는 '민족'으로 호명하는 분열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여 국가 정체성을 구축하였다.

이런 맥락 아래 남한의 정치 세력은 북한과의 관계 설정을 두고 '진보'와 '보수'라는 정치 노선의 차이를 만들어오고 있으며, 북한은 남한과 미국의 위협을 극도로 강조함으로써 3대 세습이라는 전 세계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정치 체제를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다양한 사회 아젠다를 담아내지 못하는 남한 정치 지형은 점점 더 왜곡되고 있으며, 독재체제가 더욱 공고화된 북한에서 인민들의 삶은 피폐해져만 갔다. 결국 교전은 멈춰있지 몰라도 남북 모두 정전체제 아래 또 다른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 정전체제하에서 지속되어 온 전쟁 같은 상황

남한의 '전쟁 같은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자. 남한은 전쟁 이후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뤄낸 엄청난 저력이 있는 국가로 평가된다. 물론 남한이 잘 살게 된 것은 분명하고, 아무리 정치적 양극화의 문제가 심각하더라도 적어도 절차적 민주주의 체제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여러 사회 현상은 앞만 보며 달려온 남한 사회 곳곳에서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합계출산율 세계 최하위와 OECD 자살율 1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남한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청년들은 미래 없는 사회에서 아이를 낳을 엄두를 내지 못하며, 사회적 연대가 붕괴된 상황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조차 버거운 것이 바로 현재 남한의 모습이다. 하루가 다르게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는 단순히 몇몇 사회 부적응자의 문제가 아니라 남한 사회가 안에서부터 얼마나 썩었는지를 징후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기도 하다. 교육 현장은 붕괴되어 학생도 선생님도 모두 다 아우성이며, 극단적 신자유주의 체제의 윤리인 생존주의로 인해 친구, 가족,

공동체 따위는 이미 쓰레기통으로 들어간 지 오래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정치 세력은 북한이라는 적에 대한 두려움을 앞세워 표를 얻는 것에만 골몰하고,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군사력이 필요하다는 중세 시대의 논리로 사람들의 눈을 가리기까지 한다. 더욱이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토록 필요로 하는 복지, 환경, 교육, 젠더 평등 등은 순식간에 냉전 이데올로기 자장 아래 정치적 정쟁으로 바뀌어 버리기 일쑤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에 희망을 찾기 어려워진 시민들은 절망을 넘어 멸망을 상상하기까지 한다.

### 중전을 통한 평화

현재 남한 사회는 절망의 밑바닥일 것이다.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는 상태. 그렇다면 이제는 그 밑바닥을 딛고 다른 세계를 만들어갈 일만 남았다. 절망과 멸망 끝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부터 일별하려는 시도가 우선되어야 한다. 분단, 정전, 냉전과 경쟁만을 우선시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와 성장주의가 지금의 고통을 만들어 냈다면, 그것들이 파괴한 폐허에서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와 의미를 찾아야만 한다.

예컨대 주디스 버틀러는 근대적 세계의 폭력성을 고발하면서 국가와 근대적 주체라는 허상을 벗어던지고, 주체의 상호 의존성, 취약성, 불안정성을 적극적으로 사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타자라는 존재가 제대로 살아갈 때 나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남과 북이 서로 얼마나 취약한지, 서로 어떻게 의존하며 비정상적인 사회를 구축하였는지를 인지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상대를 절멸하겠다는 것으로는 결코 평화가 오지 않는다. 남북 사이에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도, 하물며 남한 내 물고 뜯으며 싸우는 정치 세력 사이에도 상대를 절멸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결국에는 모두의 파멸을 뜻한다는 것을 알아채야만 한다.

한미일 당국은 대규모의 군사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합대가 동아시아 해협에 등장했다. 북한은 새로운 전략 무기를 앞세운다. 힘에 의한 대결은 모두를 위협으로 내몬다. 대화가 더욱 절실한 시대이다. 

# 정전 70년, 전쟁을 끝내고, 지금 평화로!

##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공동상황실장

“전쟁은 국가에 의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평화를 이룰 사람들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범한 시민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전 70년 국제 심포지엄 참여자

“70 years is enough(70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명합니다. 저는 평택에서 근무하는 주한미군입니다.”

- 거리 서명부스에서 만난 분

“한 번의 전쟁보다 천 번의 대화가 낫습니다.”

-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대회 추진위원 참여자



여기 70년 동안 끝내지 못한 전쟁이 있다. 70년을 만나지 못하고 그리워한 가족들이 있다. 전쟁이 남긴 고통, 분단과 적대의 상처를 안고 70년을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 올해 2023년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전쟁은 잠시 멈추었을 뿐, 끝나지 않았다. 한반도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긴 휴전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가끔 우리가 무감각해졌을 수 있지만, 한반도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평생을 전쟁의 위협과 함께 살아온 셈이다. 한국 사람들에게 전쟁은 때로는 가장 가깝지만 넘을 수 없는 국경으로, 때로는 같은 언어를 쓰지만 만날 수 없는 사람들로, 때로는 군 입대한 가족과 친구의 소식으로, 때로는 군사비 지출 세계 9위나 무기 수입 세계 6위라는 한국의 기록으로, 때로는 내가 사는 곳과 그리 멀지 않은 지역에서 핵 실험이 있었다는 뉴스로 느껴진다. 그렇게 70년이 지났다.

불안한 휴전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또다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 한반도의 위기는 언제라도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하다. 한반도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연구자들 역시 입을 모아 '유례없는 전쟁 위기'라고 표현한다. "대피 준비를 하라"는 위급 재난 문자와 사이렌이 울렸던 새벽, 비록 오발령으로 밝혀졌지만 시민들은 높아진 전쟁 위기를 절감할 수밖에 없었다.

### 한반도·동북아의 전쟁 위기

한국과 미국, 북한이 모두 상대방을 향한 '선제 타격'을 공표하고 이를 연습하는 위태로운 상황이 내내 이어지고 있다. 강대국 대치 속에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핵 전쟁 위기도 현실이 되고 있다. 남북의 대화 채널이 모두 끊긴 상황에서 우발적인 충돌이라도 발생한다면 재앙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지난 8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의 결과로 '캠프 데이비드 선언'이 발표되었다.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길을 본격적으로 연 것이다. 3국 정상의 발표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진영 대결을 심화하고 전쟁 위기를 높일 합의를 가득했다. 북한



의 핵·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한미일 군사훈련의 강화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해결할 수 없으며 군비경쟁의 악순환만 불러온다는 사실은 이미 지난 시간이 충분히 증명했다. 한편 '공동의 이익과 안보'라는 추상적인 표현 아래 한국 시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한국군이 지역 분쟁에 개입하거나 연루될 위험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각국 정부가 이렇게 전쟁 연습에만 몰두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모순이다. 탈냉전 시기에도 냉전 구조를 벗어나지 못해왔던 한반도는 이제 '신냉전'이라고도 불리는 예측하기 어려운 소용돌이의 한복판에 서 있다.

**한국전쟁을 끝내기 위한 하나의 목소리,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이 오래된 전쟁을 끝내고 휴전을 평화로 바꾸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자, 또 책임이기도 하다. 그래서 2020년 종교계와 시민사회는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Korea Peace Appeal

Campaign>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더 이상 이 전쟁을 끝내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적대를 멈추고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을 끝내자는 전 세계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곳에서 저곳으로 반향을 일으키고 하나로 연결된다면, 평화를 위해 그보다 더 강력한 원동력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캠페인은 그동안 Korea Peace Appeal 서명운동을 중심으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고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거리에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서명 용지에 이름을 남겨주신 분들, 온라인에서 캠페인에 참여하고 널리 알려주신 분들, 만날 수 없었던 코로나 시기 평화의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주신 분들, 멀리 바다 건너에서 서명 용지와 응원의 편지를 국제우편으로 보내주신 분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정성스러운 마음이 모였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해외 동포와 전 세계 각국의 시민들이 함께해 온 시간이었다.

지금까지 약 18만 명이 Korea Peace Appeal 서명에 동참했다. 현재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에는 한국의 700여 개 한국 종교·시민사회단체, 7대 종단, 70여 개 국제 파트너 단체와 네트워크가 함께하고 있다. 한국전쟁을 끝내기 위한 가장 크고 넓은 전 세계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캠페인은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욱 크고 신나게 울려 퍼지도록 하는 확장기이자, 네트워크의 네트워크가 되고자 노력해 왔다.

**한반도에 다시 전쟁은 안 된다.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그리고 정전 70년을 맞아,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은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더욱 크게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을 시작했다. Korea Peace Appeal 서명운동을 비롯하여 한미연합군사연습과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촉구 활동, 전 세계 300곳 평화행동을 거치며 지금까지 쉽 없이 달려왔다. 지난 7월에는 국내외 2천여 명이 함께한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대회와 행진, 임진각 기자회견, 국제 심포지엄 등을 통해 "적대를 멈추고, 전쟁을 끝내고, 지금 평화로"를 외치는 시민들의 강력한 목소리를 다시 한번 모아냈다. 더위와 폭우 속에서 누구도 웃음을 잃지 않고, 평화로 하나 된 시간들이었다. 모두가 함께라서 가능했던 순간이다.

시민사회의 평화행동에 응답하고 공명한 목소리들도 연달아 이어졌다. 국회에서는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이인영 의원 등 의원 168인)」이 발의되었다. 세계교회협의회(WCC) 제리 필레이 총무, 프란치스코 교황, 티베트 불교지도자 달라이 라마 역시 정전 70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와 종전을 염원하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유엔 사무총장은 7월 27일 메시지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우려하고 "평화를 위한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당사국들이 정기적인 외교적 접촉을 재개하고 대화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2020년부터 모아온 Korea Peace Appeal 서명과 캠페인의 결과는 올해 10월 유엔 총회 시기, 남·북·미·중 정부와 유

엔 사무총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관련국들이 전쟁 위기 해소와 대화 재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촉구할 것이다.

무력 충돌을 예방하고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는 데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할 시기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적대와 갈등, 진영 대결을 부추기고만 있다. 그렇게 '힘에 의한 평화'만을 강조한 결과는 무엇이었나. 긴장이 높아지고 전쟁 위기가 앞당겨졌을 뿐이다. '힘에 의한 평화'야말로 '가짜 평화'다. 지금 중요한 것은 '싸워서 이기는 능력'이 아니라 '싸우지 않도록 만드는 능력'이다. 상대를 비난하고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것보다 대화하고 중재하는 일이 수천 배는 어렵지만, 오직 그것만이 '진짜 평화'로 가는 길이다.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으니까**

정전 70년의 한반도는 지금 다시 '전쟁'과 '평화'의 기로에 서 있다. 하지만 휴전에서 평화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해 보인다. 당장의 변화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솔직히 말하자면 더 나빠지는 것을 막는 일에도 실패할 때가 많다.

그래도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평화롭게 살아야 하고, 평화적 수단으로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길이기 때문이다. 인류가 가진 자원과 예산은 전쟁 준비가 아니라, 기후 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처럼 우리 모두가 직면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현명하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주민들은 휴전 상태를 벗어나 온전한 평화를 누리며 살 권리가 있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이에게 더는 전쟁을 물려줄 수 없기 때문이다.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고, 우리가 평화를 말하지 않으면 평화는 오지 않는다. 평화의 희망은 그 누구도 아닌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그 단순한 지혜를 지난 3년의 캠페인 시간 거리에서, 온라인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배웠다. 지난 70년 오지 못했던 미래를 만들어 가는 이 여정에, 당신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

**지금 서명하기** 이 서명은 2023년 10월 남·북·미·중을 포함한 한국전쟁 관련국 정부와 유엔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 한국정부의 공조속에 현실이 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원 센터 공동대표, 기후에너지정책학 박사

※ 이 글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개시 직전에 쓰여진 것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개시 시점을 8월말이나 9월 초 사이로 결정할 것이라는 일본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오염수 해양투기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오염수 해양방류 문제는 지적하지 않은 채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말했다. 한국 대통령이 일본과 우리나라를 이익공동체로 규정하면서 일본의 이익을 위한 오염수 해양투기에 확실한 명분을 안겨 주었다. 대통령 경축사에 바로 이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오염수 해양방류 관련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한일간 실무협약’이 마무리됐다며 양측의 최종 검토와 문안 정리를 거쳐 곧 협의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일본과의 실무협약도 마무리했다는 것은 오염수 해양방출에 필요한 모든 수순을 끝냈다는 것이다.

### 일본정부를 위해 오염수 해양투기를 정당화한

#### 국제원자력기구(IAEA)

IAEA의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지지 입장은 바다생태계와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IAEA는 최종보고서 발표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고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여 △주변국 인구에 대한 추정 피폭량은 무시할 수준이라고 결론을 내며 해양투기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IAEA는 보고서 서두에 ‘이 보고서의 견해가 회원국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며, 보고

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오염수 방류는 일본 정부 결정으로 해당 정책을 권장하거나 지지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책임도 지지 않으며 오염수 해양방류에 면죄부를 준 IAEA 최종보고서는 여러 가지 결함을 드러냈다. 먼저, 바닷물, 해저퇴적물, 어류, 해조류 등의 환경시료 분석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 환경시료 분석 결과는 올해 하반기에 나온다. 둘째, IAEA는 1,070개의 탱크 가운데 도쿄전력이 떠준 3건의 오염수 샘플 중 단 1건의 분석결과만 나온 상태에서 안전성에 대한 결론을 냈다. 나머지 2건의 분석결과는 연말에 나올 예정이다. 셋째, 오염수의 방사성핵종 배출 허용기준치를 맞춰 줄 다핵종제거설비(알프스) 시설에 대한 성능 검증은 전혀 하지 않았다. 현재 일본이 알프스 처리를 거쳐 바다로 방류하겠다고 한 오염수의 72%가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 알프스(핵종제거설비)가 고장 나고, 이로 인해 정화되지 않은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성능 검증 등 설비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제외하였다.

#### IAEA 안전지침까지 어기며 해양투기를 승인한 IAEA

IAEA는 이번 검토에서 IAEA가 정한 안전지침까지 어기며 일본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IAEA 일반안전지침(GSG-8)은 ‘사람이나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계획된 행동을 도입하거나 지속함으로써 그 행동(방사선위해 포함)으로 개인이나 사회에 예상되는 이익이 그 행동으로 초래되는 해악보다 커다는 것을 정당화’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정부가 오염수 해양방류를 하려면, 피해를 입는 주변국가에 해양방류로 얻는 이익이 피해보다 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일본의 오염

수 해양방류 결정 이후 18개 태평양도서국가는 독립적 전문가포럼(PIF)을 구성하여 안전성 검토를 진행해왔다. 이들은 IAEA에 지속적으로 ‘오염수 해양방류가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등 주변국에 미치는 피해만 있을 뿐 그 어떤 이익도 없다고 제기해왔다. IAEA는 전문가포럼의 문제제기에 답변을 피해왔다. 최근 화상으로 개최된 전문가포럼과의 회의에서 다시 질문을 받자 IAEA 검토팀 책임자는 “그 사안은 일본에 물어봐야 한다. 이건 우리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다시 일본정부와의 화상회의에서 PIF 전문가가 “IAEA가 이 사안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책임이라고 답변했다. 원자력규제위원회는 해당 평가를 진행했나?”고 묻자, 일본 정부는 “이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란 후쿠시마에 존재하는 위험의 축소”라는 답변을 내놨다. 일본의 이익만 있을 뿐 주변국들에게는 피해밖에 없다는 문제제기에 반론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IAEA는 또한 도쿄전력이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한 방사선영향평가를 수행하면서 해양생태계와 생물에 미치는 영향과 해양 퇴적물에서 방사성핵종 농도를 포함하지 않는 등 일반안전지침 9(GSG-9)를 어기는 것도 묵인했다. 해양생태계 방사선영향 평가 때 물속의 부유물질을 걸러 먹는 조개, 크릴, 해면동물 등 실제 방사성오염수 영향을 받게 될 어종은 포함하지 않았다. 먹이사슬을 통한 방사능 축적 위험 평가에도 방사성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작은 물고기들 대신 일반 사료를 먹인 물고기를 대상으로 하는 등 의도적으로 방사능 축적의 가능성을 최소화했지만 IAEA는 이러한 평가를 모두 인정했다.

#### 일본정부는 오래전부터 IAEA에 거액의 분담금과 기여금을 내고 있다

IAEA는 원자력산업 육성과 원자력 비중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기구로 회원국의 분담금과 후원금으로 운영된다. 2021년 기준 IAEA 정규예산 분담률에서 미국이 25.5%, 중국이 11.5%, 일본이 8.32%를 차지하고 있다. 도쿄신문은 IAEA 최종보고서 발표 이후 “일본은 오래전부터 IAEA에 거액의 분담금과 기여금을 내고 있다.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보증

서’는 중립적 입장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자금을 제공하는 조직(일본)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배려’가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IAEA에 분담금과 별도로 2021년에도 분담금 38억6천만 엔(약 345억 원)의 30% 수준인 기여금(약 11억 4천만 엔)을 냈다(김소연, 한겨레, 2023.7.10). 도쿄신문의 지적대로 IAEA의 비과학적이고 편파적 활동은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줄곧 IAEA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구로 평가하며, 우리나라가 입을 피해나 안전성에 대해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은 IAEA 최종보고서가 나오자마자 보고서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국민 우려를 과감히 ‘후쿠시마 오염수 10대 과당’ 발표 기짜뉴스를 만드는 정부

정부와 여당은 IAEA 보고서 결과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임에 틀림없다며, IAEA를 믿지 않는 것은 과당과 정치선동 때문이라며 오염수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본정부도 하지 않는 기상천외한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을 하더니 급기야 ‘후쿠시마 오염수 10대 과당’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오염수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삼중수소를 기준치보다 훨씬 적은 1리터당 1500베크렐 이하로 떨어뜨려 바다로 배출할 계획이다. 이 양은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방사성물질보다 적다. 커피 한 잔에는 삼중수소 4900베크렐 만큼, 바나나 한 개에는 삼중수소 6000베크렐의 방사성물질이 들어 있다. 처리된 오염수에는 커피, 바나나보다 방사성물질량이 훨씬 적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이 주장이야말로 전형적인 기짜뉴스이다. 삼중수소 1500베크렐/L은 바다로 배출하는 기준인 뿐이며, 사람이 직접 마시는 물이 아니다. 반면 커피와 바나나는 직접 마시거나 먹는 식품인데 이걸 같이 비교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바나나 1개에 들어있는 자연방사능 칼륨40은 15베크렐(출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로 매우 적다. 칼륨40은 체내에서 일정한 양을 유지하는 성질이 있어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 섭취되며, 농축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 몸의 칼륨 양

은 엄격하게 조절(항상성 조절)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바나나를 먹든지 간에 신체는 초과된 천연 칼륨 40 양을 신속하게 자동으로 배설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칼륨40은 몸에 축적해서 너무 많은 양을 가질 수 없으며 몸밖으로 배출되므로 걱정없이 바나나를 먹어도 되는 것이다.

그런데 삼중수소는 물의 형태로 베타선을 방출하는 핵종으로 체내에 들어와 유기물질과 결합하면 몸안에 오랜 시간 누적·잔류하면서 DNA를 손상시켜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말고도 더 위험한 스트론튬90을 포함한 63개 핵종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정부 주장에 따르더라도 기준치를 맞춰서 해양 방류하기 때문에 방사능이 없는 제로 상태로 배출되지 않는다. 정부가 오염수 안전성을 강조하려고 오염수에 포함된 핵종이 마치 삼중수소밖에 없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일본이 노린 전략이다. 커피 한잔에 4,900벵크렐의 방사성물질이 있다는 것은 정부가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방사성핵종의 종류와 출처도 명확히 제시하지 않으면서 막연히 삼중수소 4,900벵크렐의 방사성물질이 들어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괴담 유포다. 커피 한 잔에 이 정도의 방사성 물질이 나왔다면, 누가 언제 어떻게 검사해서 어떤 핵종이 검출된 것인지 밝혀야 한다. 식약처와 환경부의 식품 및 하천/호소 방사성물질 검사 항목은 세슘과 요오드 2가지 핵종이다. 우리나라 식품 방사능 기준치는 100벵크렐(Bq/kg)로 기준치를 초과한 식품이 유통되는 것은 불법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이 환경방사능조사에서 지표식품 중 삼중수소와 칼륨40에 대한 방사능검사를 하지만 커피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높은 수치의 삼중수소가 검출되는 지표식품도 없다. 괴담을 불식한다며 정부 주장의 출처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며 오염수 안전을 강변하고 있다.

△정부는 삼중수소 오염수를 배출 기준에 맞게 희석해 방류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처리방식으로 원전을 보유한 모든 국가에서 시행한다고 주장하는 데 이것도 거짓이다. 전세계적으로 후쿠시마와 같은 중대사고가 난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해양 배출한 사례는 없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 시 발생한 액체방사성폐기물은 현재 2개의 저장시설에 저장 중에 있다. 1979년 미국 스리마일 원전사고 후 액체 폐기물계통에서 처리된 액체방사성폐기물은 양이 적어서 주 정부와 주민수용성을 고려하여 증발 배출하였다.

△다른 방법도 있는데 돈 아끼려 바다에 방류한다는 주장도 괴담이라며, 정부는 삼중수소를 희석해 바다로 방류하는 건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처리 방식이며 방류가 매립보다 비용이 적게 들지만 이 비용 부문만 부풀려 과장하는 건 정치적 선동이라고 규정한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결정한 것은 가장 값싸고 쉬운 방식이기 때문이라는 것은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전문가회의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다. 한국 정부가 이런 팩트마저 부정하는 걸 보면 정부 주장을 분석할 가치도 없게 만든다.

△정부는 심지어 국제원자력기구는 일본을 편들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IAEA는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 이전부터 일본의 해양방류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결정이라며 일본 정부를 지지해왔고 IAEA보고서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일본 언론도 인정한 IAEA의 편파성 지적을 ‘괴담’이라고 일축한 것을 포함하여 10대 괴담 모두 오염수 해양투기의 안전을 강조한 내용으로 채워져있다.

**해외 과학자들, 콘크리트 고체화로**

**오염수 해양투기 해결 가능**

해외 과학자와 일본 내 원자력 전문가들은 알프스 처리된 오염수를 시멘트·모래와 섞어 고체로 만드는 보관 방법을 강하게 지지한다. PIF 전문가로 참여한 달노키베레스 교수(미국 핵물리학자, 미들베리국제대학원)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콘크리트 고체화는 △오염수 탱크를 빠르면 5년 내에 비울 수 있고 △삼중수소가 콘크리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수 있으며 △오염수가 국경을 넘지 못한다는 장점이 있어 주변국에게도 이익이 된다며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이 방안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기술개발도 필요없고 당장에 실현가능한 분명한 대안이다. 한일 공동의 이익이 아니라 일본의 이익만을 위한 오염수 해양투기는 중단되어야 한다. 

# 민간단체보조금 둘러싼 정치적 공격, 무엇을 위한 것인가?

**| 류흥번**

(사)한국YWCA연합회후원회 회원YWCA 재구조화 자문위원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요사이 민간단체보조금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국민의 힘)의 연일 계속되는 정치적 공세가 과하다. 언론보도를 지켜보노라면 이렇게 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인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라는 질문이 저절로 든다. 문제의 본질이나 해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정치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단체보조금 이슈의 발단은 지난 6월 4일 현 정부가 29개 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지난 3년간의 민간단체 국가보조금 감사결과, 즉 12,133개 단체에 지급된 6.8조 보조금 중 1,856건 314억이 부정 사용되었다고 발표하면서이다. 정부 발표 전에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이를 ‘국가보조금을 매개로 한 전 정부와 시민단체의 이권카르텔’로 규정한 바 있고, 여당인 국민의 힘은 발표 직후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단체를 구조 개혁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민간단체보조금에서 제기되는 이슈가 이권카르텔이나 시민단체 구조개혁을 할 만한 사안인지 검토해보자.

**정부·여당의 보조금감사 결과 발표의 문제점**

먼저, 정부의 발표내용을 온전히 인정한다 하더라도 역시 주장에 가깝다. 최근 3년간 민간단체보조금 부정사용 금액으로 제시된 314억이 금액 자체로는 작은 규모가 아니나 감사가 이뤄진 전체 국고보조금의 0.46%에 해당한다. 역설적으로 99.54%(6.7686조)는 적정 사용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상식적 판단이라면 ‘전체적으로 매우 잘 사용되었으나 극소수 단체의 부정사용이 있어 향후 개선이 필

요하다’ 정도가 타당한 지적일 것이다. 0.46%를 이유로 민간단체보조금 전체를 ‘눈먼 돈’이라거나 ‘이권카르텔’이나, ‘부패세력’이라고 칭하는 것은 극단적 주장일 뿐이다. 이런 논리라면, 2021년 한 해만 횡령, 수뢰,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형사 입건된 공무원 범죄자 수가 2,337명(검찰청 2022년 범죄분석)이라는 이유로 전체 공무원 사회를 부패·이권 카르텔 세력으로 매도할 수 있다. 과연 그러한가?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다.

둘째, 부패 지목 대상이 불분명하고, 번지수가 잘못되었다. 정부는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민간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를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 보수언론은 한발 더 나아가 ‘시민단체’로 통칭했다. ‘민간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 ‘시민단체’ 사이에는 적지 않은 간극이 있다. 민간단체는 영리와 비영리 단체 모두를 포괄한다. 비영리단체도 서비스 제공과 주창형 단체로 구분한다. 작년 12월 정부 발표 자료에도 ‘민간단체는 각종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시민단체 등 비영리민간단체 모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민간단체 중 한 영역에 불과하다. 실제 정부의 감사결과, 문제로 지적된 42개 사례들 중 시민단체가 아닌 봉제협동조합과 같은 영리기업이나 국가가 관리하는 사회복지 시설과 공공기관 등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감사대상이 비영리민간단체나 시민단체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정부의 민간단체보조금은 영리 단체나 조직에 거의 대부분 지급되고 있고, 보조금 부정사용도 상당부분 적발되고 있다. 민간단체보조금은 정부회계 규정상 ‘민간경상보조’에 해당하

는데 국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 상의 2020-2022년 3년간 민간경상보조 집행내역은 약 123조로 연평균 41조 규모이다. 이중 74.2%가 산업 및 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지급되고 있어 영리기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 외 사회복지와 농림수산 분야 등 사회적 취약 영역이 20%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비영리민간단체나 시민단체에게 지원된 금액과 비율은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정부감사 대상이 된 민간보조금 6.8조는 전체 민간경상보조의 5.5%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허위·과다 청구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결과를 보면 2021년 하반기 환수-처분된 전체 건수는 107,662건, 총금액은 74,267백만인데, 이중 사회복지 분야가 105,027건(97.6%) 65,194백만(87.8%)으로 대부분은 차지하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169건 5,198백만(7.4%)으로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주로 시민단체와 관련한 공공행정,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안전, 통일 등은 전체 1%도 안 된다. 굳이 민간경상보조 전체나 비중이 큰 영리 민간단체도 아니고, 보조금 규모도 적고 적발 비중도 낮은 비영리민간단체나 시민단체만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당인 국민의힘은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보조금 부정사용 단체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을 지목해 연일 강도 높은 비난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들 시민단체들이 현 정부의 장애인정책, 환경정책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공통점 외에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과는 크게 연관이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민단체들을 옥죄기 위해 민간단체보조금 문제를 부풀려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셋째, 정부 민간단체보조금 처방은 엉뚱한 단체나 사각지대의 피해만 가져오게 될 것이다. 정부는 감사결과 대책으로 보조금 5천억 삭감과 각종 규제 강화를 발표했다. 문제는

5천억 보조금 삭감이 시민단체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사회복지기관을 비롯해 과학기술단체 등 엉뚱한 민간단체들의 지원금이 대폭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가 국내외 과학기술자 50만 명이 모인 한국과학기술총단체연합회의 국고보조금 70%(98억)를 삭감 통보(디지털타임즈, 2023.8.1)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회계감사대상(10억~3억)과 회계검증대상(3억~1억) 적용기준을 확대하는 규제강화대책도 정부·여당이 견제하고 싶어 하는 시민단체가 아닌 정부 지원규모가 큰 사회복지시설이나 국제개발협력기구 등이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 단체들의 행정력과 비용부담만을 증가시키는 빗나간 처방이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시민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규모 자체가 매우 미미할 뿐만 아니라, 연 1억~3억 이상 정부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정치적 목적에 급급해 엉뚱한 민간단체와 사회복지기관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넷째, 정부는 감사결과 자료를 공개하고, 발표에 신중해야 한다. 정부 발표 이후 소모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근거자료가 공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자료가 없다거나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오고 있다. 그래서 일부 부정사례만을 부풀려 정치공세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이번 대통령실 발표는 정부의 감사 결과일 뿐 최종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정부의 감사결과를 해당 단체가 수용하거나 소송 후 확정판결시 사실이 확정된다. 확정되지 않은 감사결과만을 근거로 마치 확정된 사실로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sup>1)</sup> 사회적 신뢰를 중요시하는 민간단체에게는 심각한 명예훼손이기 때문이다. 과거 경험을 통해 볼 때 정부가 지적한 1,856개 사업 중에는 정당하게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오(誤)입출금과 같은 작은 행정실수인 경우도 많고, 감사비 지급대상 및 금액 등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행정과의 해석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례들도 적지 않다. 이를 일괄적으로 부정사용이나 부패 단체로 단정할 수 없다. 실제 정의기억연대 사건에서도 보조금 부정사용 등 관련 8건의 고소·고발이 있었으나 1심에서 대부분 무죄로 판결되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의 감사결과나 대통령실과 여당의 비판이 신중해야 하는 이유이다.

끝으로 민간단체보조금 이슈로 소모적이고 비이성적인 공세는 중단되어야 한다. 사회적 비판을 위해서는 주의나 주장보다 명확한 논리나 근거가 필요하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지적하는 이권카르텔이나 시민단체 선진화 주장은 비판이 아닌 비난에 가깝다. 시민단체를 옥죄기 위한 정치적 공격이라는 인식을 지울 수 없다. 생산적인 공론화와 문제해결에서 한참 벗어났다. 오히려 불필요한 불신을 조장하거나 사회갈등 유발로 적지 않은 사회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대화와 토론,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 민간단체보조금 문제 바로잡기

우선 민간단체보조금 감사결과 자료 공개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개적 토론 및 논의기구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의 감사결과 자료 공개 없이 문제의 본질과 실체에 접근하기 어렵다. 정치적 공방만 오갈 가능성이 크다. 민간단체보조금 부정사용 여부, 유형과 원인 등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진단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언급한 42건만이 아니라 1,856건 전체에 대한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 이는 신뢰에 기반한 문제해결의 시작이 될 것이다. 아울러 정부와 여야, 시민단체가 모이는 공개적인 토론회나 논의기구가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이 지금과 같이 언론을 통한 일방적 공세나 보수단체만의 편협한 대화 틀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정치적 행보라는 비판만 커질 것이다. 지금이라도 열린 공론의 장을 만들어 허심탄회하고 치열한 토론으로 민간단체보조금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둘째, 보조금과 시민사회 정책에 대한 재검정이 필요하다. 2000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민간단체보

조금이 확대되었으나 이 당시 보조금은 시민단체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보조금은 단순히 시민단체 사업지원금 성격이 아니라 정부가 해결해야 할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공익활동(마을 만들기,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NPO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공동협력(파트너)기금 성격으로 변모하였다. 보조금에 대한 성격과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사회에 상존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한 전통적 인식은 정치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민간단체보조금 이슈를 계기로 보조금 정책방향에 대한 새로운 합의와 대안이 필요하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민간단체보조금 갈등 이면에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와 역할에 대한 인식 차이가 깊게 자리 잡고 있다. 1섹터로서의 국가(공공)와 2섹터로서의 시장(경제)과 달리 3섹터로서의 사회문제 해결 주체로서의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인식과 여전히 국가와 시장의 역할만을 강조하는 인식의 차이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전통적인 입장에서 주창형 시민단체를 시민사회 전체로 인식하고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종대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고, 이것이 시민사회 정책갈등을 키우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한국 시민사회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3섹터로서의 시민사회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근본적 논의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당장은 민간단체보조금을 둘러싼 이슈와 갈등을 공론화하고 해결하는 논의장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제3섹터로서의 시민사회에 대한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논의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갈등과 논란을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하느냐에 따라 한국 시민사회의 성숙과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를 기대하는 것이 지나친 욕심 아니길 희망한다. 

1) 통일문화연합은 8월 7일(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조금 6,260만 원 수령, 감사비 과다 지출, 윤석열정권 퇴진운동 강의'한 단체로 지목한 대통령실 발표가 허위사실 - 보조금 6,260만 원이 아닌 1,500만원 수령, 감사료는 21만원이 아닌 28만원 지급, 퇴진강의 없었음 등 - 임을 밝히고, 대통령실을 '허위사실 명예훼손,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소 하였음. 아울러 언론중재위원회에 30개 언론사 대상 정정·반론보도를 청구하여 일부 언론에서는 보도내용이 정정된 상황임.

#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신규핵발전소 건설 반대 안전하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자

## | 변인희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 신한울 3, 4호기로도 모자라, 다시 예고된 신규 건설 계획

지난 7월 산업부는 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이전 보다 조속히 수립할 것을 발표하면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검토할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27일 열린 첫 회의에서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마련된 기존 신재생 워킹그룹을 원자력 발전 등을 포함하는 무탄소전원 워킹그룹으로 개편해 운영하겠다'고 밝히며 재생에너지를 지우고 핵발전 확대를 위한 초석을 다시금 다지고 있다.

정부는 작년 '원전최강국' 건설을 선언한 후, '탈원전 폐기'과 제에 따라 출범 직후부터 불행히도 착실하고 저돌적으로 핵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신규 건설은 그 간 백지화되었던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과정을 밟아왔다.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축소해 줄속으로 진행하고, 실시계획 승인기간을 평균 대비 11개월이나 축소한 것이다. 지난 6월 부지정지공사에 돌입하며 이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 허가만 남았다.

우리나라는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1위, 부지별 핵발전소 밀집도와 국토면적당 설비용량은 물론 핵발전소 주변 인구수도 가장 높다. 작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신한울 1호기와 같이 앞으로 건설될 핵발전소 운전허가기간은 60년. 핵발전소가 지어질수록 우리나라는 탈핵에서 멀어지고, 처분할 수 없는 핵폐기물은 쌓여간다.

###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

신규 건설에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할지는 고민스러운 문제다. 그래서 반대해야 하는 이유를 찾고 그에 따라 대응해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4가지 이유를 꼽아본다. 먼저 지

역갈등과 불평등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5개 부지에 30기 핵발전소가 몰려있다. 새로운 부지선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이후 방사능 피폭 피해 사례들이 알려지고, 당시 새롭게 계획된 신규 건설을 주민들이 막아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핵발전소 찬반으로 인해 지역공동체가 붕괴되고 오랜 갈등으로 지역사회가 분열되었다. 신규 건설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낳게 된다.

새 부지가 없으니 핵발전소는 기존 지역에 계속 지어졌고, 경기 침체 문제도 발생한다. 농수산물 판매나 관광 산업이 쉽지 않고, 특히 주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며 쉽게 매매가 되지 않는다. 이에 정부는 핵발전소 유치 시 경제적 지원금을 제공하고, 핵발전소 건설로 지역 경제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 하지만 2004년 고창군 보고서에서 밝혔듯 건설 과정에서 유입된 인구와 경제 효과는 건설이 완료된 후 빠져나간다. 지역 경제가 핵발전이 매이고, 핵발전을 유지하는 악순환에서, 이러한 구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핵폐기물 문제이다. 핵발전소에서 발생한 모든 것은 핵폐기물이 된다. 특히 좁고 인구가 밀집된 국내에 10만 년 이상 격리 보관해야 할 고준위핵폐기물 부지는 과연 찾을 수나 있을지 의문스럽다. 핵폐기물을 처분할 수도 없으면서 미래에 더 많은 짐을 떠넘기고 있다. 또한 현재 사용후 핵연료가 부지 내 밀집해 저장되어 사고 위험이 높다. 라우전쟁에서처럼 휴전국인 우리나라에서 핵발전은 언제든 무기가 되어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여전히 수습은 요원하고 오염수마저 바다에 버리려는 참

담한 현실을 목격하고 있다. 핵사고는 돌이킬 수 없으며 일상을 파괴한다. 일반 핵발전소도 상시적으로 방사능이 배출되고, 주민들은 피폭된다. 이미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갑상선암을 비롯한 갑상선질환을 앓고 있다. 삼중수소가 새나오는 경주 월성 핵발전소 주민 대다수가 최근 삼중수소에 피폭되었음이 밝혀졌다. 신규 건설은 더 많은 주민을 위협에 내몰 것이다.

지속불가능하단 건 찾아지는 기후재난에도 마찬가지다. 해안가에 자리한 핵발전소는 기후위기 시대의 해수면 상승, 태풍, 홍수 등에 취약하다. 그런데 작년 올진 산불 역시 핵발전소를 위협하며 대정전 위기에 직면했다. 대용량 핵발전소가 갑자기 전력 공급이 안될 때, 이를 메울 발전원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핵연료를 냉각시켜야만 하는 사고와는 또 다른 문제였다. 게다가 핵발전소보다 주민 안전이 후순위가 되며, 주민들은 신한울 3, 4호기 설명회에서 강력히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핵사고는 그 무엇보다 파괴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며, 위험은 떠넘기는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은 발전원이다.


네 번째는 기후위기 시대, 제대로 된 기후위기 대응을 방해한다. 세계적인 흐름은 재생에너지 확대이다. 중국은 올해 신규 핵발전소 설비 규모 목표가 2.89GW인 반면, 태양광은 120-140GW공급으로 상향 조정했다. 프랑스 역시 2035년까지 핵발전 비중을 50%로 줄이고, EU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42.5%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오로지 핵발전 확대에 놓았다. 핵발전과 재생에너지를 조화롭게 믹스해야 한다며 10차 전기본에서 2030 NDC 목표에 비해 핵발전을 늘리고, 재생에너지는 줄이고, 석탄발전은 그대로 유지한 바 있다.

그러나 현 정부가 강조하는 핵발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는 불가능하리라는 관측이 다수이다. 재생에너지와 핵발전 모두 실시간으로 발전량을 조절하기 어려운 경직성 전원이라 재생에너지 비중 약 20% 이상부터는 핵발전의 발전량을 줄여야 한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가 늘며 원전의 출력감발 빈도가 증가해 정상적 원전 가동이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앞으로 고민해야 할 것은

올해 초 삼척에서 원전백지화기념탑을 처음 봤다. 긴 시간 동안 주민들이 고통과 상처 속에서 싸워오셨는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주민들의 힘으로 삼척을 지켜냈다는 것에 놀랍고 든든했다. 최근 한 대회에서도 우리는 이미 승리 경험 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 주민의 힘으로 삼척, 영덕 등 일방적인 신규건설 계획을 백지화시켰고 핵폐기장 부지 선정 역시 수차례 막아냈다는, 현재 운동 지역 이외는 승리한 역사라는 이야기다. 쏟아지는 핵발전 확대 정책에 앞서, 이미 이런 역사들에서 안전한 미래의 방향을 모색해볼 수 있겠다.

에너지경제연구원원의 주요국 탈원전정책의 결정과정과 정책시사점 분석'에 따르면 탈원전국가와 일본 등 총 5개국을 비교했을 때 탈핵의 가장 큰 요건은 '반원전 여론 조성'과 '정부 결정' 2가지다. 여론은 이후 정책 결정에 기반이 되고, 정책이 지속되는 가장 큰 동력이 된다. 독일처럼 탈핵 법안이 통과와 폐기를 반복할 경우도 있었다. 핵발전 확대 정책이 계속되는 때, 투쟁 외에도 흩어져 있는 잠재적 탈핵 지지자들을 찾고 함께 반원전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IPCC 6차 보고서 역시 탄소감축 잠재력이 가장 높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으로 핵발전이 아닌 '풍력'과 '태양광'을 꼽고 있다. 핵발전은 감축 잠재력과 비용 대비 효과 모두 재생에너지보다 훨씬 낮다. 거꾸로 가는 한국 정부 앞에서 끊임없이 신규 핵발전 건설 계획을 반대하고, 제대로 된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해야 한다. 그럼에도 작년 개정된 K-택스 노미에서 핵발전이 녹색경제활동으로 포함되면서, 신규건설을 인정하는 기준 중 하나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세부계획과 법률 제정'이 생겼다. 현재 세부계획은 존재하며 특별법안은 발의된 상태다. 핵발전이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받지 않도록 관련된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전히 핵발전소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생명들이 존재하고, 핵발전은 위험하고 결코 정의롭지 못한 에너지원이라는 사실, 그래서 안전하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우리의 요구는 계속될 것이다. 

# 남녀동등한 참여 Parity 그리고 민주주의

## 남녀 간 균형 있는 책임 분배에 관하여

### 김은경

(사)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정책위원장, 세종리더십개발원장

#### 헌/법을 '고치다'

1982년 11월 18일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정치적 대표성을 실천하는 규정과 원칙은 남녀간의 어떠한 구분도 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른바 할당제 위한 결정이었다. 그리고 15년 7개월 후, 1998년 6월 18일, 프랑스 정부는 문제가 된 헌법 제3조를 고치기 위한 헌법개정안을 제출한다. 상하 양원을 오가며 치열한 토론을 벌인 프랑스 의회는<sup>1)</sup> 21세기를 눈앞에 둔 1999년 7월 8일, 민주주의에 관한 새로운 원칙을 수립한다.

1999년 7월 8일 남녀평등관련 헌법 99-569호

- 1958년 10월 4일 제정 헌법 제3조에 다음의 항을 추가한다.  
<법률은 선출직의 남녀 평등한 진출을 촉진한다.>
- 동 헌법 제4조에 다음의 항을 추가한다.  
<정당 및 정치조직은 제3조의 마지막 항에 언급된 원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한다.>

파리, 1999년 7월 8일  
공화국 대통령 자크 시락  
수상 리오넬 조스팽  
고용연대부 장관 마르틴 오브리  
법무부 장관 엘리자베스 기구  
여성권리 및 직업훈련부 차관 니콜 페리

본 조항은 두 가지 분명한 목표가 있다. 상징적인 의미와 더불어, 인구가 지닌 절대적인 양성성(兩性性)을 헌법에 명

시하는 것 그리고 주권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다. '조용한 혁명'으로 평가받는 프랑스의 동수 헌법 개정은 이후 유럽은 물론 중남미<sup>2)</sup>, 아프리카, 아랍, 아시아 등 전 지구적인 차원의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를 향한 여정으로 이어져 나갔다.

2011년 10월 튀니지는 '후보자는 남녀동수에 근거하여 입후보 신청을 해야 하고, 명부는 남성과 여성이 번갈아가면서 작성되어야 한다. 이 원칙을 따르지 않는 명단은 해당 선거구의 의석수가 홀수일 경우에만 인정한다'는 동수공천을 입법화 했고(선거법 제16조), 이를 헌법 (제46조) '국가는 다양한 책임을 지고 남녀간의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제거를 보장해야 한다'에 도 명시하였다. 일본 참의원은 2018년 「정치분야에서의 남녀공통참여추진에 관한 법률」을 만장일치로 제정,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수를 가능한 한 남녀가 균등하게 되도록 공천할 것」을 정당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3년 3월 4일 스페인의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전국, 지방, 지방자치단체 유럽선거의 정당 후보자를 여성과 남성을 동수로 공천할 뿐만 아니라 내각의 구성에 있어서도 한 성이 전체 내각의 최소 40%를 차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동등 대표성 법안(Equal Representation Law)을 발표했다.<sup>3)</sup>

대한민국 역시 2017년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국가의 선출직·임명직 공직 진출에서의 남녀의 동등

한 참여 촉진 의무 및 직업적·사회적 지위에 대한 남녀의 동등한 참여 기회 보장 의무'를 명시하는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다. 선출직을 포함한 공직에서의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평등권적 사항으로 모든 정부정책 및 법제정, 법적용 및 해석에 있어 동등참여를 보장하고 직업적·사회적 책임의 동등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였다.<sup>4)</sup>

현행	<p>第32條 ④女子의 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雇傭 賃金 및 勤勞條件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p> <p>第34條 ③國家는 女子의 福祉와 權益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第36條 ①婚姻과 家族生活은 개인의 尊嚴과 兩性의 平等을 기초로 成立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國家는 이를 보장한다.</p> <p>②國家는 母性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조문 시간	<p>제15조 ①국가는 고용, 노동, 복지, 재정 등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보장한다</p> <p>②국가는 선출직·임명직 공직 진출에 있어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촉진하고, 직업적·사회적 지위에 동등하게 접근할 기회를 보장한다.</p> <p>③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p> <p>④국가는 자녀의 출산·양육을 지원하여야 한다.</p>

#### Parity, 민주주의에 관한 '효과적이고도 다른' 원칙

현재 한국의 여성정치는 수적인 열세와 지체 그리고 이로 인한 산적한 과제 사이에서 표류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최소 조건으로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목소리가 들려야 한다는 점과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고려할 때 2023년 현재 남녀 8대 19의 권력나누기는 민주적 가치 측면에서 상당한 수준의 왜곡과 비민주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남성에게 집중된 현재의 정치권력은 경제 분야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흡사하여 경제적 행위자들이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돈을 투자하는 것처럼 더 큰 권력을 위해 지금의 권력을 투자하며 현직에 있는 (남성)의원들의 권력 우위를 강화해 나간다.

현재의 권력이 미래의 권력을 획득하는 이른바 정치세계의 마태효과는 여성을 비롯한 정치 신인들의 정치 진입을 오랜 기간 동안 구조적으로 차단시켜 왔다.

기회 구조에 대한 접근이 차별적이고 불평등할 경우 가능한 최선의 대안은 '정치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균등한 기회를 확장하고 민주적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정치적 권위'에 의한 규제를 늘리는 일 이외에 어떤 효과적인 방법이 가능할까. 그렇기에 남성보다는 여성이 정치적 권한이 필요한 이유이고 정치 권력을 가진 여성들이 남성과는 다른 차원의 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이유이다.<sup>5)</sup> 남녀간 권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 모두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 권력구조 및 의사결정에 여성의 평등한 접근과 완전한 참여(1995 유엔 '북경선언·행동강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 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양성평등기본법), 성별 대표성 확보와 남녀동수 지향(국민의힘), 성평등 민주주의 구현(더불어민주당) 등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가. 왜 이러한 규정들은 현실이 아닌 단지 규정으로만 남아있을까?

실비안느 아가젠스키(S. Agazinski)의 지적대로, 여성당선자들이 거의 없는 작금의 상황은 민주주의의 실패와는 무관하다. 민주주의의 고전적 개념에 담기지 않았던 여성당선자의 비율 규정을 요구하지 않았을 뿐이다. 남녀동등한 참여 parity의 개념만이 이 분배의 요구를 포함한다. 이런 이유로 남녀동등한 참여 parity는 '민주주의의 실천과 원칙에 관한 완전히 새롭고 독창적인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욱 중요한 사실은, 남녀동등한 참여 parity가 의사결정과정의 남녀 50:50의 대표성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남성만큼 능력을 갖춘 여성들이 책임 있는 자리에서 권력을 행사하는데 방해가 되는 노동의 조건, 역할분담, 성차별적 고정관념 그리고 모든 구조적 장애물 전반에 관한 질문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진정한 평등과 완전한 민주주의 구현의 행위 주체인 주권자, 여성시민의 책임과 역할을 생각하게 한다. 🏆

1) 재적의원 831명, 유효투표 783표, 의결정족수 470표(유효투표의 3/5이상), 찬성 741표, 반대 42표로 통과. 김은경 「프랑스의 남녀평등한 정치참여를 위한 헌법 및 선거법 개정에 관한 연구」.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 2000. 12.  
2) 멕시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의 8개 국가  
3) 김은주 「세계동수민주주의 현황과 우리의 과제」, 헌정회 여성위원회 토론회. 2023. 7. 12.

4)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 2018. 1. pp61-64. 5) 김은경, 「여성의원의 의정활동, 수와 질의 문제」. 젠더리뷰. 2016 봄호.

# 디지털 헬스케어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되어야

## | 안정희

(사)한국YWCA연합회 부장

코로나19 팬데믹은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 디지털 헬스케어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 시기,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 시점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비대면 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5개가 국회에 상정되어 논의 중이다. 또한 2022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의료 마이데이터, 의료기관 임상데이터, 공공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정책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도 발의된 상태다. 그리고 지난달 새로운 의료기술 분야인 디지털 치료기기, 인공지능(AI) 영상진단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임시등제 제도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마치고 건강보험 제도권 체계 내에 진입했다.

### 디지털 치료기기·인공지능(AI) 건강보험 임시등제

디지털 치료기기관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관리·치료하기 위해 근거 기반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치료기기(Software as a Medical Device)로 주로 정신·만성 질환에 인지행동치료를 이용한 프로그램이다. 인공지능(AI) 의료기기는 의료용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여 질병을 진단 또는 관리하거나 예측하여 의료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의료기기이다. 뇌 MRI 분석을 통한 신경퇴행성 파킨슨 증 여부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폐 CT영상을 분석하여 폐암의 유무 또는 폐암의 진행 상태를 자동 진단하는 소프트웨

어 등 다양한 질환에서 '영상 진단보조'로 활용된다.

현재 우리나라 식약처 허가 디지털 의료기기 제품 122개 중 진단보조가 120개로 98% 차지하며, 그중 영상 진단보조가 91개이다. 2023년 2월 불면증 증상 개선 목적의 Somzz가 국내 최초의 디지털 치료기기로 허가 된 것을 포함해서 현재 1개의 디지털 치료기기, 2개의 인공지능이 '혁신의료기술'로 고시되었다. 우리나라처럼 건강보험 제도를 시행하는 독일, 영국, 일본에서도 디지털치료기기가 건강보험에 적용되어 운영되고 있다. 디지털치료기기, 인공지능(AI)이 건강보험 급여제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통합심사·평가를 거쳐 혁신의료기술로 지정되어야 한다.

현 정부는 2022년 10월 인공지능(AI), 디지털 혁신의료기기에 대해 '통합심사 평가 제도를 마련했다. 이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기술, 디지털 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혁신의료기기가 의료 현장에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혁신의료기술 지정, 요양급여 대상·비급여 대상 여부 확인, 혁신의료기술 평가 등 개별적이고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절차를 지정 과정에서 유관 기관이 동시에 통합하여 심사 평가함으로써 혁신의료기기 신청부터 의료현장 진입까지의 기간을 기존 390일에서 80일로 대폭 축소한 제도이다. 또한, 디지털의료기기 전문평가위원회를 신설하여 디지털치료기기의 임시등제를 위한 평가 단계에서 혁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에 대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여여부 및 등재가격을 결정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디지털 치료기기는 모바일앱을 이용해 환자가 직접 인지행동치료 등을 수행해야 하고, 인공지능 의료기기도 현장에



서 의사의 진단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므로 아직 치료 효과에 대한 유효성을 증명할 만한 데이터는 부족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번 임시등제제도 근거 창출을 위해 우선 코드를 부여하고,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 90%로 최소한으로 적용하여 3년간의 모니터링 기간을 거친 후 정식 급여 여부를 결정하하도록 하였다.

### 의료소비자 운동의 역할과 방향

지금까지 주로 금번 디지털치료기기와 AI 건강보험 임시등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봐왔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의료 분야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우리 삶의 질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앞으로 의료소비자 운동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 질 것이다. 한국YWCA연합회는 의료연대체, 소협, 보건의료 관련 정책위원회에 참여하며 의료소비자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대체로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디지털 헬스케어의 이러한 발전의 전제가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자칫 '시장'과 '산업'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 감시와 개입이 필요하다.

둘째,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는 효과적인 규제와 안전성 검증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신중한 절차와 투명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셋째, 기술개발과 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이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적절한 가격 책정 과정을 감시하고, 국가 예산지원을 요구해야 한다.

넷째, 환자의 건강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예방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되지만 의료 데이터는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적절하게 보호하고 무단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소비자의 개인 정보와 건강 데이터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전이 혁신적인 의료 기술과 디지털 솔루션을 활용하여 환자들의 편의와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을 개선하여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며,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가 되도록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 

# 범죄도시

## | 대학·청년YWCA

2023년 7월 18일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목숨을 끊은 '서이초 사건'이 일어났다. 2023년 7월 21일에는 신림역 칼부림 사태가 일어났다. 최근 계속되는 죽음과 관련된 이슈. 그와 관련된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인터넷상의 콘텐츠들로 인해 간접적인 피해자도 발생하고 있다. 이번 청년토크에서는 7월 한달 간 있었던 죽음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다.

### 묻지마 살인 예고

**샬리** : 요즘 세상이 너무 흥흥해. 신림동 칼부림 사건을 시작으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온라인상에 살인예고 글들이 계속 올라와.

**요나** :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

**멜랑** : 더 충격적인 건 이 사건을 놀이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야.

**요나** : 맞아. 살인예고를 장난처럼 올리는 무분별한 콘텐츠가 사회적 혼란을 주고 있어.

**멜랑** : 일상의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어나는 범죄라서 더 두려워.

**샬리** : 지하철, 백화점, 기차역, 심지어 길을 걸을 때조차도 흠칫 놀라는 일이 많아졌어. 일상생활 하기가 무서워.

**요나** : 아무 죄가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비상식적인 범죄가 왜 유행처럼 번질까?

**멜랑** : 요즘에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야. 경쟁사회가 심해지면서 남들과 비교하며 살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SNS를 통해서 보여지는 나와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런 심리들을 더 심하게 만드는 것 같아.

**샬리** : 비슷한 사건을 자꾸 언론에 노출하는 것도 문제야. 알고리즘 때문에 계속 비슷한 내용의 자극적인 영상과 글을 보게 되면서 내면의 작은 분노가 더 커지게 되고, 극단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

**멜랑** : 요즘 청년들이 심리적으로 취약하다 보니 극단적인 소셜미디어들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 같아.

### 학교폭력은 학생만 당하는 게 아니다

**요나** : 칼부림 사건 말고도 서이초 사건 등 교권 추락, 갑질 논란 등에 대한 문제도 심각해.

**멜랑** : 사실 나는 올해 임용시험에 합격해서 9월부터 초등학교로 출근하기 시작하는데 첫 출근에 대한 기대감이 두려움으로 바뀌었어.

**샬리** : 녹음기, CCTV로 선생님과 아이들을 감시하는 부모가 많다고 하잖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요나** : 아이들을 교육하고 교정하는 일을 하는 선생님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훈육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데 그걸 학대라고 못하게 하니 선생님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지는 것 같아.

**멜랑** : 서이초 사건에 많은 교사들이 공감하고, 추모했던 건 그게 내 이야기일 수도 있었기 때문이야.

**요나** : 교직에 없는 사람들도 많이 분노했어. 우리 모두 교사라는 존재를 살면서 한명 이상 만났기 때문에 교사가 아닌 사람들도 이 사건에 크게 분노했던 것 같아.

**샬리** : 많은 교사들이 교권 추락의 원인을 아동학대방지법 때문이라고 한대. 아동학대 범죄를 막기 위해서 생긴 법이 오히려 교사의 교권을 상실시키는 거지.

**멜랑** : 아이들을 위해 생긴 법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통해 약용된다니 너무 속상하다.

**요나** : 학교와 교육청이 교사들을 보호해주지 못한 것도 있어. 갑질 피해가 자신에게 올까봐 전체의 문제를 개인의 탓



으로 돌려.

**샬리** : 그래. 교육에 중심에 교사가 있다고 하지만 교사들은 사실 교권은 물론이고 인권이나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거지.

### 나의 분노를 너에게

**멜랑** : 묻지마 살인, 갑질뿐만 아니라 말도 안되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잖아. 도대체 무슨 이익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걸까?

**샬리** : 칼부림 사건은 세상의 관심을 받기 위한 허세인 것 같아.

**요나** : 나만 당할 수 없다는 그런 심보가 아닐까? 개인의 일을 불특정 다수에게 푸는 거지.

**멜랑** :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 민감한 콘텐츠를 걸러야 해. 사람들은 민감한 콘텐츠에 끌리기 마련이야. 한 번 클릭했던 영상이 알고리즘을 타고 점점 더 극단적인 콘텐츠로 우리를 몰고 가.

**요나** : 나는 그래서 자극적인 콘텐츠가 뜨면 일부러 안눌러. 계속 그런 내용이 뜰까봐. 편리하다고만 생각했던 알고리즘이 점점 무섭다니깐.

**샬리** : 목소리도 듣는 것 같아. 특히나 자아 성장이 덜 된 청소년들에게는 알고리즘이 더 위험해.

**요나** : 알고리즘을 통해 걸러지지 않은 콘텐츠를 접하면서 아이들이 극단적으로 변해가.

**멜랑** : 이제 우리는 신문이나 뉴스같이 걸러진 정보를 얻기 어려워. 소셜미디어 속에서 누가 올린 건지, 사실인지도 모르는 정보들에 계속 공격받아.

### 우리사회를 어떤 사람으로 채울 것인가?

**샬리** : 갑질은 사회적인 책임감 문제이기도 해. 사회란 나만 잘 살고, 내 가족만 잘 사는 게 아닌데 말이야.

**요나** : 법도 한쪽의 인권, 권리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있게 만들어가야 돼.

**멜랑** : 우리나라는 가해자 인권을 너무 지켜줘. 얼굴 공개도 하지 않고.

**요나** : 나는 이번 사건들을 보면서 정신질환 대응에 대해서도 한번 더 생각해본 것 같아. 묻지마 사건 범죄자들의 다수가 피해망상이나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이잖아.

**멜랑** : 맞아. 이제 우리나라도 정신병원에 방문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줄었잖아. 정신질환을 방치하지 말고 청소년기부터 조기에 관리할 필요가 있어.

**요나** : 금쪽상담소 같은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잖아. 미디어가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노출시켜서 정신질환이 숨겨야 할 병이 아니라 하루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

**샬리** : 우리 사회에 대한 공통의 책임감을 길러야지. 나만 잘 살려고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살기 위한 책임의식을 어린 시절부터 길러야 해.

**요나** : 사회가 만들어낸 잣대로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도 조심해야 해.

**멜랑** : 결국 우리 사회를 회복시키는 건 주변 사람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는 분위기인 것 같아.

**요나** : 나부터 먼저 나의 기준에 맞춰서 배척했던 사람이 없었는지 생각해봐야겠다.

# “전쟁 위기를 넘어, 적대를 멈추고 지금, 평화로!”

글·편집실

한국전쟁 정전 70년인 올해, 유례 없는 전쟁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Korea Peace Appeal)’은 7월 22일(토) 오후 4시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대회와 행진 : 전쟁 위기를 넘어, 적대를 멈추고 지금, 평화로!’를 개최했다. 한국YWCA도 주최단체로 함께했다.

한국YWCA는 원영희 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총 100여 명의 활동가가 행사에 참여했다. 연합회 및 16개 지역 YWCA 활동가들이 서울광장과 광화문에서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광주, 군산, 남양주, 대전, 부천, 서울, 성남, 세종, 속초, 수원, 안산, 안양, 의정부, 천안, 청주, 파주YWCA).

평화행진은 오후 4시부터 서울광장 동편에서 광화문 앞까지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대회 구호가 적힌 현수막과 평화의 물결을 상징하는 파란 천을 들고 행진했다. 평화를 염원하는 구호도 함께 외쳤다. “적대를 멈추고, 지금 평화로!”, “전쟁을 끝내고, 지금 평화로!”, “70년이면 충분하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으로 대화의 문을 열자”,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한다”, “End the Korean War”

오후 5시가 되자 행진 행렬이 모두 광화문에 도착했다. 풍물팀과 레즈피스타(타악)가 공연으로 평화대회가 시작됐음을 알렸다. 곧이어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공동대표 4인의 개회사가 이어졌다.

“분단과 전쟁 체제 하에서는 주권도, 민주주의도, 생존권도 제대로 실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전과 체제 완화를 말하면 ‘반국가세력’으로 매도당하는 시대에 서 있습니다. 평화를 향한 시민의 행동이 더욱 절실합니다. ‘힘에 의한

평화’, ‘상대방을 말살시키고야 말겠다’는 혐오와 적대에 맞서 함께 행동합시다.”

원영희(한국YWCA연합회) 회장을 비롯 이홍정(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과 윤정숙(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양경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평화행동 공동대표로 함께하고 있다.

한반도평화대회는 한영에 밴드가 부르는 ‘여보세요와 조울’ 등으로 분위기가 한껏 끌어올랐다. 대회 참가자들은 동아시아 평화 구축과 이를 위한 시민행동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국내의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정치인들의 발언에 더욱더 힘찬 연대의 목소리를 보냈다. 후지모토 야스나리(일본 포럼 평화·인권·환경) 대표, 요시오카 타츠야(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GPPAC) 공동의장, 윤희숙(진보당) 당대표, 배진교(정의당) 원내대표,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마이크를 잡았다.

‘한반도 전쟁반대! 평화실현!’을 염원하는 시민합창단의 목소리가 뒤이어 광화문 광장을 울렸다. 이들의 소리는 단연 행사의 하이라이트였다. “적대를 멈추고 남북·북미 관계를 개선하자!” 14명의 사회 각계각층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결의문을 낭독하며 행사의 마무리를 알렸다. 활동가들은 결의문을 통해 6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와 세계를 만들자”  
 “제재와 군사 위협이 아닌 대화와 협력으로 갈등을 해결하자”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한반도와 아시아를 만들자”

“군비 경쟁과 파괴의 악순환을 끊고 사람과 지구를 살리는 데 힘을 모으자”

결의문 낭독에는 강세봄(진보대학생넷) 전국대표, 한충목(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진영중(참여연대) 공동대표, 딸기(제주 강정마을 주민, 평화바람) 활동가, 강석윤(한국노총) 상

임부위원장, 박형선 교무(원불교 시민사회네트워크) 대표, 김경민(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양옥희(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이태형(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 박혜경(동일의병) 광주전라본부장, 박지인(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사무처) 활동가, 이장희(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상임대표, 최혜경(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정책위원, 한미경(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등이 참여했다. 

## “영광에서 탈핵을 외치다”를 다녀와서

| 김민경  
(사)광주YWCA 간사


YWCA 활동가로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캠페인을 비롯한 탈핵활동에 동참하던 중 영광에서 진행되는 2023년 탈핵활동가대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프로그램은 그동안 YWCA에서 해온 어떤 탈핵활동들보다 더 심도 있는 내용으로 활동가들과의 연대를 다지게 했다. 첫날인 29일에는 영광 핵발전소를 견학한 후 기자회견을 하였다. 기자회견은 영광 핵발전소 ‘한빛 1, 2호기 수명연장 반대’를 위해 전국의 탈핵 연대 활동가들이 핵발전소 앞에서 “위험한 핵발전소 중단이 답이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진행되었다. 교육 장소인 원불교 영산성지에서는 기후위기와 오염수, 탈핵운동에 관해 에너지정의행동 이현석 정책위원의 기조 강연과 핵발전소 수명 연장의 문제점과 과제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다.

우리나라 핵발전소 상황은 고리2호기를 시작으로 고리와 영광 등 핵발전소 수명 연장이 줄지어 추진되고 있다. 고준위 핵폐기물 특별법은 작년부터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현재 소강 상태이고 언제 법이 통과될지 모르는 상태다. 전국적으로 탈핵 이슈가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정부의 일관적

인 원전 최강국 건설 전략은 계속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현안은 현재의 오염수 국면과 다소 동떨어져있다. 오염수 문제는 일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며, 오랫동안 만들어져 온 ‘탈원전 논쟁’과도 맞물려 있다. 오염수 문제는 결국 우리들의 먹거리 문제이고,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문제이며, 결국 탈핵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다. 현재 이미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이 연대들을 통해 수차례 집회와 반대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오염수 문제에 대해 탈핵 진영이 적극적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이를 계기로 전국 각지의 시민사회단체, 모임, 정당 등을 재조직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강의 내용이었다. 마지막 순서로 영광, 고창, 울산 각 지역 현장 활동가 3명이 탈핵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는 순서가 진행됐다.

두 번째 날 아침 일찍부터 주제별 릴레이 마당이 진행되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국의 활동가들이 조별로 토론했다.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었고 각자의 삶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주된 화두였다.

이번 2023년 탈핵활동가대회는 놀라운 경험이었다. 이전까지 탈핵에 관해 알은 지식과 경험으로만 활동을 해왔으나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다시 탈핵의 중요성과 현재 상황의 긴급성을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각자의 역할과 관점을 존중하면서 함께 탈핵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경험은 정말로 소중한 의미였다. 



## “핵발전이 문제다!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하고 탈핵으로!”

| 글·편집실

한국YWCA연합회와 12개 회원YWCA 활동가 80여 명은 8월 12일(토) 오후 4시 서울시청 삼거리에서 열린 ‘8.12 오염수 해양투기 전국행동 사전집회’와 오후 6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된 ‘윤석열 정부 규탄,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8.12 전국행동’에 참여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문제의 본질은 ‘핵발전’이며 기후위기 시대에 핵은 대안이 아님을 밝히고, 정부의 핵 진흥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적극 저지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는 한국YWCA가 연대하고 있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탈핵시민행동’을 비롯해 ‘기후정의동맹’, ‘한국환경회의’ 등 기후·탈핵·환경단체 연대체가 주최했다.

이번 집회는 일본정부가 2년 반 전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겠다고 자체 결정하고 올해 4월초 후쿠시마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방류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고 방류계획 철회와 윤석열정부에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요청하며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 5.20 전국행동의 날 이후 같은 날 오후 6시 7차 공동행동의 사전집회다.

한국YWCA는 80여 명의 실무활동가들이 집회에 참여했다. 연합회와 12곳의 회원YWCA(광양, 광주, 군산, 대전, 목포, 수원, 순천, 여수, 원주, 익산, 인천, 전주YWCA)가 서울시청광장과 광화문 광장에서 탈핵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전집회의 사회는 유에스더 한국YWCA연합회 활동가와 변인희 녹색연합 활동가가 공동으로 맡았고, 각계 발언이 이어졌다. 기후·탈핵·환경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오염수도, 핵 위험도, 기후위기 대응도 결국 탈핵이 답”임을 분명히 했다. 성명서는 김광일(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과 김경림(투쟁 베네딕도 수도회) 수녀, 박미경(환경운동연합) 공동대




표가 낭독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이미 우리에게 핵발전이 얼마나 위험하고 부정한 에너지인지 경고하고 있다. 핵사고로 수많은 피폭자가 발생했고, 오염된 토양과 마을 도처에 퍼진 방사능,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존재한다.”

“기후위기 시대, 핵산업계와 한일 정부는 핵발전이 탈탄소 대응 수단이라고도 선전한다. 그러나 핵발전은 폭발과 산불, 태풍 등 찾아지는 기후재난에 잠재적 핵 위험을 증가시킨다.”

“한일 양국정부와 핵산업계는 핵참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온갖 위기를 핑계로 대대적인 핵 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핵발전은 하는 한 방사능 피폭을 피할 수 없고, 처분할 곳 없는 핵폐기물은 늘어난다. 이 끝없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정부의 무책임한 핵 폭주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며, 안전을 위한 탈핵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한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한국YWCA 회원과 기후·탈핵·환경단체 500여 명의 시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하고, 어떤 형태의 핵발전이든 중단하고 ‘탈핵’하는 것이 이 시대 인류와 자연이 살 길임을 천명했다. 

# 기후위기, 우리 Y-틴의 위기!

## | 이해

(사)한국YWCA연합회 간사

8월 15일(화), 16일(수) 1박 2일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Y-틴 연대망을 형성하고 '운동의 주체'로서의 Y-틴 정체성을 다지는 '2023 Y-틴 전국회원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2023년 Y-틴 중점운동 주제인 '기후와 인권'을 중심으로 '기후위기! 우리의 위기!'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다. 모두 18개 회원YWCA에서 온 청소년 46명이 이번 대회에 참여했다(남원, 논산, 대전, 마산, 목포, 부산, 서울, 수원, 순천, 안산, 여수, 울산, 원주, 인천, 전주, 청주, 충주, 통영YWCA).

이번 대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Y-틴 청소년들의 기획, 진행 아래 운영됐다. 전체 사회는 신민서(전국협의회) 총무가 맡았다. 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여는 예배'에서 전하늘(북부지역) 회장은 '여성 시편93'편 말씀으로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희망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메시지로 전달했고, 신소율(북부지역) 총무는 대표 기도를 했다. 이어진 레크레이션 시간 '아이스 브레이킹'에서는 김여진(동부지역) 회장, 홍정희(동부지역) 총무가 진행을 맡았다. Y-틴은 '오프라인 갈actic', '어목조동' 등

의 게임을 통해 1박 2일을 함께할 회원들을 알아갈 수 있었다.

이후 운영된 기후강연은 '기후 운동을 누가, 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세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강연자인 김민선(전국협의회) 회장은 여성과 청소년이 주도해 운동을 진행하는 연대체로서의 YWCA를 소개하며, 'Y-틴이 곧 YWCA의 운동을 이끄는 주역'임을 강조했다. 두 번째 강연은 이은우(중부지역) 회장이 준비했으며, 자신이 기후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개인적 사례를 공유하며, 기후위기가 청소년, 더 나아가 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위협에 빠트리게 됨을 전달했다. 세 번째 강연은 강지수(서부지역) 총무가 진행했다. 강지수 총무는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를 이성적으로 이야기해왔음을 짚으며, 이제는 새로운 방법, 감정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기후강연은 단순히 강연만 이어진 것이 아니라 퀴즈와 설문도 함께 진행하도록 구성해 참석자들이 강의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했다.

강연 후 Y-틴은 4부 지역별로 모여 2023년도 하반기 운동

을 직접 기획하는 시간(기후 대회)을 가졌다. Y-틴은 '기BTI(기후+MBTI 합성어)', '기후위기 옥외광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전하는 기후위기 온라인 캠페인' 등의 다양한 기획을 세웠다. 이중 서부지역에서 제안한 '기BTI' 기후행동이 가장 많은 Y-틴들이 참여하고 싶은 운동으로 선정됐다. 기후 강연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친목을 다지는 레크레이션이 진행됐다. 강지수(서부지역) 총무와 김환희(전주YWCA Y-틴)가 '기후, 몸으로 말해요', 'Y-틴 퀴즈 온 더 블럭' 등의 게임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Y-틴은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회원들의 2023년 활동 보고는 둘째 날(16일)에 Y-틴들의 발표를 통해 진행됐다. 이어 진행된 제2차 전국협의회에서는 첫째 날(15일) 기후대회에서 제안된 기획들이 안건으로 상정됐고, Y-틴은 회의를 통해 대회 발표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된 온

라인(SNS)과 오프라인(기자회견) 홍보 방식으로 'Y-틴 기후성명'을 발표하고, 923 기후정의행진 시에 '기BTI'를 활용한 부스를 운영하기로 결의했다. 모든 협의 과정이 마무리 되고, 신민서(전국협의회) 총무가 진행하는 '소감 나눔' 시간이 이어졌다. 대회의 폐회를 알리는 '닫는 예배'는 이은우(중부지역) 회장의 인도, 김예은(서부지역) 회장의 특송 '이 시간 너의 맘속에'로 마무리됐다. Y-틴은 2023년 Y-틴 전국회원대회를 통해 상반기 활동을 돌아보며, 하반기 운동 또한 새롭게 기획함으로써 Y-틴의 주체성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바르게 세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한편, Y-틴 기후강연과 2023년 활동보고는 Y-틴 SNS (instagram@yteen1992)와 한국YWCA연합회 유튜브를 통해 공유될 예정이다. 📺

## 기후 운동을 하는 이유

이은우 Y-틴 중부지역 회장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Y-틴 중부지역 회장을 맡은 대전YWCA 이은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후운동을 왜 하시나요? 오 늘은 저의 개인적인 관점에서 제가 '왜' 기후 운동에 관심을 갖고 기후 운동을 하려고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제가 기후운동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그것이 곧 저의 생활과 연관된 일임을 깨달 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예전에는 북극곰을 위해, 후손을 위해,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는 더 이상 북극곰과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 아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저의 목숨이 걸린 일이고 앞으로 저에게 닥칠 일입니다.

확실히 초등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보다 요즘 더 기후위기, 그로 인한 재난, 재해에 대한 뉴스를 더 많이 접하는 것 같습니다. 매년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여름철 기온, 가뭄, 기록적인 폭우, 태풍 등의 문제는 훨씬 심해지고, 강해지고,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더웠던 2018 년도 여름 기억하시죠? 작년 8월, 한반도 기상관측 역사상 가장 많은 비가 내려 지하철역들이 잠긴 모습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번 연도 전 세계 곳곳에서는 높은 온도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고, 이란

페르시아만은 기온이 65도로 체감온도가 66.7도에 달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후폭력을 지금 당장 느끼고 있고, 이 상황은 하루하루 더 커 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이번 여름 어땠나요? 작년은 어땠고요?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하다고 이야기 할 수 있나요? 여러분도 느끼고 있지 않나요? 중요한 것은 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고 행 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이것은 곧 우리 의 생존,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기후 위기가 나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기후위기가 우리 엄마에게, 친구 에게, 내 동생에게 피해를 준다는 말과 같은 것이니깐요.

여러분들도 저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나마 관심을 갖고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못다 한 이야기들이 많아 아쉽지만 저의 글을 읽고 한 분 이라도 기후에 관심을 가진다면 저의 이야기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 우리의 위기"라는 이번 전국대회 슬로건처럼 기후위기는 나의 위기, 우리가 곧 사랑하는 존재들의 위기이며, 우리는 '혼자' 가 아닌 '우리'이기에 희망이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 해봅시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천YWCA 대학·청년Y에서 함께 우리와 세상의 더 나은 미래를 꿈꾸어 갑시다.”

## | 박지인

(사)부천YWCA 대학·청년YWCA협의회 회장

### (사)부천YWCA 대학·청년YWCA 협의회를 창립하다

2023년 8월 19일(토), (사)부천YWCA 대학·청년YWCA협의회가 첫 시작을 열었다. 한국 YWCA가 창립되고 101년이 지난 시점에 새롭게 (사)부천YWCA 대학·청년YWCA협의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무척이나 뜻깊다. 101년 전인 1922년 김활란, 유각경, 김필례를 시작으로 한국의 젊은 여성들은 YWCA에 모여 정의와 평화 그리고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꿈꾸어왔고,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일들을 이루어내며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왔다. 한국 YWCA의 역사는, 우리에게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계속해서 변화를 꿈꾸고 주장한다면 결국 우리가 그리는 세상의 모습으로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YWCA 선배들의 뜻을 이어 이제는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결정할 차례다. 우리 청년들은 정의와 평화 그리고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바란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아직 혐오와 차별, 전쟁, 빈곤, 무한 경쟁, 단절, 무분별한 개발 그리고 기후 위기가 존재한다. 그 많은 삶의 실제적인 문제가 우리가 꿈꾸는 삶의 여정으로 가는 발목을 잡고 있다.

2023년 8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은 정의와 평화 그리고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그런 세상을 꿈꾸며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현실로 만들어내고자 (사)부천YWCA 대학·청년YWCA 협의회에 모였다.

(사)부천YWCA 대학·청년YWCA협의회는 청년, 여성, 기독교인 그리고 세상의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에 관심 있

는 청년 누구에게나 열려 있을 것이다. (사)부천YWCA 대학·청년YWCA협의회에서 청년들은 우리와 세상의 더 나은 10년, 30년, 50년, 100년 후를 함께 꿈꾸어 나아간다. 그 얼마나 가슴벅찬 일인가.

### 창립 준비는 이렇게!

정의와 평화 그리고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바라며 스무 명의 부천 청년들이(사)부천YWCA에 함께 모였다. 19일에는 13명의 정회원들이 함께했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온 한국 YWCA 선배들의 역사는 우리 청년들에게 많은 용기와 영감을 주었다.

YWCA 선배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 것처럼 우리 회원들도 우리의 대학·청년YWCA가 청년, 여성, 기독교인 그리고 세상의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함께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만들어가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

(사)부천YWCA 대학·청년YWCA협의회는 지난 6월부터 유해환경단 감시단 등 부천YWCA 활동과 연결되었던 대학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창립준비위원회를 꾸렸다. (사)부천YWCA 대학·청년YWCA협의회 설립취지문과 정관을 만들고 사업 프로젝트를 계획했다. 마침내, 2023년 8월19일 (사)부천YWCA 대학·청년YWCA협의회가 창립된 것이다. 청년들의 열정과 꿈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 (사)부천YWCA와 대학·청년YWCA협의회 창립까지 수고해 주신 우리 회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① 박지인 (사)부천YWCA 대학·청년YWCA회원(회장 후보)이 총회사를 하다.  
 ② 부천YWCA가 설립 취지문을 낭독하고, 채택을 논의하다.  
 ③ 박지인 회장이 (사)부천YWCA 대학·청년YWCA의 사업 프로젝트를 발표하다.  
 ④ 양기훈 서기가 회의록을 낭독하고, 채택을 논의하다.  
 ⑤ 창립총회가 끝나고 총회 참석자 전원이 함께 모여 사진을 찍다.  
 ⑥⑦ (사)부천YWCA 대학 청년Y가 평화 포럼을 주최하고 김대식 <합석헌 평화연구소> 공동소장을 강연자로 초빙하여, 강연을 듣고 대화를 나눈다.

(사)부천YWCA와 대학·청년YWCA협의회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한, YWCA가 이제껏 걸어온 모든 과정 가운데에 언제나 함께 하셨듯이 우리 (사)부천YWCA 대학·청년YWCA협의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리는 창립 총회날이었다.

### 앞으로의 계획

(사)부천YWCA 대학·청년YWCA 협의회에서는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정의와 평화 그리고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꿈꾸고 만들어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다. 이를 위해 청년 역량 강화와 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운동, 인권과 평등을 위한 성 평등 운동,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운동, 평화의식 확산과 종전을 위한 평화운

동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연대를 위한 지역 운동이 이라는 다섯 가지 주력 운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다섯 가지의 주력 운동 아래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진행할 것이다.

우선 9월 16일(토)에는 오늘 제1회 평화포럼에 이어 제2회 평화포럼을 개최하게 된다. 평화포럼은 평화를 바라지만, 정작 평화에 대해서는 막막하게 느끼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 평화에 대한 인식을 구체화하고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개최하는 활동이다. 제2회 평화포럼에서는 박주화 인지과학 박사이자 통일연구원을 강연자로 초빙해 한 개인의 심리에 있어 평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분단이 우리에게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에 대해 강연자의 강연을 듣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 한·일YWCA '동아시아 생명과 평화' 논하다

글·편집실



“동아시아 평화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연대를 강화해나가겠다.” 제11회 한일YWCA협의회가 나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동아시아 생명과 평화’를 주제로 한 이번 협의회에서 한국과 일본의 YWCA는 양국의 평화운동과 탈핵 활동 등을 공유한 뒤 연대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등 협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을 결의했다. 원영희 한국YWCA 연합회 회장과 후지타니 사토코(藤谷佐斗子) 일본YWCA 회장을 포함한 총 25명의 양국 활동가들이(한국YWCA 활동가 15명, 일본YWCA 활동가 10명) 이번 협의회에 참가했다.

제11회 한일YWCA협의회는 7월 7일-10일 나흘간 강원도 철원군 국경선평화학교와 서울 중구 소재의 한국YWCA연합회

에서 진행됐다. 한국 정부가 ‘힘을 통한 평화 구축’을 주장하고 일본 정부가 평화 헌법 개헌 의지를 거듭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평화와 안보를 위한 활동, 해양투기 초읽기에 들어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개회사에서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회장은 “한국과 일본의 정부는 YWCA 운동과 배치되며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며 협의회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및 동아시아 안보와 평화라는 첨예한 이슈를 논의하고 우리의 행동을 결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후지타니 사토코 일본YWCA 회장도 “우리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핵무기 및 원자력

에너지가 없는 세상을 위한 평화에 대한 연대와 행동을 약속해왔다”며 “평화의 관점에서 여성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연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YWCA, 여성 대표성 강화된 평화통일운동 강조

### 일본YWCA, ‘역사적 과오 되풀이 않게 평화헌법 지킬 것’

협의회는 두 개의 주제 세션으로 진행됐다. 주제 세션 ‘전쟁과 평화’는 7월 7일 철원에서, 주제 세션 ‘생명과 평화’는 7월 9일 서울에서 열렸다.

‘전쟁과 평화’ 세션에서 첫 발제를 맡은 정지석 국경선평화학교 대표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시민사회의 역할’을 이야기했다. 정지석 대표는 발제를 통해 ▲시민평화운동계획 수립 및 실천 ▲평화교육운동 ▲평화메시지 운동 ▲시민평화문화캠페인 ▲국제시민연대 운동(동아시아 시민평화회의의 정례회) 등 다섯 가지 평화운동을 제안했다. 전쟁의 원인을 사전에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국제 회의, 문화운동, 교육운동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양국의 정세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화 운동가들은 낙관적 시각을 통해 비전을 향해 활동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히구치 사야카 일본YWCA 부회장은 일본 평화헌법을 지키기 위한 일본YWCA의 활동을 소개했다. 히구치 사야카 부회장은 “평화헌법은 무력행사 금지,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정 등 전세계인이 평화 가운데 생존할 권리를 이야기한다”며 “세계에 자랑할만한 평화의 규범이자 보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일본YWCA는 전쟁의 위험성과 평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근현대사 학습회’를 운영하고 핵을 부정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히로시마를 생각하는 여행’을 50여 년 동안 운영 중이고, 원폭 때 태어난 사람이 20살이 될 때까지 7,300일을 지원하는 ‘com7300’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센터YWCA는 평화헌법의 중요성을 시민들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게 ‘헌법 카페’도 마련한 바 있다. 히구치 사야카 부회장은 “일본 시민들이 동아시아와 일본 역사의 진실을 배우고 두 번 다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평화 헌법을 지키겠다는 결의를



## 소통·교류 통한 배움의 즐거움

이예림 대학·청년YWCA 기획국장

7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3박 4일간 한일YWCA 협의회에 다녀왔다. 한일YWCA청소년협의회에는 온·오프라인으로 2번 참가한 적이 있다. 하지만 성인 자원활동가와 실무활동가가 참여하는 협의회 참석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제대로 쉬이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과 일본YWCA의 실무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을 설명이 교차했다. 인터넷과 영상매체만을 통해 쌓아온 나의 일본어로 일본 활동가들과 제대로 소통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됐다. 하지만 걱정과 달리 대화를 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통역사본은 물론이고 일본 측에도 한국어가 가능한 참가자가 있어 어렵지 않게 소통할 수 있었다. 협의회 첫날, 일본 측 참가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한국YWCA와 일본YWCA의 구조와 각국의 청년 회원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게 됐다. 서울 명동에 위치한 한국YWCA연합회에서 양국 활동가들이 집합해 일본YWCA의 부회장을 만나게 됐다. 한국 참가자들은 일본 부회장의 나이가 젊어 신기해했다. 한국은 연합회에 청년 부회장이 따로 있지만, 일본은 임원 출마에 나이 제한이 없었기에 젊은 나이의 부회장이 나올 수 있었다. 또한, 한국YWCA의 청년들은 지역 YWCA나 센터에 소속돼 활동하는 반면 일본YWCA는 대학교의 동아리처럼 활동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에서 YWCA의 임원들과 청년 간의 격차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었다. 한국 YWCA의 청년들은 임원들을 접할 기회가 적기에 이들을 어려워하는 느낌을 은연중에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일본 YWCA는 지역마다 그 격차가 다르다고 답했다. 청년과 시니어의 벽이 없는 지역도 있고 벽이 높은 지역도 있다고 했다. 둘째 날 방문한 철원 국경선평화학교와 비무장지대는 그저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지금의 청년들은 통일을 아직은 먼 이야기라 생각하고, 통일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나 또한 YWCA의 중점 운동 중 하나가 평화통일임에도 그것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거나 깨달아본 적은 없다. 하지만 둘째 날의 견학은 어떠한 설명 없이 그 장소에 서 있지만 했음에도 많은 생각에 빠지게 했다. 전쟁이 있었으며, 분단이 되었고, 그 상황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견학 현장의 공기가 살에 닿는 것만으로도 그대로 느껴졌다.

셋째 날 이루어진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한 강의는 3박 4일의 일정 중 가장 인상 깊었다. 내 또래의 청년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좋지 못하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그것이 왜 안 좋은지, 다른 방안은 없는지, 우리가 어떤 피해를 받게 되는지 등의 내용은 잘 알지 못했다. 강연을 통해 다른 안전한 방안이 많았음에도 그것이 고려조차 되지 않았음에 분노했고, 오염수 해양투기를 지지하는 일본과 한국 정부에 크게 실망했다. 강연을 듣기 전, 마지막 날 개최될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막막해하고 있었는데, 강연을 들은 후에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할 이야기를 줄여야 했다. (\*이예림 기획국장은 7월 10일 개최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 한일YWCA 공동 기자회견’에 발언자로 나섰다.) 이번 한일YWCA협의회는 청소년 협의회와는 분위기가 달랐지만, 불편하거나 힘들었던 부분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우고 일본 측의 활동가들과 대화도 잘 통해서 편안함을 느꼈다. 다음에 이루어질 한일YWCA청소년협의회도 이번 협의회처럼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기회로 배운 것을 응용해 알차게 기획하고 싶다. 다음에도 한일YWCA협의회에 참가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꺼이 참가하고자 한다.

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최수산나 한국YWCA연합회 시민운동국 국장은 ‘WPS(여성·안보·평화) 그리고 한국YWCA 평화통일운동에 대해 이야기했다. 최수산나 국장은 여성의 경험에 기인하고 여성의 대표성이 강화된 평화통일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분단이라는 특수한 한반도 상황에서 여성, 어린이, 노인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배제하는 군사적 문화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고, 전쟁과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은 폭력과 약탈의 대상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최수산나 국장은 한국YWCA가 ▲사회 통합 ▲남북 교류 협력 ▲글로벌 연대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있음을 밝혔다. 한민족여성대회(1994), 길 위의 평화학교(2013), 한국YWCA 100주년 기념 국제여성평화 포럼(2022), 정전 70년 한반도 여성 평화를 논하다(2023), 2023 세계YWCA 결의문 작성 등 한국YWCA가 40여년간 진행한 다수의 평화통일 운동이 소개됐다.

###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일본 정부의 프로파간다로 일본 시민들 심각성 인지 어려워

세션2 ‘생명과 평화’에서는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공동대표가 발제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점과 대응’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김혜정 대표는 “일본 정부는 원전 폐로를 30년 내에 끝내겠다고 하지만 언제 끝이 날지 알 수 없다. 전문가들은 10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측하며, 일본원자력학회는 300년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염수 해양방류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원전의 녹아내린 핵연료에 남아있는 스트론튬90, 플루토늄 등 오염수 방류계획으로 처리되는 것보다 1천배 이상 많은 고독성 방사성 핵종이 남아있기에 폐로 과정에서 더 독성이 강하고 많은 양의 오염수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김혜정 대표는 계속해서 “IAEA는 1,070개 오염수 탱크 중 도쿄전력이 단 3개 탱크에서 떠준 샘플 3건 분석을 통해 시료 채취와 대표 시료 방법론·분석방법이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3개 샘플 중에서도 보고서에 결과가 나온 건 1개에



① 고석정을 방문한 한·일YWCA 활동가들.  
② ‘전쟁과 평화’ 세션 후 방문한 철원평화전망대.  
③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 한·일YWCA 공동 기자회견 (사진제공: 국민일보)

불과하다. IAEA는 결국 1,070개 탱크에서 1개 탱크 결과를 놓고 적절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IAEA 사무총장이 한국에 와서 오염수를 마실 수 있고, 오염수에서 헤엄칠 수 있다고 발언하는 것에서 IAEA가 얼마나 정치적인

기관임을 보여준다”라고 질타했다.

일본YWCA 활동가들은 김혜정 대표의 발언 내용을 놓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심각한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심각한지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본은 언론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지 않는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에 관한) 여론조사에서도 찬반이 반반으로 나온다.” “후쿠시마산 식료품을 꺼려도 이를 압박으로 꺼내는 건 쉽지 않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후지타니 사토코 회장은 “이는 일본 정부가 핵발전 및 오염수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프로파간다(정치적 선전)를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 한·일YWCA “탈핵 위한 연대활동 지속할 것”

한국과 일본 YWCA 활동가들은 두 개의 세션을 마친 뒤 추후 양국의 연대 방향을 논의하는 협의세션 시간을 가졌다. 양국의 활동가들은 ▲핵발전 및 오염수에 관한 온라인 국제포럼 운영 ▲동아시아네트워크(청년 및 중장년) 구성 및 평화·생명에 관한 각국의 활동과 정보 교환 ▲(세계YWCA 창립기념일인) 4월 24일 세계YWCA평화행동의날로 지정 후 한·일 공동 평화행동과 캠페인 전개 ▲한·일 청년 평화교육과 관련한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등의 활동 계획을 수립했다. 한·일 YWCA는 추후 논의를 통해 이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일YWCA협의회 참가자들은 7월 10일(월) 오전 10시 30분 서울 명동성당 앞 계단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 한·일YWCA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것으로 협의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일YWCA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YWCA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함을 천명했다. 원영희 회장과 후지타니 사토코 회장은 공동성명서에서 “한국과 일본, 각자의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는 여성으로 핵 발전에 반대해온 한·일YWCA는 이러한 국가폭력에 저항하며 끝까지 목소리 낼 것을 결의한다. 핵발전의 피해로 고통 받는 여성, 어업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이들을 포함하여 오염수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될 청년들과 함께 한다. 핵의 위협을 알리고 핵 폐기 활동을 지속하며, 정의를 위한 연대를 계속해나갈 것이다.”고 결의했다.

## 참가후기

2

### 활동가인 나를 돌아보게 한 시간

고미연 (사)제주YWCA 회장

2023년 제11차 한·일YWCA협의회 참석은 자원활동가로서의 나를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고 앞으로의 나에게 도전을 주는 시간이었다. 일본YWCA는 코로나19 팬데믹, 불안정한 세계경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젊은 회원의 감소와 각 지역 YWCA 활동 축소,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 실현을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활동을 지속하고 있었다. 한국YWCA와 같은 상황의 터널을 일본Y 또한 지나가고 있었다. 일본YWCA는 평화헌법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일본헌법 제9조는 평화주의를 규정하며 전쟁을 영구히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교전권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헌법 제9조는 일본헌법을 평화헌법으로 불리게 하는 조항이다. 일본YWCA는 헌법 제9조를 지키기 위해 ‘근현대사 학습회’, ‘히로시마를 생각하는 여행’, ‘헌법카페’ 등을 운영했다. 헌법 9조를 의미하는 숫자 9모양의 쿠키를 일본 시민들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보고에서 확인한 일본YWCA의 강점은 활동이 다양한 장소와 다양한 시간대에 진행되며, 활동 기간 또한 중장기적이라는 것이다. 대면이 어려우면 온라인 화상회의로 활동을 꾸려가고,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히로시마를 생각하는 여행’처럼 50여년간 지속한 프로그램도 있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지역에 태어난 아이를 태어났을 때부터 20세가 될 때까지 지원하는 ‘com7300’도 운영 중이다. 이는 일본YWCA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러한 나의 생각은 일본 활동가들과의 대화를 통해 더욱 확신할 수 있었다.

**Q. 어떻게 YWCA활동을 하게 되었나?**  
YWCA에서 하고 있는 활동에 동참하고 싶어 찾아오게 됐다. 주위 사람들에게도 YWCA 활동에 동참하라고 권유해 이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  
**Q. 가족중에 YWCA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  
없다. 단지 YWCA에서 하는 활동이 좋아서 오게 됐다.  
**Q. 경제활동도 하면서 YWCA활동도 병행하는 것이 힘들지는 않은가?**  
직장과 YWCA가 거리가 멀어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괜찮다. 많은 사람들에게 YWCA활동을 알리고 사회가 변화해가는 모습에 힘이 난다.  
**Q. 일본 지역 YWCA들의 재정은 어떤가?**  
임대수익으로 여유로운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우리는 YWCA 운동을 열심히 한다. 우리가 열심히 운동할수록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YWCA 운동은 사람이 힘이다

일본 활동가와의 대화는 내가 어떤 활동가인지 생각해보게 했다. 활동 하나를 시작할 때 그 파급효과를 고민하다 시행 시기를 놓치기도 하고, 우선 활동 비용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비용과 효과 모두 중요하지만, 머리는 YWCA운동을 하면서도 정작 마음은 단혀 있는 나를 보게 됐다. 나도 저렇게 가슴이 뜨겁던 때가 있었을까. 오래전 기억이다. 하지만,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우리의 말들이 근로현장에서 동일노동으로 동일임금을 받는 그 날, 여성이 안전한 사회가 되는 그 날, 우리 모두가 성평등한 사회가 되는 그 날까지 가슴으로 YWCA운동을 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보존될 수 있도록 매 순간 기도하는 활동가가 되겠다.

# 각자 다른 모습이어도 정의·평화·생명의 가치 나누는 시간

| 조은지

(사)한국YWCA연합회 법인이사

탈핵재생에너지전환 벤치마킹을 위한 YWCA연합회 법인이 사연수회가 6월 23일(금)-7월 3일(월)동안 독일에서 진행되었다. 이 연수는 한국YWCA연합회 법인 이사로서 한국YWCA 중점운동을 이해하고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세대와 지역과 기관의 차이를 지닌 이사들 간의 역할을 이해하고 YWCA운동의 관점을 찾기 위해 기획되었다. 연수단은 8명의 연합회 이사(고미연, 박윤애, 서다미, 이은영, 정혜원, 조은영, 조은지, 함희경)와 후원회의 한영수 이사장과 배정미 실무활동가까지 총 10명이 다녀왔다. 방문했던 주요 기관들을 짧게 담아본다.

## 독일협동조합 라이파이젠협회 DGRV

독일은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경제의 중추이며 독일 각 지역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 환경, 에너지 및 물 부분을 중심으로 지역 마케팅, 소매, 건강, 서비스, 농업, 주택 등 다양한 부분별로 협동조합이 만들어져 활동 중이다. 그 중 DGRV(Deutscher Genossenschafts Raiffeisenverband e. v.)는 협동조합들의 중앙 연락 창구로, 회계 및 감사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담당한다. 전문기관들에 대한 회원의 이익을 대변하기도 하며 통일된 표준을 개발하고 협동조합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협동조합이 어떻게 설립되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협동조합의 핵심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당사자의 입장이 담겨있으며, 같은 아픔을 공유한 사람들이 성공한 경험들을 가지고 경제적 가치와 공동체의 가치를 함께 가지고 간다는 것이다.

## 여성협동조합 바이버비르츠사프트 WeiberWirtschaft eG

여성협동조합 바이버비르츠사프트 WeiberWirtschaft eG

(WeiberWirtschaft, Women's Economy)는 유럽 최대 여성 창업자 및 기업가를 위한 센터이다. 1980년대 서베를린의 여성 운동은 창업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한 기회를 우려하여 여성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설립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모든 여성이 공동 결정권을 갖는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적은 돈을 조금씩 모아 큰돈을 만들었고, 그 돈으로 여성 창업자와 기업가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장을 구해 60개 이상의 여성 소유 기업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건물 안에는 탁아소, 회의실, 작업실, 레스토랑 등 여성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여성들이 더욱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다. 또한, 건물 내 상업 공간을 스타트업과 여성 프로젝트, 여성 기업가에 임대하여 경제활동도 함께 고려한다. 이곳에서 베를린의 여성들은 창업과 비즈니스 경영에 관한 조언과 정보, 다양한 네트워킹의 기회를 찾고 있다. 현재까지 1,750명 이상의 여성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고무적인 아이디어에 동참했으며, 매년 더 많은 여성이 참여하고 있다.

## 코리아협의회

한반도의 역사, 정치, 사회, 문화에 관심있는 모든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동시에 함께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한독 시민단체다. 1990년에 발족되어 활발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인권 및 시민운동을 주요하게 다뤄 경제, 언론, 정치, 노동단체, 종교, 환경, 여성운동, 예술과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독일 및 유럽 내 국제적인 범위의 비정부기구와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적인 공존을 위한 과거 청산과 가족,



1 베를린장벽에서 단체 사진 2 유스게스트하우스 센트럴 스테이션 운영에 대해 설명되고 있다. 3 DGRV방문 4 한반도평화기원 자전거 투어



성/젠더 역할 변화와 사회 구성원의 관계 등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인 주제와 관련된 전문 회의, 세미나, 국제 심포지엄을 기획하고 진행한다.

또한, 한반도 관련 주제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학술회, 워크숍, 토론회를 주최하고 일본군 위안부,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의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워킹 그룹을 통한 연대와 사업들을 추진한다.

## 『베를린베를린』 저자 이은정 교수와의 만남

이은정 교수는 베를린자유대 한국학과 교수이다. 2001년 창고 같은 건물에 있는 조그마한 학과에서 시작된 한국학과는 2005년 학부생을 뽑는 정식학과가 됐고, 2008년 석·박사 과정이 만들어졌으며, 2012년 독일 정부의 엘리트 대학원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돼 동아시아대학원을 설립했다. 현재 베를린자유대의 한국학 전공자는 학부생 330~350명, 석사과정 40명, 박사 과정 12명 등 350명에 달한다. 지원자들은 최대 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오며 졸업생들은 베를린시 정부나 외무부, 언론사, 국회 등에 포진되어 있으며 특히 기업회사와 같은 기업들에 많이 가게 된다고 한다.

한국학의 연구대상은 남북한을 아우르기 때문에 한국

학 전공자들은 시작부터 남북한을 함께 공부한다. 그리하여 2018년에는 베를린자유대 한국학과에는 남북 학생들이 함께 모여 공부하는 화합의 장이 되기도 했다. 이은정 교수는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에 관해 이야기해 주었으며 북한, 남한 할 것 없이 하나가 되어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주었다.

## 연수를 다녀오며

이사들에게 가장 크게 다가온 것은 '공동체'라는 키워드였다. 독일의 협동조합들을 보고 느낀 점은 회원들이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을 만들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곳에서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하며 무엇인가를 이루어 나가는 '자치'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또한, 회원들의 봉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도 함께 생각하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경제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 연수는 여러 세대가 함께한 YWCA에서의 첫번째 연수였다. 참가자들은 여러 세대가 함께해서 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시차 적응이나 체력적인 한계들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입장에서 앞으로의 YWCA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었다.

## 아름다운 것들을 본 죄 다큐멘터리 영화 <수라>

| 이윤숙

에코페미니즘연구소 달과나무 연구위원

### 생태학살이 벌어진 땅 위의 잼버리대회

올여름 유례없는 폭염 속에 전세계로부터 걱정과 우려, 비난을 몰고 왔던 잼버리대회가 치러진 곳은 단군 이래 최대 간척사업이며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를 자랑하는 새만금 간척지였다. 바닷물을 막고 갯벌을 매립하여 만든 염토 습지에서 잼버리를 치르면서 몇몇 참가국들이 철수를 결정하고 급기야는 중단되는 사태에 이른 것은 어처구니없는 준비 부족과 아직 밝혀지지 않는 비리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정작 새만금 잼버리는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낸다는 그 자체의 목적보다, 물막이 공사를 한 지 17여 년이나 되었는데 방조제 안쪽이 시화호처럼 썩고 매립지는 미완성 상태로 예산도 없고 사업 지속 명분도 열어져가는 위기를 잼버리를 핑계로 매립을 계속하고 종국에는 새만금공항을 짓겠다는 개발주의자들의 음침한 꿈수가 있다. 바로 그 사실을 황윤 감독이 만든 이 다큐멘터리 영화 <수라>를 보면 여실히 알 수 있다.

백합조개, 흰발농게를 비롯해 도요새, 검은머리갈매기 등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명들이 살아숨쉬던 생명들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간척사업으로 처참히 죽어나간 곳, 하지만 여전히 바닷물이 들어와 다시 생명의 터전이 되길 기다리는 땅, 여기 새만금은 실패한 잼버리 대회로 기억되기보다, 아름다운 못생명들이 그 길진 생명을 다시 이어가는 기적의 생태 터전으로 기억되길 바라고 있다.

잼버리 대원들은 물도 제대로 빠지지 않는 황량한 새만금 대회장이 세계적으로 귀중한 갯벌 생태계의 보고였다는 것을 알았을까? 엄청난 생태 학살이 일어난 그 땅 밑에 아직도 생명의 바닷물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이 끈질기게 버티고 있다는 걸 조금이라도 느꼈을까?

### 아름다움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 영화의 제목이 된 '수라'는 비단에 놓아진 아름다운 자수라는 뜻을 가진 새만금의 마지막 갯벌이고 연안습지로서, 50종 이상의 법정보호종을 비롯한 수많은 생명들이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 근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서천갯벌과는 하나의 생태권역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이곳도 곧 새만금 공항 건설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황윤 감독은, 2003년에 신부님과 스님들이 새만금 간척사업에 저항하며 전북 부안군에서 서울까지 3보 1배를 하는 모습과, 하루아침에 조개를 잡아 생계를 잇던 삶의 터전을 빼앗긴 부안 어민들의 투쟁을 기록했다. 하지만 여성 어민 류기화 씨가 예고 없이 열린 방조제 문으로 들어온 바닷물에 휩쓸려 세상을 떠나면서 다큐멘터리 작업을 포기했다. 하지만 어떤 인연으로 군산으로 이사 오게 된 그는 이제 다 끝난 줄만 알았던 새만금 갯벌을 여전히 찾아 그 터전의 변화의 그 생명들의 모습을 기록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바로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이 그들이다. 그 가운데 오동필 단장은 목수일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갯벌 생태계를 조사하는 데 온몸을 바치는 사람이다. 어렸을 때부터 아빠를 쫓아다니며 새를 관찰하고 갯벌의 생물들을 기록하던 아들 오승민 군은 이제 대학생이 되어 든직한 생태조사단의 활동가가 되었다. 황윤 감독은 "머리 위에서 도요새 10만 마리가 춤추던 모습을 잊을 수 없다"고 한 오동필 단장의 말을 들으면서 그 경이로운 순간이 얼마나 황홀했으며 그 모습을 더이상 볼 수 없는 상실감이 얼마나 클까 하는 생각에서 다큐멘터리 <수라>를 시작했다고 했다.

황 감독은 "<수라>는 새만금에 관한 영화가 아니라 사라져가는 아름다움,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기억하는 이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한다. 그랬다. 정말 이 영화 속에는 근근히 버티나가기만 계속되어가는 매립 속에 죽어나가고 사라지는 수많은 생명들이 위태로운 생명을 살아내면서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기억하고자 찾아다니고 또 기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

수문이 완공된 후 더 이상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는 갯벌에서 수많은 조개들이 떼죽음을 당한다. 말라가는 갯벌 흙 속에서 바닷물이 들어오길 기다리던 조개들은 하늘에서 내린 비가 바닷물인줄 알고 모두 바깥으로 나왔다가 담수를 맞아 죽고 만다. 갯벌 속에 살던 농게들도, 갯벌 생명들을 먹고 살던 그 수많은 종류의 새들도 다 말라 죽어간다.

그뿐이라. 매립으로 풍요로웠던 생계의 터전, 삶의 터전을 잃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공공근로를 하며 살아가는 새만금 어민은 아픔과 억울함 속에 울음을 터뜨린다. 내 머릿속에서 바다의 오염으로 더 이상 해산물을 잡지 못하고 영킨 스크루줄의 밧줄을 잘라주며 연명하는 부산 광안리 해녀들의 눈물도 오버랩 된다. 가슴이 묵직하게 아려온다.

### 아름다움을 본 사람은 포기할 수 없다

새만금 생태조사단 오동필 단장은 말한다. "여기 말라버린 땅도 언젠가 바닷물이 들어오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갯벌이라고 생각해요. 칠게 한 마리가 살아 있어도 그건 갯벌이예요. 갯벌이라는 이름을 놓지 않으면 언젠가 갯벌로 돌아갈 거예요".

모두 이제는 다 끝났다고 말하는 이 때 현장에서 생명들을 지켜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오동필 단장은 새만금공항 부지 갯벌 수라에서 다시 바닷물이 들어오길 끈질기게도 기다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흰발 농게를 찾아다니고, 그의 아들 오승민 군은 공항부지 수라갯벌에 수많은 멸종위기종이 살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정부보고서에서 고의로 누락당한 쇠검은머리썩새를 황윤감독과 함께 찾아다닌다.

모두 절망하여 그만 잊고 만 새만금 간척사업인데, 왜 이들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이곳이 다시 갯벌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는 것일까.

영화가 끝나갈 무렵 수라갯벌에서 도요새 무리들이 하늘을 나는 장관이 펼쳐지는 가운데 황윤 감독의 나레이션이 정하게 울려 퍼진다.

"동필 씨가 그랬지. 아름다움을 본 것도 죄냐고. 그럼 이제 나도 죄인이 된 걸까?"

이 영화를 본 사람들, 그리고 새만금의 생명들을 만나고 알아버린 사람들은 이제 죄인이다.

영화 엔딩 크레딧에 올라오는 백합, 흰발농게, 검은머리갈매기, 도요새 등은 여전히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못생명들의 그 아름다움을 본 것 때문에 그들의 고통을 알아버렸고 그래서 함께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품는 것은 벌을 받는 것처럼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정말 죄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저할지라도 기꺼이 죄인이 되어야 할 것만 같다.

이 영화를 볼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지만 시간을 내어 찾아볼 일이다. 우리 모두 아름다움을 본 죄인이 되자. 🌊

# 강북에선 영국 거장을, 강남에선 한국 괴짜를

국립중앙박물관 <영국 내셔널갤러리 명화전>, K현대미술관 <괴짜전>

## | 김민주

(사)한국YWCA연합회 전 홍보출판위원, 자유기고가

2023년의 8월, 매일같이 폭염주의보가 내리는 날에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다. 바로 미술 전시장이다.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거장의 시선 사람을 향하다 - 영국 내셔널갤러리 명화전>(2023.6.2~10.9)이, K현대미술관에서는 <Geeky Land(괴짜전) 2023>(2023.4.8~10.8)이 성황리에 열리고 있다.

### 르네상스부터 인상주의까지

#### 사람을 향한 거장의 시선을 담은 작품들

한국과 영국의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거장의 시선 사람을 향하다 - 영국 내셔널갤러리 명화전>은 영국 내셔널갤러리가 소장하고 있는 명화를 한국에 최초로 소개하는 자리다. 라파엘로, 티치아노, 카라바조, 푸생, 벨라스케스, 반다이크, 렘브란트, 고야, 터너, 컨스터블, 토머스 로렌스, 마네, 모네, 르누아르, 고갱, 반 고흐 등 서양 미술 거장들의 명화 52점을 전시한다. 그 외에도 르네상스 시대 회화부터 인상주의 시대 회화까지 유럽의 회화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

중세 시대, 예술은 신과 신화 중심이었다. 그러나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하면서, 예술은 신에서 인간으로 눈을 돌렸다. 미술도 마찬가지로었는데, 초상화나 자화상을 그리는 경우가 많았다. 1556~60년경 그려진 <여인>(루치아 아바니 아보가드로 백작부인 추정, 붉은 옷을 입은 여인)은 대표적인 작품 중의 하나다. 16세기 이탈리아 북부를 대표하는 초상화가인 조반니 바티스타 모로니의 작품으로, 그는 귀족들의 우아함을 표현한 전신 초상화를 그리는 것으로 유명했다.

북유럽 지역에서도 르네상스의 열풍은 마찬가지로였다. 안 호사르트가 1530~32년경 그린 것으로 전해지는 <어린 공주>(덴마크의 도로테아 추정)는 대표적인 북유럽의 르네상스 회

화 작품 중 하나다. 안 호사르트는 사실적인 초상화로 유명했고, <어린 공주> 또한 마찬가지로 사실적인 표현으로 마치 공주가 그림 속에서 튀어나올 것만 같은 느낌을 준다.

이처럼 예술이 빠르게 변화하던 시기, 교회도 그저 제자리에 머물고 있지않은 않았다. 특히 1517년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발표에서 시작된 종교개혁 이후 가톨릭 교회는 개혁과 변화의 길을 찾았고, 미술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했다. 그 결과 과거와는 달리 감성적이고 교화적인 그림이 많이 생산됐다. 특히 참회하는 마리아 막달레나는 17세기에 자주 그려진 주제였다.

시간이 흘러 유럽의 회화는 바로크 회화를 지향하게 된다. 이번 전시의 포스터나 리플렛에서 만날 수 있는 작품은 카라바조의 <도마뱀에게 물린 소년>이다. 이탈리아의 대표적 바로크 화가인 카라바조. 자연주의적이고 사실주의적인 그의 그림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가 그린 풍속화 겸 정물화인 이 작품은 짧은 감각적 쾌락 뒤에 숨어있는 예기치 않은 고통을 은유한 것이라고 해석되기도 한다.

이번 전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인상주의 서양미술 거장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빈센트 반 고흐다. <해바라기>, <별이 빛나는 밤> 등으로 잘 알려진 반 고흐의 <풀이 우거진 들판의 나비>를 이번 전시에서 만날 수 있다. 1890년 그려진 이 그림은 고흐가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렸다고 전해진다. 생명력 넘치는 색채와 빛의 흔적은 이런 고흐의 배경과 대비된다. 이외에도 고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고갱의 작품 <창문 앞 과일 그릇과 맥주잔>, 모네의 <붓꽃> 등이 전시되어 있다.

르네상스부터 시작해 바로크, 인상주의까지 다루고 있는



1



2

1 <괴짜전>의 포토존 괴짜전으로 들어가는 다양한 색상의 레드카펫이 전시회의 '괴짜성'을 나타내준다.  
2 이탈리아 바로크화가 카라바조의 <도마뱀에게 물린 소년>. 도마뱀에게 물린 소년이 금방이라도 액자에서 나올 것 같다.

<거장의 시선, 사람을 향하다> 전시는 유럽의 회화 역사를 꿰뚫고 있다. 미술 교과서에서만 보던 작품들이나 거장들의 이름을 실제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짧은 시간에 회화 역사를 살필 수 있는 요약본 같은 전시라고 할 수 있겠다.

### 괴짜, 이상한 사람? 특별한 사람! <Geeky Land(괴짜전)>

한편, 강 아래에서는 한국 현대 미술 작가의 미술 작품 1,050여 점을 볼 수 있는 전시도 열리고 있다. K현대미술관의 <Geeky Land(괴짜전) 2023>(2023.4.8~10.8)은 기획전시 <이상한 나라의 괴짜들:Geeky Land>, <이상한 나라의 괴짜들: Geek Zone>에 이어 5년 만에 돌아온 전시다. 현대에 오기 전까지 '괴짜'는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괴짜가 자기만의 개성을 가진 특별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현대 사회에서 '괴짜성'을 표현한 현재 미술은 더욱 빛난다. 이번 전시에서는 자신만의 괴짜성을 표현하는 국내 작가 80여 명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현대 미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비틀어 표현해 낸다. <괴짜전>에서도 이러한 작품을 종종 볼 수 있었는데, 김단비 작가의 작품이 대표적이었다. 김단비 작가는 화투의 비광을 활용해 그림을 그렸다. 김단비 작가는 '비광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절대자이지만 아무 것도 알지 못한다'면서 '강제적으로 주어진 한정된 것들에 의해 만들어져버린 우리들에게 질문

을 던진다고 말한다.

자연과의 관계를 고민하고 이에 대한 그림을 그린 작품도 눈에 띄었다. 급격한 기후 변화에 지구가 불타면서 'Global Warming'이 아닌 'Global Boiling'이라는 말이 더욱 잘 맞다는 말이 나오는 지금, 작가들은 자연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깊게 고민하고 있었다. 도심 속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숲을 캔버스에 표현해낸 정민희 작가의 작품과 다양성을 지닌 채 고정되지 않는 유동적인 자연의 모습을 그린 성운 작가의 그림이 그러했다.

대중적으로 익숙한 작가의 작품도 보였다. 많은 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로보트 태권V의 감독인 김청기는 조선시대에 불시착한 태권브이를 그렸다. 김청기 감독의 작가노트에 따르면 "로보트 태권브이를 보고 자란 아이들이 40,50대가 됐다. 어린 시절이 아득하다더군. (중략) 그래서 태권브이를 더 멀리 보내버리기로 했다. 조선시대"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번만 아니라 댄서로 잘 알려진 팝핀현준의 그림도 눈에 띄었다. 그는 이번 전시회에 십장생을 소재로 한 그림을 그렸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건강하고 만사형통하길 바랐다고 한다.

현대 미술의 특징 중 하나는 기존의 미술에 질문을 던진다는 것이다. 어디까지가 미술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아이패드에서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그림을 그린다면 그것은 미술일까 아닐까? 전우미 작가는 디저트의 사진을 토대로 앱을 활용해 실사에 가까운 그림을 그린다. 언뜻 보기에 사진인 듯 보이는 그림은 이것이 그림인가라는, 혹은 미술인가라는 의문을 관람객들에게 던진다.

제각기 가진 괴짜성을 드러낸 현대 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볼 수 있는 <Geeky Land(괴짜전)>. 현대 미술이 그렇듯 조금은 난해할 수도 있지만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만큼은 확실하다. 그 의미를 찾아 괴짜들의 세계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

##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투기 저지 한일YWCA공동성명서

우리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투기에 반대한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투기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방사성 오염수를 육상에 장기 보관하거나 고체화하여 보관하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바다는 일본만의 자원이 아니라 인류의 공공 자산이다. 따라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은 바다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에 대한 위협이다. 어민을 비롯한 한국과 일본의 국민들은 방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오염수 해양 투기가 이대로 진행되는 것은 핵발전 진흥을 위한 국가 폭력이다. 일본 정부는 주변국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를 촉구한다.

2011년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저렴하고 깨끗하다"는 원전 안전 신화를 무너뜨렸다. 일찍이 모든 핵에 반대하기로 결의하였던 일본YWCA는 후쿠시마 핵 사고 이후 현장 피폭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다. 한국YWCA 역시 한국이 핵발전소 밀집도 1위 국가이며 핵 사고로부터 전혀 안전하지 않은 국임을 인지하고 탈핵생명운동을 시작했다. 한국YWCA는 10만 명 회원 서명을 전개하여 오로지 시민의 힘으로 노후한 핵발전소 고리호기를 영구 정지시켰다. 한국과 일본 YWCA는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도 모두가 핵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생명을 일구고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왔다.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는 핵발전 진흥을 위한 국가 정책이 무책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노후원전의 수명 연장 절차가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신규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소형 모듈원전(SMR)과 같은 검증되지 않은 발전소 역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 또한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의 피폭이 확인되었고, 원전 지역 주민들의 갑상선 암 소송 제기에도 정부는 여전히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 일본 역시 후쿠시마 핵 사고 이후 멈춰있던 핵 발전소들을 재가동하고 있으며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준비하면서 후쿠시마의 제염토를 일본 전역에 흩뿌리고 있다. 또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부르며 원전 안전 신화를 다시금 복구하려 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각자의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는 여성으로 핵발전에 반대해온 한일YWCA는 이러한 국가폭력에 저항하며 끝까지 목소리 낼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핵발전의 피해로 고통받는 여성, 어업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이들을 포함하여 오염수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될 청년들과 함께 한다. 피폭자와 피해자에 곁에 서서 계속해서 지원하며, "핵"의 위협을 알리고 핵 폐기 활동을 지속한다. 우리는 핵에 반대하며 정의를 위한 연대를 계속해나갈 것이다.

2023년 7월 11일  
제 11회 한일YWCA협의회 참가자 일동

## 한반도평화대회 결의문

## 정전 70년 전쟁 위기를 넘어, 적대를 멈추고, 지금 평화로!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앞두고 우리는 오늘 여기에 모였다. 전국에서, 세계 곳곳에서 이 자리에 모여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손을 맞잡았다. 우리는 이 땅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갈수록 짙어져만 가는 전쟁의 먹구름, 버섯구름의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해 행진했다. 한반도로부터 아시아와 태평양, 그리고 전 세계에 새로운 평화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 목 놓아 함께 외쳤다.

1953년 7월 27일, 3년간 300만 명의 희생을 낳은 참혹한 전투의 포성은 멈추었지만 평화는 오지 않았다.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러던 정전협정의 목적조차도 이행되지 않았다. 언제든지 전쟁이 재개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 끝나지 않는 적대와 군사적 긴장이 한반도 주민들의 삶을 옥죄어 왔다.

70년이면 충분하지 않은가. 우리는 이제 이 적대와 전쟁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적대와 불신은 끝 모를 군비경쟁과 군사적 위협의 악순환만을 불러왔다. 우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것이다.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라.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 땅 한반도를 다시금 참혹한 전장으로 삼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전쟁은 문제 해결 수단이 될 수 없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의사를 묻지 않고 전쟁을 일으키거나 전쟁을 불사한다고 선언할 수 없다. 우리는 전쟁에 반대한다.

우리는 한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험도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한반도와 전 세계에서 핵무기는 사라져야 한다. 한국전쟁 당사국과 모든 관련국들은 핵무기와 다른 어떤 수단으로도 서로를 위협하지 않을 것, 전 세계에서 핵무기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협상이 멈춘 사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논의는 사라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핵에 기반한 새로운 동맹'을, 북한은 '핵무력의 고도화'를 주장한다. 주변국까지 합세하여 핵 군비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평화적 해결을 포기하지 않았다. 협상은 끝나지 않았다. 재개되어야 한다.

적대를 중단하고 신뢰를 회복하여 새로운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의 열쇠이다. 남·북·미 정상이 2018년에 합의한 것도 새로운 관계로의 전환이었다. 우리는 이 합의의 이행을 요구한다. 모든 당사국들은 이 합의를 실천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상응 조치에 관한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

제재와 압박은 해법이 아니다. 이 방법으로 상황이 개선되었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도리어 일방적 제재와 군사적 압박은 새로운 차원의 군사적 위기로 이어졌을 뿐이다.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한반도 핵 위기가 바로 그 증거이다. 모든 주민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제재는 완화되어야 마땅하다.

무력 시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공격적인 전쟁연습이다. 압도적인 핵 억지력과 선제공격 능력을 과시하면서 상대방에게만 총을 내리고 비핵화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억지다. 닫힌 대화의 문을 열고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서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멈춰야 한다.

북핵 위협에 대응한다는 구실로 한미일이 함께 전쟁을 준비하고 연습하며 다른 주변국과 대결하는 군사 연합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는 정전 상태의 불안정한 한반도를 지역 분쟁의 한가운데로 몰아넣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

특히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위해 과거 전쟁범죄에 눈감고, 핵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용인하며, 아시아 평화의 축인 일본 평화헌법 무력화에 동조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우리는 평화롭게 공존하며 협력하는 한반도와 아시아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다.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주장하고, 협상의 재개를 주장하는 것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붙이는 협박을 당장 멈춰라. 전쟁 불사에 동조하지 않으면 비국민으로 낙인찍으려는 폭력을 멈춰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의 목소리를 가두고 배제하려는 국가폭력과 혐오 선동을 중단하라.

평화를 주장하기 어려운 순간이 평화가 가장 절실한 순간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전쟁 위기가 일상화된 지금이야말로 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이 가장 필요한 시간이고 평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지금 당장! 전쟁 위기를 넘어 적대를 멈추고 평화의 길로 나아가자.

- ▶적대를 멈추고 남·북·북미 관계를 개선하자
-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 ▶핵무기도 핵위험도 없는 한반도와 세계를 만들자
- ▶제재와 군사 위협이 아닌 대화와 협력으로 갈등을 해결하자
-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한반도와 아시아를 만들자
- ▶군비 경쟁과 파괴의 악순환을 끊고 사람과 지구를 살리는 데 힘을 모으자

2023년 7월 22일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대회 참여자 일동

##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서 성별영향평가 지표 삭제는 퇴행이다! 행정안전부의 성평등 정책 퇴행 시도 규탄한다

행정안전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개발추진단'은 지난 3일 진행된 1차 본과회의에서 '성별영향평가 내실화 노력'이라는 성별영향평가 지표 삭제에 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모든 시도가 해당 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의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지난 3년간 모든 시도가 달성했다는 목표치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이다.

'성별영향평가 내실화 지표'는 평가 실시율과 평가결과 도출된 정책개선 이행률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기준 모두 충족했을 때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평가한다. 그런데 실시율은 기존 전체 단위사업수의 10%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올해(2023년) 실시율은 7%로 하향 조정되었고, 정책개선 이행을 목표치도 최대치가 24%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높게 설정해야 할 목표치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정하고는 '변별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상황인 것이다.

'성별영향평가 지표' 삭제 시도는 행정안전부 본인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성별영향평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성별영향평가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 성별영향평가의 본래 목적에 따르면 시행되는 모든 사업이 기준을 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했다는 이유로 지표를 삭제한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성인지예산제도를 주관하는 부처이다. 때문에 관련 지표가 삭제된다면, 대상사업에 성별영향평가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성인지예산제도마저 그 실효성에 심각한 손상을 받을 것이다.

성별영향평가 지표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달성 목표치를 높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한 정책적 견인과 집행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합동평가 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성평등한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기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 지표가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는 '지표' 삭제가 아닌 달성 목표치를 높여 정책의 효과성을 이끌어야 한다. '성별영향평가 지표'가 합동평가 지표에서 삭제된다면 이미 축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정책 연구기능은 더욱 약화될 것이며, 그동안 지역에서 쏟은 노력과 민관협력을 통해 이루어온 성평등 운동의 후퇴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는 계속되는 성평등 정책의 퇴행을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며 여성가족부 기능 마비와 정책 집행을 방기하고 있다. 현 정부는 성평등 관련 지표들이 명백히 보여주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현실을 해소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표 자체를 부인하고 사실을 왜곡시켜 왔으며, 이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까지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반인권적인 행보를 규탄한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개발추진단'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의미와 목적을 제대로 인지하고 성별영향평가 관련 지표를 반드시 포함하며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하라. 우리는 앞으로도 지자체 합동평가 전 과정에서의 성평등 정책 퇴행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3년 7월 27일

### 전국 227개 여성시민사회단체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거창젠더폭력통합상담센터,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도민여성의회, 경남여성가족재단,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장애연대, 경남여성회, 고양성폭력상담소, 고양여성민우회, (사)고양YWCA, 관악여성회, 광명여성의전화, 광명YWCA, (사)광양YWCA,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성의전화,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사)광주YWCA, 군산여성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기독여성회, 김포여성성의전화, 김해성폭력상담소, 김해여성성의전화, (사)김해YWCA, 공주시장애인성폭력상담소, 난민안전연구소, 남성과학해는페미니즘 (사)남양주YWCA, (사)남원YWCA, 노원여성회, 녹색당,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성의전화, 대전여성회, 대전여민회(부설 성폭력상담소, 다원,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열린가정폭력상담소, 대전해솔이동복지연구소, (사)대전YWCA, 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등대전망장애인성폭력상담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사)마산YWCA, 마산YWCA어린이집, 목포여성위원회, (사)목포YWCA,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성의전화, (사)부산YWCA, 부산여성노동자회, (사)부산YWCA, 불꽃페미백선, 브랜드유 리더십센터, (사)경남여성회부설 성폭력상담소, (사)대구여성회,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사)청원여성성평등공동체, (사)청주여성성의전화, 사단법인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사단법인 부산여성회, 사단법인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사단법인 행복누리, 사단법인 행복누리 부설 목포여성상담센터, 사랑과평화, 사랑사이관계교육센터, (사)사랑YWCA, 상처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산티젠더폭력예방교육센터, (사)서귀포YWCA, 서울강사랑전여성성의전화,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연대(준), 서울여성회, 서울여성회 지부 동서울여성회, 서초성폭력상담소, 서퍼대연(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성남여성성의전화, (사)성남YWCA,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평등교육연구소, 공경,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세상의 절반 (사)세종YWCA, (사)속초YWCA,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성의전화, 수원여성인권들을, 수원여성회, (사)순천YWCA, 아우르니, (사)안동YWCA, 안산여성노동자회, (사)안산YWCA, (사)안양과천군포의왕YWCA, 안양시청소년성문화센터, 안양여성성의전화, 양산가족상담소, 양산성가족상담소, 여성교회, 여성시민문화연구소, 여성평등공동체솔, 여성환경연대, 여수새날상담센터, (사)여수YWCA, 영광여성성의전화, 울산성가족상담소부설 울산성폭력상담소, 울산여성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사)원주YWCA, 유쾌한젠더로, (사)의정부YWCA, 이례성폭력상담소, 이음연구소, 익산여성성의전화,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자립지킴공동체 장애여성공감, 진교조 경북지부 여성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전북여성단체연합, 전주여성위원회, 제주여성회, 제주여성가족연구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사)제천YWCA, 젠더교육플랫폼초재, 젠더사회문화연구소-이음, 젠더지원연구소, 여세연, 좋은세상, 진주성폭력상담소, 진주여성회, (사)진주YWCA, 진해여성성의전화, 진해여성위원회, 진해성폭력상담소, (사)진해YWCA, 청성상-건강가정상담소, 청원시성평등재정연구소, 청원여성성의전화, 청원여성성의전화부설청원성폭력상담소, (사)청원YWCA, 천안서북여성희용소방대, 천안여성성의전화, (사)천안YWCA, 청주여성성의전화 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청주YWCA,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춘천여성민우회, 충남다문화가정협회, 충남여성포럼, 충북 성별영향평가센터 컨설팅단,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여성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재단, 충북여성정책포럼,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젠더폭력지원의회, 충주YWCA가정폭력상담소,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사)마주YWCA, 페미니즘당 청담준비위원회, 평화물만드는여성회, 포함여성회, 폭력예방교육아카데미, (사)하남YWCA, 하동성가족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지원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성의전화, 한국여성정의 충남아카데미,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한국여성정치연맹, 광주연맹,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한국YWCA연합회,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함안성가족상담소, (사)강릉YWCA, (사)군산YWCA, (사)논산YWCA, (사)대구여성인권센터, (사)대구여성장애인연대, (사)대구YWCA, (사)부산여성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사)부천여성성의전화, (사)부천여성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사)수원YWCA, (사)시흥여성성의전화, (사)씨알여성회, (사)안산YWCA, (사)인천여성회, (사)인천YWCA, (사)전주YWCA, (사)제주YWCA, (사)춘천YWCA, (사)충주YWCA, (사)마주여성민우회, (사)한곡여성정치연구소, (사)한국의음역협회,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춘천군지회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일본정부 규탄한다!

## 인류와 생명에 대한 범죄행위!!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결정 반대한다!!

일본정부는 끝내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8월 24일부터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수많은 국가와 시민들, 심지어 일본 자국의 어민들이 반대를 외쳐왔음에도 불구하고 투기를 강행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방류를 시작하면 최소 30년에서 100년이 지속될 이 투기는 해양생태계보존 의무의 국제법을 무시하는 국제 테러이자, 인류와 전 생명의 살 권리를 침해하고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범죄행위이다. 우리는 일본 정부의 어리석은 오염수 투기 결정을 규탄하며, 지구상에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이 극악무도한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일본 기사다 총리는 21일 일본 어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안전하게 완수하며 안심하고 생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전한 방류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전문가들과 시민사회그룹들은 다핵종제거설비(ALPS)가 오염수를 정화하여 처리수를 만들 수 없음을 밝혀왔고, 고체화 혹은 유류 탱크 건설을 통한 보관 등 육상 보관이라는 대안을 고려할 것을 제안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해양 투기를 선택함으로써, 생명과 안전이 아닌 저렴한 비용과 경제적 이익을 선택하였다. 후쿠시마의 부흥을 명분으로 하고 있는 해양 투기는 오히려 후쿠시마를 비롯한 일본 어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이며, 주변국들과 태평양 도서국의 시민들, 그리고 바다 생태계를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국민 대다수가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에 귀를 닫은 지 오래다. 지난 18일 한미일 정상 회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오염수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으면서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뒷전인 모습을 보였다. 오히려 과학에 기반한 투명한 과정임을 강조하면서 IAEA 결과를 신뢰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IAEA의 보고서는 일본의 로비를 통해 조작되었으며, 후쿠시마 핵오염수 검증이 부실했고 사실상 일본의 해양 투기에 면죄부를 주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현 정부와 여당은 고집을 운운하며 IAEA 보고서를 맹신하고 있고, 오히려 일본 정부보다 앞서 오염수 안전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본 아사히 신문에 의하면, 심지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부정적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방류 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일본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를 요청함으로써 자국민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해야 한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문제는 핵발전이 얼마나 위험하고 부정의한 에너지인지를 알려주고 있다. 핵발전은 크고 작은 핵사고를 수없이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핵발전소가 가동하는 동안 생겨나는 핵폐기물은 수십만 년 이상 지구를 위협한다. 또한 핵시설은 전시에 공격 대상이 되어 사회적 위기를 증폭시킨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단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핵발전 밀집도 1위인 한국에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다.

바다는 전 인류와 온 생명이 향유하는 공공재이다. 현재를 살고 있는 이들만의 것도 아니고, 어느 한 지역이나 국가만의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일본 정부는 해양 투기라는 공멸의 길에서 돌이켜 주변국과 인류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를 촉구한다.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일본정부 규탄한다!

2023년 8월 22일

### 51개 YWCA 전국사무총장협의회 참가자 일동

## 7월 월례아침기도회 'YWCA와 청년이 함께 그려가는 한반도 평화'



7월 월례아침기도회가 7월 3일(월) 오전 9시 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열렸다. 이번 월례아침기도회에는 김여름 목사가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였다. 김여름 목사는 새문안교회 교육부에서 사역하며 청년목회자의 시각으로 바라본 YWCA와 청년이 함께 그려가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월례아침기도회 참석자들은 1922년 전 세계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청년들로부터 시작된 한국YWCA가 청년성을 회복하여 정의·평화·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청년들의 꿈터, 일터, 삶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했다. (월례기도회 말씀은 5쪽)

## 법인이사 독일 현장 연수



연합회 및 후원회 법인이사들 10여 명이 지난 6월 23일(금)부터 7월 3일(월)까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 현장연수를 다녀왔다. 한국YWCA 운동정책의 이해와 법인이사로서의 실천 제고 방안 모색을 위해서다.

연수단은 베를린을 방문해 문기덕 박사(클라인마흐노우시청 공무원)와 엥광희 박사(아고라 에네르기벤데 선임연구원)의 독일의 탈핵 및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 강의를 들었다. 독일협동조합·라이파이젠협회(DGRV), 여편네협동조합(Wiebertwirtschaft), 마르타스(Berlin City Mission), 코리아협의회 등의 기관을 찾아 재생에너지 전환과 전쟁 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 일자리 창출, 도시빈민 지원 등의 사회문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살펴봤다. 현지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도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이은정(베를린자유대학교 한국학) 교수와는 독일 통일과정과 이후의 과제를, 카리타스협회의 유진 발다스(Eugen Baldas) 박사를 비롯한 협회 관

계자들과는 자원봉사 조직을 위한 교육과 활동 사례를 논의했다. 또한 '세계 환경 수도'라 불리는 프라이부르크의 보봉을 방문해 프라이부르크가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연대를 통해 에너지마을을 유지·발전시키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40쪽)

## 페미니스트x기후정의 워크숍



6월 한 달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플랫폼 달에서 '페미니스트 기후정의 워크숍'이 열렸다. 페미니스트 기후정의 워크숍은 여성환경연대의 제안으로 연합회를 비롯한 11개의 청년·여성·기후단체가 '페미니스트 기후정의 요구안'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했다. 주최단체들은 워크숍을 마친 후 각 단체의 배경과 특성이 반영된 기후정의 요구안을 작성하여 7월 14일(금) 플랫폼 달에 모였다. 연합회는 요구안에 ▲국내 기후정책에서 성인직적 관점 기초자료 부족 ▲성반응적 정책과 평가지표 부재 등을 문제로 보고 한국정부가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권고한 젠더액션플랜을 이행할 것을 요구안에 포함했다. 또한 윤석열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책임 핵발전 전횡은 현재 기후위기를 야기한 부정의의 확대로 보고, 핵발전으로 고통받는 지역민과 특히 피폭으로 인해 암과 싸우는 여성의 목소리가 탈핵의 원칙에 반영되도록 제안했다. '페미니스트 기후정의 요구안'은 8월 중 최종회의를 거쳐 9.23기후정의행진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 한빛 1, 2호기 수명연장 반대 기자회견



6월 29일(목) 전남 영광군 한빛 핵발전소 앞에서 탈핵활동가대회 참가자들이 모여 한빛 1, 2호기 수명연장을 반대하는 기자회견

을 열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이사회는 기자회견 당일 한빛 1, 2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서(PSR) 제출 여부를 안전으로 삼고 본격적인 수명연장 절차에 돌입했다. 한빛 1, 2호기에는 격납건물 내 수십 개의 공극과 1,000여 개가 넘는 철관 부식이 발견되는 등 현재까지 100건 이상의 사건 사고가 발생했으며 부실시공 흔적까지 드러난 상태다. 한빛 핵발전소가 가동된 지 37년이 된 현재 핵폐기물 임시저장 수조 포화율은 75%가 넘고 2030년 완전히 포화될 예정이다. 한수원은 지난 4월 이사회에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탈핵활동가들은 수명연장 절차와 건식저장시설 건설 추진은 핵발전의 모든 부담을 지역에 부과하는 불평등이며, 주민 의견을 무시하는 졸속절차는 비민주적 행위라고 성토했다.

## 씽크머니 씨티강사교육



2023년 씽크머니 씨티강사교육이 6월 29일(목) 한국씨티은행 임직원 25명을 대상으로 을지로그레이트프라운지에서 개최됐다. 이번 교육은 YWCA와 금융·경제교육을 시작으로 YWCA 가치를 담은 '금융경제교육: 기후와 경제(바다)' 및 '엠피 프로그램 2차시: 태블릿PC를 활용한 공정여행체험' 등 YWCA가 개발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또한 참가자들의 강의역량을 강화하고 씽크머니 강사로서의 전문성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조별 강의시연도 진행했다. 이번 씽크머니 씨티강사교육을 수료한 한국씨티은행 임직원들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1서교 프로그램 결연학교를 대상으로 출강할 예정이다.

## 2023 전국탈핵활동가대회



2023전국탈핵활동가대회가 6월 29일(목)부터 30일(금)까지 전남 영광군에서 열렸다. 이날 광주, 대전, 목포YWCA 활동가 총 11명을 비롯하여 부산, 서울, 영광, 울산, 청주 등 각지의 탈핵활동가 60여 명이 참석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뿐만 아니라, 핵발전소 수명만료 연장과 신규 핵발전소 건설, SMR 추진 등 전국에서 탈핵운동의 시급한 사안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점에서, 전국의 활동가들이 모여 당면한 운동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배우고 토론하는 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대회는 한빛 핵발전소 앞 기자회견으로 시작해, 오염수 이슈를 탈핵운동과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기초강연,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오염수에 대한 주제강연으로 이어졌다. 특별히 영광지역을 방문한 만큼 영광활동가들의 현장투쟁 이야기도 공유됐다. 탈핵활동가대회는 향후 탈핵운동과제와 연대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발표하는 조별 모임으로 마무리됐다. 내년 대회는 또 다른 핵발전 현안지역에서 열릴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30쪽)

## 홍콩YWCA, 연합회 방문



6월 27일(화) 홍콩YWCA 활동가 20여 명이 연합회와 서울YWCA를 방문했다. 홍콩YWCA는 여성 청년들의 리더십 함양을 위한 글로칼YWCA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홍콩YWCA 활동가들은 연합회와 서울YWCA를 비롯해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등의 기관을 방문해 한국의 성평등 현실과 사회적 이슈, 여성리더십 등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연합회 활동가들은 홍콩YWCA 활동가들을 위해 한국YWCA의 역사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운동을 소개했다. 종전평화선언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운동, 엽서 캠페인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홍콩 활동가들은 다양한 질문을 통해 한국YWCA를 깊게 알아가고자 했으며 연합회가 진행하는 캠페인에도 동참했다.

##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탄압과 통제의 대상이 된 위기의 시민사회단체, 무엇을 할 것인가'

국회시민정치포럼(대표의원 이은주 국회의원, 연구책임의원 이



동주 국회의원) 7월 4일(화)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탄압과 통제의 대상이 된 위기의 시민사회 단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개최했다. 윤석열정부가 지난 6월 4일 국가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를 상대로 감사를 벌인 후 1천 865건, 314억 원 규모의 부정·비리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노동조합의 회계 장부를 점검하며 노조를 압박하던 정부가 그 칼날을 시민단체로까지 확장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류홍빈(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감사 결과에서 지원금을 부정사용했다고 적발한 건수가 전체 0.46%에 불과하다"며 "또한 정부가 지원한 민간단체에서 시민단체의 수는 전체 1/10에 불과함에도 윤석열 정부는 시민단체를 '이권카르텔'로 몰고 있다"고 개탄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동순 연합회 조직혁신지원국장도 정부가 기업과 시민사회를 직접적인 행위자로 인식하는 거버넌스 방식을 통해 시민단체들이 사회안정망 강화를 위한 복지서비스, 고용서비스 등에 함께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단체 잡겠다고 하다가 민생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 IAEA 최종보고서 발표 대응 기자회견



7월 5일(수) 오전 10시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7월 4일 발표된 IAEA(국제원자력기구) 최종보고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연합회도 주최단

체로 함께했다. 공동행동은 IAEA가 알프스 시스템의 성능이나 포괄적 환경영향 평가를 하지 않고도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계획이 IAEA의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사성 오염수의 육상보관이나 고체화 등의 대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해양방류만을 유념한 편협한 결정이 담겨있기에 IAEA의 최종보고서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행동은 30만명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범국민 서명을 진행 중이다.

### 제11회 한일YWCA협의회



한국과 일본의 YWCA가 '동아시아 평화와 여성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11회 한일YWCA협의회가 7월 7일(금)부터 7월 10일(월)까지 나흘간 철원군 국경선평화학교와 서울 중구 연합회에서 개최됐다. 협의회에는 원영희 연합회 회장과 후지타니 사토코 일본YWCA 회장을 포함한 총 25명의 한·일YWCA 활동가들이 참가했다. 활동가들은 두 개의 세션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와 동아시아 안보와 평화라는 첨예한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한 행동을 결의했다. 협의회 마지막 날인 7월 10일에는 명동성당 계단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 한일YWCA 공동 기자회견'도 개최했다. 한·일YWCA는 핵발전 및 오염수에 관한 온라인 국제포럼 운영, 한·일 청년 평화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추후 진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36쪽)

###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 한일YWCA 공동 기자회견



한일YWCA협의회는 7월 10일(월) 오전 10시 30분 서울 명동성당 앞 계단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 한일YWCA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총 20여 명의 한·일YWCA 활동가가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기자회견에서 원영희 연합회 회장과 후지타니 사토코 일본YWCA 회장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오염수 해양 투기는 핵발전 진흥을 위한 국가 폭력"이라며 "일본 정부는 주변국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찾으라"고 촉구했다. 또한 "핵발전의 피해로 고통 받는 여성, 어업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이들을 포함해 오염수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될 청년들과 함께 한다"며 "핵의 위험을 알리고 핵 폐기 활동을 지속하며, 정의를 위한 연대를 계속해나갈 것이다"고 결의했다.

### '8.12 범국민 촛불' 제안 오염수 공동행동 기자회견



7월 11일(화)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기자회견이 민주노총에서 열렸다. 한국YWCA도 연대단체로 기자회견에 함께했다. 공동행동은 IAEA 최종보고서의 부실검증과 연구방법의 부족을 지적하며, ALPS(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된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시 국제 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했을 뿐 대안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또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WTO 소송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생태계 환경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이유를 가지고 승소했던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청구를 진행한다고 알리며 청구인단으로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 직전 진행된 대표자-운영위원 연석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공유하며, 7월 15일부터 매주 토요일 저녁 촛불 집회를 진행할 것이고 특별히 8월 12일 전국적인 범국민 촛불운동을 벌일 것을 발표했다.

### 탈석탄법 제정 촉구 집중 기자회견



연합회는 7월 11일(화) 오후 1시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회의가 여의도 국회 1문 앞에서 개최하는 '신규석탄발전중단법(탈석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주최단체로 함께했다. 탈석탄법은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사업을 중단하고, 그에 따른 사업자 보상과 지역사회 및 노동자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현재 법안은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안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5개월째 계류중이다. 기자회견 발언자로 나선 유에스더 연합회 시민운동국 간사는 "모두가 현 기후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는데,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체감하지 않는 듯하다"라고 개탄하며 "국회는 진정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청년의 목소리를 들으라"며 탈석탄법 입법을 촉구했다.

### 故 김필레 한국YWCA 창설자 40주기 추모예배



고(故) 김필레 한국YWCA 창설자 40주기 추모예배가 7월 12일(수) 오후 1시 20분 정신여중·고 김마리아회관 대강당에서 정신여중·고 학생, 김필레기념사업회 회원, 연합회의 강교자 증경회장, 한영수 증경회장, 박은실 국장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해순 김필레선생기념사업회 회장의 인도로 진행된 예배에서 강교자 연합회 증경회장은 "밀알 한 알"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특권을 나누고 희생으로 다른 이들의 삶에 도움을 준 김필레 선생님처럼 살자는 말씀을 전해 감동을 주었다. 서영란 여전도회전국연합회 부회장의 기도와 정신여중 합창반과 정신동문 합창단의 특별찬양, 선생님의 삶을 조망한 동영상 시청에 이어 김인혜 정신여중 교목의 축도로 예배는 마무리됐다. 기념예배를 통해 참석자들은 김필레 선생님의 삶을 돌아보고, 한국YWCA 창립의 초기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 대한민국 헌정회 여성위원회 토론회

7월 12일(수) 대한민국 헌정회 여성위원회 주관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 남녀동수의회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연합회는 5개 단체와 함께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날 원영희 회장은 축사를 통해 여성의 원의 수와 기후정책 간에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



하며 기후행동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의회 내 여성의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연합회 성평등정책위원장은 주재발제자로 나서 '한국 여성 정치 참여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은경 위원장은 한국의 열악한 여성정치참여 현실을 소개하고 여성 대표성 확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각 정당이 당헌과 당규를 통해 성평등 민주주의를 보장해야 하고 정부-정당-여성단체가 함께 남성독점적인 정치구조에서 남녀동등참여 정치구조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의 전체 내용은 연합회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론회 주제 발제는 22쪽)

### 정전 70년 한반도평화대회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은 7월 22일(토) 오후 4시부터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대회와 행진: 전쟁 위기를 넘어, 적대를 멈추고 지금, 평화로!'를 개최했다. 한반도평화대회와 행진은 오후 4시 서울광장 동편에서 출발하여 광화문 앞까지 함께 걷는 평화행진과 오후 5시 반 광화문 앞에서 개최되는 평화대회로 진행됐다. 한국YWCA는 원영희 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총 100여 명의 활동가가 참여했다. 연합회와 16개 지역에서 온 YWCA 활동가들이 서울광장과 광화문에서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광주, 군산, 남양주, 대전, 부천, 서울, 성남, 세종, 속초, 수원, 안산, 안양, 의정부, 천안, 청주, 파주YWCA). "적대를 멈추고, 지금 평화로!" "End the Korean War" 오후 5시 반, 참가자들이 광화문 앞에 도착하자 평화대회가 시작됐다. 평화대회에서는 국내-국제 활동가와 시민들의 평화 메시지, 수백 명의 시민대담장이 이어졌다. (자세한 내용은 28쪽)

### 사무총장협의회 확대운영위원회



2023년 제2차 사무총장협의회 확대운영위원회가 지난 7월 25일(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사무총장협의회 확대운영위원회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합회에서 진행됐다. 이번 위원회의 주요 협의내용은 2024-2025 YWCA 운동과 운영정책 및 정책수립절차의 평가와 제안이었다. 5명의 회원YWCA 사무총장(대구, 서울, 안산, 전주, 청주YWCA)들이 이를 위해 ▲2024-2025년 YWCA 운동 및 운영정책, YWCA 정책수립 절차 ▲2022-2024 YWCA 운동 및 운영정책, YWCA 정책평가 절차에 관한 발제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조별토론을 통해 발제 내용을 논의했다. 운영위원들은 논의를 통해 지난 5년간 모든 회원YWCA가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재구조화 작업을 완료했으나 공익법인으로서의 책무성 강화, 지역외제 발굴을 통한 지역운동과의 연계 활성화를 위해 연합회와 회원YWCA 간의 협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023년 1차 핵그린 현장기도회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연대(이하 핵그린)는 7월 26일(수)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2023년 1차 핵그린 현장기도회 "너희는 돌이켜라!"를 개최했다. 초읽기에 들어간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를 저지하기 위함이다. 연합회도 함께했다. 이은혜 연합회 시민운동국 간사가 대표기도로 참석자들과 뜻을 함께했다. "핵발전 없는 안전한 사회가 되게 하소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멈춰지게 하소서. 이를 위해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를 돌이키게 하시고, 악한 길에서 떠나가게 하소서."

현장기도회 성명서는 기상생태공동체운동본부의 김요한, 오광석, 박미화 활동가가 낭독했다. 이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는 "지구 생태계를 향한 끔찍한 테러이며, 창조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며 "일본 정부가 범죄행위를 돌이키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 정전 70년 국제 심포지엄 '휴전에서 평화로'



한국전쟁 정전 협정 체결 70년을 맞아 끝나지 않은 전쟁이 남긴 것들을 돌아보고 평화의 희망을 모색하는 '정전 70년 국제 심포지엄: 휴전에서 평화로'가 지난 7월 27일(목) 오후 2시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과 온라인 유튜브에서 개최됐다. 정전 70년 한반도평화행동의 공동대표인 원영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3년간 평화의 일꾼으로 고군분투하며 한반도중립평화 캠페인에 참여한 이들에게 감사사를 전하며, 평화의 행동들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와 전 세계를 향해 화해와 정의의 열매로 이어지기를 소망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현장에는 타판 미슈라 전 북한주재 유엔 상주조정관, 라이너 브라운 전 국제평화국 공동회장, 메리 조이스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PAC) 동북아시아 연락 담당관이 참석했으며, 리마 보위 2011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제리 필레이 세계교회협의회 총무, 키스 루스 전북한위원회(NCNK) 사무총장, 피터 프루브 세계교회협의회 국제협력국장, 크리스틴 안 위민크로스DMZ 대표 등이 온라인으로 함께했다. 발제자들은 정전 70년 한반도의 상황들을 조망하고 한반도-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연대와 전략을 공유했다. 본 포럼은 정전70년 한반도평화행동, 국회 평화외교포럼,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이 공동주최하였으며,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후원으로 진행됐다.

### 8.12 오염수 해양투기 전국행동과 사전집회

한국YWCA가 8월 12일(토) 오후 4시 서울시청 삼거리에서 열린 '8.12 오염수 해양투기 전국행동 사전집회'와 오후 6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된 '윤석열 정부 규탄,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8.12 전국행동'에 참여했다. 오염수 문제의 본질은 핵발전이며 기후위기 시대에 핵은 대안이 아님을 밝히고, 정부의 핵 진



흥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적극 저지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는 한국YWCA가 연대하고 있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탈핵시민행동'을 비롯해 '기후정의동맹', '한국환경회의' 등 기후-탈핵-환경단체 연대체가 주최했다. 한국YWCA는 80여 명의 실무활동가들이 집회에 참여했다. 연합회와 12곳의 회원 YWCA(광양, 광주, 군산, 대전, 목포, 수원, 순천, 여수, 원주, 익산, 인천, 전주YWCA)가 서울시청 광장과 광화문 광장에서 탈핵의 목소리를 높였다. (자세한 내용은 31쪽)

### 2023 Y-틴 전국회원대회 '기후위기는 우리의 위기' 열려



청소년들이 모여 기후위기 문제와 그 대응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023 Y-틴 전국회원대회가 8월 15일(화)~16일(수) 이틀간 서울시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렸다. 총 18개 회원YWCA의 46명의 Y-틴이 이번 대회에 참여했다(남원, 논산, 대전, 마산, 목포, 부산, 서울, 수원, 순천, 안산, 여수, 울산, 원주, 인천, 전주, 청주, 충주, 통영YWCA). Y-틴은 대회 마지막 날인 16일에 협의 내용을 도출하기 위해, 16일에는 'Y-틴 기후강연'과 '2023 Y-틴 기후대회'를 진행했고, 16일에는 대회 동안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는 'Y-틴 전국협의회 회의'를 열었다. Y-틴은 이틀간 전국회원대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성명서 발표 ▲923 기후정의 행진 부스 참여 등을 결의했다. 923 기후정의행진에서는 대회 첫날 기후대회에서 1등 기획안으로 뽑힌 기BTI 내용을 활용한 부스를 꾸릴 계획이다. 부스 내용 구성과 성명서 작성 등의 자세한 논의 사항은 추후 구체화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32쪽) YWCA

“청소년, 청년들에게 꿈의 날개를 달아주세요”

**YWCA 1922**

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

YWCA 1922 장학금은 청년, 청소년 장학금과 YWCA 청(소)년 사업에 지원됩니다.  
한국YWCA 청년운동은 한국YWCA 100년을 넘어 깨어 있는 청년성과 시대의식으로 연대하고,  
차별과 배제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후원계좌 : 농협) 301-0000-1922-31 한국YWCA연합회

온라인 모금함에서 바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YWCA 1922 장학금 모금(농협 301-1922-0000-31)**

(2023.1.1 ~ 2023.8.23)

구분	기부자명단	금액
개인	강규희 고이나 구정혜 권부남 김덕점 김병찬/임정임 김선숙 김은경 김형남 나신숙 류경화 류춘지 박은숙 백운미 서금순 신성균 신희자 신화정 안병미 안정희 오대근 오순숙 오초녀 윤수정 이선영 이상란 이숙현 이영순 이예린 이종임 이주영 안정란 장성영 정용아 정은하 정현주 조영미A 조영미B 차경애 편옥순 하미용 하행어	2,380,000
단체	남양주YWCA 목포YWCA 부산YWCA 서울YWCA 세종YWCA 안동YWCA 울산YWCA 천안YWCA 한솔사무기기 하남YWCA 흥플러스	3,910,000
기타	바자회 수입	152,000
<b>합계</b>		<b>6,442,000</b>

**북한어린이돕기 모금(농협 301-0161-5540-11)**

(2023.6.1 ~ 2023.7.31)

구분	기부자명단	금액
개인	강승아 강현중 고세영 광지영 구정혜 국은택 권경미 김가현 김근혜 김기동 김난주 김대식 김명희 김병호 김선희 김수연 김수진 김애련 김영자 김영현 김정린 김주영 김주현 나착더르즈들람수렌 남희숙 문미란 문병식 문상순 문인수 민선영 박보람 박성민 박순길 박영순 박용욱 박은실 박지영 박진희 배인기 배정미 배창빈 배한솔 배한울 백혜진 송록희 송인호 신명자 신인숙 안정희 양영심 엄세현 오시창 원영희 유도희 유빈 유수 윤명선 윤수정 이민정 이연규 이영숙 이예린 이은영 이정숙 이종경 이종임 이지윤 이천진 이혜련 이희숙 이희정 임진영 장세영 전정미 정경란 정동신 정지유 조성애 조승환 조영미 조은영 진인숙 차경애 최수선나 최지영 하은경 하지원 한영수 홍기자	2,620,000
단체	창원YWCA	30,000
<b>합계</b>		<b>2,650,000</b>

**YWCA 흥청망청 모금(농협 301-1922-0000-31)**

(2023.1.1 ~ 2023.8.23)

구분	기부자명단	금액
개인	구정혜 김미경 김민승 김주영 김인호 김종희 김지영 나길선 배한솔 송록희 이혜련 장승호 장형미 정석민 조영민 이재경	2,360,000
단체	김필레기법사업회 (주)럭스나인	2,000,000
기타	바자회 수입	1,277,500
<b>합계</b>		<b>5,637,500</b>

**경인·강원권역**

**(사)강릉YWCA**

최경선 간사

**환경의 날 기념 플로깅 '쓰담쓰담 걷기' 진행**



(사)강릉YWCA는 6월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자원활동가와 실무활동가, 강릉시민과 함께 경포호수에서 '쓰담쓰담 걷기' 행사를 진행했다. 쓰담쓰담 걷기는 '지구 지키기' 연간 캠페인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주관으로 쓰레기를 주우며 걷는 플로깅으로 진행됐다. 플로깅 장소인 경포호수는 강릉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강릉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다. 행사 참석자들은 삼삼오오 팀을 이뤄 주변 곳곳에 숨어있는 쓰레기를 주웠고, 정화활동은 물론 건강까지 챙기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사)강릉YWCA는 이번 캠페인이 플로깅 문화를 확산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을 모으고, 더 나아가 탄소중립을 위해 실천하는 움직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추후 강릉Y동아리를 주축으로 청소년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사)동해YWCA**

정미숙 팀장

**동해시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실시**



“학교폭력 이제 그만!” (사)동해YWCA는 6월 8일(목) 오후 4시 학생들의 하교 시간에 맞춰 동해중학교 교문 앞에서 청소년 학교폭력예방캠페인을 진행했다. 하교하는 학생들에게 캠페인 문구가 적힌 볼펜을 나눠주면서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고,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를 함께 만들자고 캠페인을 벌였다.

동해YWCA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으로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가 청소년 학교폭력 문제에 좀더 관심을 갖기를 기대

하고 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추후에도 학교폭력예방과 관련한 지속적인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청소년들이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건전한 학교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려 한다.

**(사)서울YWCA**

성지희 부장

**'로컬푸드 직매장 제로 웨이스트 실천 붐 조성 사업' 킷오프 회의 열어**



(사)서울YWCA는 7월 5일 '로컬푸드직매장 제로웨이스트 실천 붐 조성 사업' 킷오프 회의를 서울YWCA회관 다목적실에서 열었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전국 10개 매장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여 올해의 계획을 나누고, 국내 최초 제로 웨이스트숍 '더퍼커' 송경호 대표의 강의를 들었다. 서울YWCA는 이번 사업을 통해 매장에서 불필요한 포장재를 줄이는 동시에 비품·잉여 농산물을 활용한 쿠킹클래스나 기부 활동, 소비자 대상 교육, 장바구니 캠페인 등 다양한 형태의 제로 웨이스트 실천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로컬푸드 직매장이 가치소비에 이끄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사)속초YWCA**

김다미 간사

**여름철 바닷가 '물가안정캠페인' 실시**



(사)속초YWCA는 7월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여름철 물가안정캠페인을 실시했다. 7월 27일에는 강원특별자치도청, 양양군청과 함께 낙산해수욕장에서, 28일에는 강원특별자치도청, 속초시청, 고성군청과 함께 속초해수욕장, 삼포해수욕장에서 진행했다. 물가안정캠페인은 여름철 속초 인근 바닷가를 찾는 관광객들이

소위 '바가지' 물가로 피해를 겪는 사례들이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속초YWCA가 매년 진행하는 캠페인이다. 이번 캠페인에는 박연희 회장을 비롯 YWCA 이사, 공무원, 물가 모니터링 봉사자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캠페이너들은 해수욕장 일원에서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부채와 물티슈 등을 나누며 캠페인을 홍보했고, 선의의 가격경쟁으로 인근 상점의 가격 인하·동결을 유도해 물가 및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 업소'를 애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원주YWCA** 최은미 간사  
정전 70년 한반도평화선언 서명 활동



7월 7일(수)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원주시 중앙시장과 평원로 일대에서 '정전 70주년 한반도 평화행동'에 관심있는 자원활동가와 (사)원주YWCA 실무활동가가 모여 한반도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 서명 및 여성평화안보 인식확산을 위해 원주 시민들에게 평화적 외침에 함께 동참해 주기를 촉구했다. 캠페이너들은 숨이 막힐 정도로 더운 날씨에도 중앙시장과 평원로 일대를 다니며, 한반도의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에 함께해 달라고 원주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기록하지 않은 환경에도 서명활동에 함께한 자원활동가를 비롯한 원주YWCA 실무활동가들, 그리고 서명으로 성원해주 원주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

**(사)인천YWCA** 서에스더 간사  
인천YWCA합창단 제20회 정기연주회 개최



인천YWCA합창단의 정기연주회가 자립준비청년지원 및 YWCA 목적사업 기금마련을 위해 '위로와 희망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6

월 13일(화)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됐다. 인천YWCA합창단은 문화예술을 통한 정의·평화·생명 세상 건설을 위해 1972년 창단했으며, 국내외에서 다양한 연주 활동으로 (사)인천YWCA 문화 사절단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인천YWCA합창단은 이번 정기연주회에서 인천청소년합창단, 인천남성합창단의 찬조와 음악극 등의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선사했다. 연주회를 통해 모아진 후원자들과 교회의 정성은 자립준비 청년들의 맞춤형서비스 제공에 쓰일 예정이다.

**(사)춘천YWCA** 이지연 간사  
강원YWCA 실무활동가 워크숍 진행



(사)춘천YWCA는 7월 17일(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강원도YWCA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이사와 실무활동가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워크숍에는 강릉, 동해, 속초, 원주, 춘천YWCA 이사와 실무활동가 총 47명이 참석했다. 전수희 목사가 '함께 걷는 좁은길'이란 주제로 모두를 위한 성평등 특강을 진행했다. 오후 시간에는 참가자들이 춘천풍물시장을 방문해 춘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전 70주년 캠페인 및 서명 운동을 벌였다. 캠페인 활동 이후에는 회원Y별 모임과 춘천명소 방문 시간을 통해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경기권역**  
**(사)고양YWCA** 남궁혜경 국장

지구구를 위한 옷장 '21%의류교환파티'



(사)고양YWCA는 7월 18일(화) '21%의류교환파티'를 개최했다. 21%의류교환파티는 패스트패션으로 대표되는 의류산업의 전 지구적인 심각한 환경파괴와 임금착취 등 여성과 아동의 인권침해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마련한 행사다. 행사명에 표기된 '21%'는 다시입다연구소에서 조사한 사놓고 입지 않는 옷장 속 옷들의 평균비율이다. 21%의류교환파티에는 참가자가 입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옷과 소품을 다섯 점 이내로 가져오면, 다른 사람이 가져온 옷, 소품 등을 다섯 점 이내로 교환할 수 있다. 지역주민 50여 명이 총 200여 벌의 옷과 소품을 가져와 120벌의 교환을 이뤄냈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패션산업의 환경파괴문제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소비가 아닌 교환을 통해 삶의 방식을 전환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고양YWCA는 계절이 바뀌는 가을에 다시 한번 지역 주민과 만날 계획이다.

**광명YWCA** 박문경 사무총장  
청소년들과 지역 현안을 논한다! '모여라 마을 수다회'



6월 3일(토) 광명시민체육관에서는 청소년들이 지역 정책과 운동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 소통하는 '모여라 마을 수다회'가 개최됐다. '모여라 마을 수다회'는 광명YWCA 등 8개의 광명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광명시민단체협의회가 광명시에 제안해 이루어진 행사다. 광명시민단체협의회는 광명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여러 사회정책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행사 개최를 제안했고, 광명시가 이를 받아들여 현실화됐다. 광명YWCA는 사무총장이 지난해 광명시민단체협의회 사무국장으로서 활동하는 등 행사 기획부터 진행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광명YWCA는 행사 당일에는 청소년들이 지역 현안 해결과 탈원전, 기후행동 등의 정책과 활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을 마련했다. 광명YWCA 실무활동가들은 광명YWCA 공간을 방문한 청소년들과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나누며 청소년들이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함께했다.

**(사)남양주YWCA** 이정은 팀장  
그림책으로 하는 양성평등 '모두가 행복한 세상 만들기'



(사)남양주YWCA는 남양주시 양성평등 사업으로 2023 그림책으로 하는 양성평등 '모두가 행복한 세상 만들기' 사업에 선정돼 6월 14일~7월 5일 동안 총 4회 별내에 있는 별빛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 대상으로 본 사업을 진행했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 만들기의 목적은 관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그림책을 활용해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여 센터 아동들에게 양성평등의식을 전파하는 것이다. 사업에는 별빛지역아동센터 센터장 및 생활복지사, 돌봄교사 등 총 5명이 참석하여 수업을 받았다. 남양주YWCA는 10월까지 지역별로 센터를 찾아가서 양성평등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부천YWCA** 임행심 사무총장  
"다같이 들자, 평화한바퀴!"



"적대를 멈추고 남북·북미관계를 개선합시다!" (사)부천YWCA는 7월 8일(토) 부천 춘의역에서 부천 시청역까지 부천평화걷기를 진행했다. 이날 행진은 제31회 부천시민통일문화제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부천YWCA 회원들은 모두 YWCA 파란 조끼를 입고 행진을 이어갔고 덕분에 시민들의 이목을 한눈에 집중시킬 수 있었다. 부천YWCA 회원들은 이를 놓칠세라 더욱 크게 "한반도 종전 평화"를 외쳤다. 한편 부천YWCA는 2022년부터 한반도종전평화선언에 참여했고, 올해 5월 25일에 있었던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계기로 더욱 적극적으로 평화선언에 함께하려 한다.

**(사)성남YWCA**

임은희 간사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위한 시민강좌와 공동 행동 발족식 열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한다!” (사)성남YWCA는 7월 10일(월)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를 위한 시민강좌와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성남시민행동 발족식을 열었다. 시민강좌는 오후 2시에, 발족식은 오후 3시 반 경에 진행됐다.

시민강좌에는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강사로 나서 성남 시민들을 대상으로 ‘일본 방사능 오염수를 우리 아이들에게 먹일 수 없습니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좌를 들은 시민들은 오염수 해양투기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는 평을 들려주었다. 시민강좌가 마무리되고 같은 장소에서 성남Y를 포함해 12개 성남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성남시민행동 발족식이 열렸다. 발족식에서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IAEA의 ‘해양투기허가증’ 증서라고 쓰인 대형 현수막을 들며 시민들이 이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대형 현수막을 찢으며 표현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사)수원YWCA**

강은진 주임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북한 음식 ‘평양만두’ 만들기**



(사)수원YWCA는 7월 7일(금) 수원YWCA 2층 교실에서 사회운동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소비교육의 일환으로 ‘북한 음식 만들기’를 진행했다. 행사 진행 전 TFT를 조직하여 북한음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여러 음식을 확인한 뒤

‘평양만두’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직접 사전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장을 보고 재료를 손질하고, 이를 한데 모아 섞으며 화합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참여자들끼리 공감하고 소통했던 것처럼 남·북한도 소통과 화합할 수 있는 장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이야기했다. 평양만두 재료가 남한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전라도와 경상도 음식의 차이처럼 지역차 정도만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

**(사)안산YWCA**

홍지인 팀장

**‘모두를 위한 민주시민학교’ 개강**



(사)안산YWCA는 6월 27일-7월 25일, 주 2회에 걸쳐 ‘모두를 위한 민주시민학교’를 실시했다. 15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생활경제편 4회, 사회문화편 4회 총 8강으로 수업이 진행됐다. 민주시민학교는 안산시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생활경제와 사회문화 분야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기획됐다. 생활경제편에서는 불평등한 복지국가, 부동산 양극화 등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문제와 갈등에 대해 학습했다. 사회문화편에서는 성인지 관점의 여성주의 음악, 그림으로 보는 여성의 노동과 차별 등에 대해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안산YWCA는 민주시민학교를 통해 지역 내 민주시민 지도력을 발굴하고,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적 감수성을 시민들과 함께 향상시켜나갈 수 있었다.

**(사)안양과천군포의왕YWCA**

방민영 간사

**탄소중립을 위한 업사이클링 의류리폼 특강**



(사)안양과천군포의왕YWCA는 7월 4일(화)과 7월 18일(화) 오전 10시-12시에 안양패션디자인 학원에서 7월 회원특강을 진행했다. 7월 회원특강은 헌 옷을 리폼하는 강연으로 준비됐다. 1회 특강은 안 입을 청바지를 이용한 에코백 만들기 시간이었고, 2회 특강은 헌 옷에 새로운 디자인을 접목해 다른 종류의 옷이나 소품으로 만드는 시간이었다. 옷을 원하는 디자인으로 리폼하면서 탄소중립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한편, 회원특강은 안양패션디자인 학원의 대표인 정성옥 안양과천군포의왕YWCA 이사(안양과천군포의왕YWCA 15대 회장)의 지원으로 회원들이 무료로 다양한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사)의정부YWCA**

류채옥 간사

**캠프레드클라우드에서 정전 70주년 평화행진!**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사)의정부YWCA 실무활동가들은 7월 13일 캠프레드클라우드(이하 CRC) 미군반환공여지에서 평화행진을 했다. 평화행진은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대회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의 온 몸은 쏟아지는 비와 땀으로 범벅이 됐지만 행진하는 동안 평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다. CRC는 한국전쟁 휴전회담이 성립된 1953년 7월 27일에 가봉동 일원에 설치된 미국 육군 군영지였다. 70년 동안 출입이 제한됐던 CRC 문은 2023년 7월 3일 일반에 개방됐다.

**(사)파주YWCA**

김래정 팀장

**찾아가는 환경교육 ‘환경야, 우리가 지켜줄게!’ 실시**



(사)파주YWCA는 찾아가는 환경교육 ‘환경야, 우리가 지켜줄게!’를 7월 12일부터 21일까지 파주 관내 어린이집 10곳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총 184명의 아동이 참여했다. 7월 교육은 아이들이 쓰레기 줄이는 것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실천을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아이들은 먼저 교육동영상을 10분간 관람하고 참여형 프로그램에 함께했다. 교육동영상에는 환경동화 ‘할머니의 용궁여행’, 쓰레기 처리방법, 스토리텔링 ‘쓰레기의 여행’ 등이 담겼다. 참여형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스티커를 이용해 실생활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연습해 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번 교육에 파주YWCA가 양성한 환경강사들이 교육현장에 투입돼 전문강사를 보조하면서 실습의 시간을 가졌다.

**(사)하남YWCA**

김예진 간사

**(사)하남YWCA 힐링음악회 개최**



(사)하남YWCA는 7월 13일(목) 오후 6시 30분 은혜교회 2층의 은혜비전센터에서 힐링음악회를 열었다. 힐링음악회는 2023년 경기도 성평등 기금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음악회에는 성악가, 바이올리니스트, 뮤지컬배우, 수필가 등 다양한 문화예술인이 참여해 무대를 빛냈다. 바이올리니스트 최슬기의 연주를 시작으로 성악가 이동준, 이정근, 정능화, 최인영의 무대가 이어졌다. 수필가 윤정희의 시낭송, 고운소리 하모니카의 합주, 뮤지컬가수 성지윤, 원사운드뮤직의 섹스폰 연주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음악회의 마지막은 하남와이합창단이 장식했다. 합창이 끝나자 관객들은 출연진과 함께 손경민 목사의 ‘은혜’를 합창했다. 음악회 당일 비가 많이 왔음에도 객석은 빈자리 하나 없이 꽉 찼다. 공연이 마무리 된 후 신정원 사무총장은 공연 참가자들과 공연을 즐겼던 관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충청권역**

**(사)논산YWCA**

조은숙 팀장

**탄소 중립in GREEN 논산**



(사)논산YWCA는 5월부터 11월까지 환경기후네트워크 민간단체 지원으로 7개 마을 대상 '탄소중립 in Green 논산 생활백서'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관련 체험 교육을 통해 이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하고 탄소중립 실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6-7월에는 '탄소 중립 생활백서 교육'과 '기후정의 탐험대' 활동이 시행됐다. 탄소중립 생활백서 교육은 탄소중립 생활 밀착형 시민양성을 목표로 총 4회기 각 2시간 가량 진행됐다. 각 회기 내용은 ▲탄소중립생활실천 워크숍 ▲업사이클링 ▲발효축진제 및 주방 세계 만들기 체험 ▲쏟아오른 구이 체험 등이다. '기후정의 탐험대' 프로그램에서는 보드게임과 쏟아 오븐 먹거리 체험 교육이 시행됐다. 참가자들은 태양 에너지로 작동하는 쏟아 오븐으로 저감화 먹거리를 체험함으로써 탄소중립의 실천과 기후 위기, 식량 위기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논산YWCA는 본 교육을 통해 전기 소등행사와 쓰레기 발자국 '줄기 챌린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대전YWCA**

안소진 팀장

**탄소발자국 줄이기 캠페인**



(사)대전YWCA는 기후위기 속 일상생활에서 만들어내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환경캠페인 '2023년 탄소발자국 줄이기'를 1년간 진행한다. 2023 탄소발자국 줄이기 캠페인은 총 4탄으로 구성, 대전YWCA의 자원활동가와 실무활동가, 회원이

실생활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캠페인 1탄은 '종이봉투 재사용하기'다. 사용하지 않는 장바구니와 종이봉투를 민들레뜨라에 기부하여 재사용하는 활동이다. 자원활동가와 실무활동가, 회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연중 이어진다. 캠페인 2탄 '환경실천 인증샷 대회'는 6월 한 달간 15개

대전YWCA 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캠페인에 참석한 이들은 대중교통 이용, 텀블러와 장바구니 이용, 근거리 걷기, 에너지 절약, 분리배출, 채식 식단 등의 탄소절감 방법을 인증샷으로 공유하며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캠페인 3탄 '에너지절약퀴즈'는 대전YWCA 회원을 대상으로 9월에 열리며, 4탄 '만보걷기대회'는 15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11월에 진행할 계획이다.

**(사)세종YWCA**

장은정 부장

**세종여성기업인협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사)세종YWCA는 6월 21일(수) 오후 2시 세종YWCA교육장에서 세종여성기업인협의회와 업무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협약 체결식에는 세종YWCA 임직원들과 세종여성기업인협의회 임원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종시 여성 인재발굴 및 육성, 지위향상과 권익 도모, 여성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효율적인 자원 연계 및 나눔의 교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 여성들이 경제적·정신적으로 행복한 변화를 만드는 데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세종여성기업인협의회는 협약 체결식에서 세종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 기탁한 기부금 500만원을 세종YWCA에 전달했다. 후원금은 세종YWCA 웰다잉연구회의 교육과 웰다잉문화 확산 활동에 쓰여질 예정이다.

세종YWCA 부속기관인 세종YWCA어린이집,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세종특별자치시가족센터, 세종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4개의 기관들도 세종여성기업인협의회와 별도 업무협약을 맺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했다.

**(사)제천YWCA**

김미경 팀장

**"탄소중립을 실천하자!" 에너지 절약 캠페인 시행**

(사)제천YWCA는 에너지시민연대 후원으로 6월 19일(월) 제천중앙시장, 차없는 거리, 제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 개선과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거리캠페인을 실시



했다. 제천YWCA 실무활동가들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냉방온도 2C 높이기 ▲전기밥솥 보온기능 사용 줄이기 ▲냉장고 적정량 유지하기 ▲가전제품 대기전력 차단하기 등의 에너지 절약 실천 수칙을 담은 리플릿과 홍보물을 배부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음을 홍보했다. 시민들과 유관기관 이용자 및 종사자들이 캠페인 판넬을 들고 인증샷을 찍어 기관과 개인 SNS에 포스팅 하는 이벤트도 진행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도록 했다. 제천YWCA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아동, 청소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및 탄소중립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청주YWCA**

이드림 간사

**창립 58주년 기념, 영화 '크로싱즈' 상영회 열어**



(사)청주YWCA는 7월 11일(화) 김수현드라마아트홀에서 창립 58주년을 기념하며 영화 '크로싱즈' 상영회를 열었다. 70여 명의 회원들이 상영회에 함께했다. '크로싱즈(Crossings)'는 국제여성 평화경기대회(위민크로스디엠지, WCD)의 현장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다. 청주YWCA는 여성들이 만드는 평화를 바라보고 꿈꾸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상영회를 준비했다. 청주YWCA 회원들은 영화 속 국내외 여성 활동가들의 시선과 발자취를 따라 그들이 보고 느낀 평화를, 또 아픔을 같이했다. 한국YWCA가 주최단체로 함께 한 평화의 조각보를 기도로 만드는 장면이 등장할 때 회원들은 몽클레하며, 지금 우리의 조각보가 무

엇인지, 우리가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금 되새겨볼 수 있었다고 했다. 영화 상영 후 회원들은 함께 조각보를 들며 "YWCA는 평화를 만드는 힘입니다. 우리가 먼저 평화가 됩시다"를 외치는 퍼포먼스를 하며 평화의 시간을 마무리했다.

**(사)충주YWCA**

김성화 간사

**(사)충주YWCA 이사연구모임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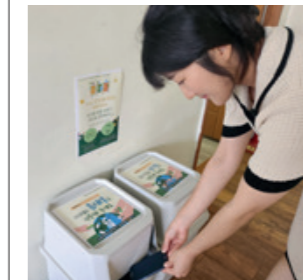
(사)충주YWCA는 7월 8일(토) 충주 천연염색공방 풀꽃꽃물에서 이사연구모임을 진행했다. 이번 이사연구모임에서 참석자들은 이사회종합평가리스트를 함께 점검한 후 공익법인으로서 이사의 책임성과 충주YWCA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논의 결과 ▲기독성 강화 ▲시민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개발 ▲이사가 먼저 섬기는 삶 실천 등에 의견이 모아졌다. 참석자들은 회의를 마친 후 인견이불 천연염색 체험을 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경상권역**

**(사)거제YWCA**

정의인 간사

**환경보전활동 '바른 분리수거, 뿌듯한 불편운동' 진행**



(사)거제YWCA는 2023년 4월부터 경상남도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 '바른 분리수거, 뿌듯한 불편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바른 분리수거, 뿌듯한 불편운동은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안경과 폐휴대폰을 수거하여 재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거제YWCA는 관내 학교와 아파트로부터 신청을 받아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주 1회 안경과 폐휴대폰 수거에 나선다. 수거된 안경은 개발도상국에 전달되며, 폐휴대폰은 재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한 학교 관계자는 “아이들이 지속가능한 환경 만들기에 참여함으로써 폐기물 양을 줄이고 재사용하는 기회를 갖는 유익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거제YWCA는 이러한 작은 실천으로 시민들이 기후변화대응과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참여하고 관련 문제에 대한 의식 제고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사)김해YWCA** 배정숙 부장  
**‘제로웨이스트 실천 참여마당’ 개최**



(사)김해YWCA는 6월 3일 김해 화정공원에서 ‘제로웨이스트 실천 참여마당’을 개최했다. 김해시민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생활 실천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이행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날 참여마당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30여 개 팀의 시민들과 여성 소규모 창업자들이 동참한 아나바다 장터, 환경 퀴즈대회, 플라스틱업사이클링 제품 및 천연수세미 제작 체험, 환경사랑송 플래시몹 등 온 가족이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제로웨스트를 즐기며 체험할 수 있었다.

김해YWCA는 오는 9월 2일(토)에 제로웨이스트 실천 참여마당을 한 차례 더 개최할 계획이다. 올해 두 차례 진행되는 참여마당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환경문제 해소와 자원순환을 위한 방법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사)대구YWCA** 박선혜 간사

**(사)대구YWCA 회원과 함께하는 ‘스마트 소비문화 현장체험’**  
(사)대구YWCA는 지난 6월 28일 아름뜰에서 대구YWCA 회원 3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 소비문화 현장체험’을 진행했다. 스마트 소비문화 현장체험은 대구YWCA 회원들이 스마트한 소비습관을 형성하고 지속가능한 생활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강의와 현장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날 강의를 맡은 녹색소비자교육 박윤정 강사는 ‘신토불이 우리 농산물 이용’을 주제로 지역 농산물을 지지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전했다. 이어진 현장체험에서는 참가자들이 국산 재배 블루베리를 이용한 요리활동과 블루베리 따는 법을 익히도록 했다. 대구YWCA 회원들은 대구 지역에서 재배한 블루베리를 이용해 콩포트를 만들고, 블루베리 재배지를 견학해 지역 농산물의 가치와 다양한 활용 방법을 경험했다. 스마트 소비문화 현장체험에 참가한 대구YWCA 회원들은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스마트한 소비 습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대구YWCA는 앞으로도 농식품 스마트소비사업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문화 형성과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도모해나갈 예정이다.

**(사)마산YWCA** 강현영 간사

**(사)마산YWCA 창립 57주년 기념 예배**



(사)마산YWCA가 올해로 창립 57주년 맞아 ‘마산YWCA 창립 57주년 기념 예배’를 열었다. 기념 예배는 7월 19일(수) 오전 9시 마산YWCA 3층 강당에서 진행됐다. 1부 기념 예배에서는 김명자 회장이 예배 인도를 맡았고, 20·21대 회장 정영희 명예이사가 대표 기도를, 마산중앙교회 장진교 목사가 설교를 했다. 마산YWCA 선교합창단은 특별찬양으로 예배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이어진 2부 예배에서는 마산YWCA의 활동을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함께 활동 영상을 시청했고, 이효진 이사가 막간 이벤트를 진행해 즐거움을

전사하기도 했다. 기념예배의 마지막은 앙상블 찬의 축하공원이 장식했다. 김명자 회장은 함께 한 회원들 덕분에 오늘의 마산YWCA가 있을 수 있었다며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한 회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사)부산YWCA** 신정은 간사

**2023년 (사)부산YWCA 회원모집운동 발대식 ‘생명세상! 당신의 참여로!’**



6월 1일(목) 부산YWCA 일한실에서 2023년 (사)부산YWCA 회원 모집을 위한 발대식 ‘생명세상! 당신의 참여로!’가 진행됐다. 이날 발대식에는 부산YWCA의 자원활동가, 실무활동가, 회원 45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개회예배를 드린 후 YWCA인생네킷, 릴스를 활용해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 만들어진 홍보물을 바로 SNS에 올리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부산YWCA는 이번 발대식에 참여한 모두의 열정을 담은 메시지들이 잘 전달되어 2023년 회원모집운동에 힘이 되기를 기원했다.

**(사)사천YWCA** 송주은 간사

**미세플라스틱 수세미 대신 천연 수세미로!**



(사)사천YWCA는 6월 5일(월)~6일(화) 이틀간 제6회 경상남도 환경교육한마당에 참여해 자원과 에너지 절약, 현명한 소비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시민들과 공유했다. 사천YWCA는 이날 행사에서 프리마켓, 리사이클 박람회, 일반수세미 및 천연수세미 비교체험 등을 준비했다. 프리마켓은 수질·토양오염을 유발하는 패스트패션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시민들에게 구제물품 사용을 통해 세상에 이로운 실

천에 동참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리사이클 박람회는 우리가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점검해 환경 살리기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구성했다. 체험프로그램 ‘미세플라스틱 수세미 대신 천연 수세미로’는 사천YWCA 공간에 방문한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시민들은 현장에서 직접 일반 수세미와 천연 수세미로 설치지한 후 일반 수세미에서 나오는 미세플라스틱 가루를 확인하고는 놀라는 모습을 보였다. 사천YWCA 실무활동가들은 시민들에게 미세플라스틱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한 후 천연 수세미를 나누어 주었다.

**(사)안동YWCA** 남수정 부장

**‘찾아가는 양성평등 인형극’ 강사양성교육 진행**



(사)안동YWCA는 7월 18일(화)에서 28일(금)까지 안동YWCA교육원에서 어린이 교육에 관심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양성평등 인형극’ 강사양성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양성평등 기본정책과 성별고정관념에 대해 회원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성별영향평가 연구원을 강사로 초빙해 진행됐다. 회원들은 유아들에게 적합한 놀이를 바탕으로 성역할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인형극 단원에게 인형만들기와 동작 표현기법을 배우는 시간도 가졌다. 교육을 이수한 회원들은 추후 ‘찾아가는 양성평등 인형극’ 강사로 활동할 계획이다. 교육 이수 회원들은 강사 동아리를 조직해 인형만들기와 교재연구를 지속하며 지역 유치원에 파견돼 수업을 진행한다.

**(사)양산YWCA** 성경미 간사

**양산여성 거버넌스 간담회 열려**

양산 지역 여성활동가들이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여성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양산YWCA를 비롯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양산시지부(회장 류은영), 양산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센터장 유경혜), 양산시여성의용소방대(회장



김복아) 등 돌봄·안전·환경·일자리 등 4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 16명이 모여 '양산여성 거버넌스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간담회는 양산YWCA에서 7월 13일(목) 오전 10시 반에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 여성활동가 정책현장의 정책성 공유 및 향후 정책방향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여성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 등이 논의됐다. 또한 시민과 함께 여는 '여성시민정책 토론회' 진행을 위해 영역별 발표자 및 토론자 추천, 기관별 참여자 협조 요청에 관한 다양한 의견 등이 개진됐다.

**(사)울산YWCA** 권한별 팀장

**제2회 카부츠&아나바다 개최**



6월 10일(토) 오전 11시 농협울산유통센터에서 제2회 카부츠&아나바다 행사가 개최됐다. 예장통합 울산노회 여전과 연합회가 공동개최로 함께했다. 카부츠&아나바다는 울산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나눔의 장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정책의 실천기회를 가지고, 저탄소 녹색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다. 이번 행사에서도 카부츠 및 바자회를 비롯해 YWCA 및 수탁기관 홍보관, EM활성액 만들기 체험활동, 먹거리 부스 운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재미를 더했다. 김덕순 (사)울산YWCA 회장은 "울산YWCA의 아나바다 운동의 명맥을 이어가면서 나눔을 통한 기쁨과 자원의 순환을 돕는 환경운동을 실천하게 돼 기쁘다"면서 "카부츠&아나바다가 울산의 고유한 나눔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울산YWCA는 앞으로도 탄소중립 실천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환경보호에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주YWCA** 윤인주 간사

**(사)진주YWCA 활동지원 하루차집!**



6월 8일(목) 진주교회(평안동) 1층 카페 더웨이브에서 (사)진주YWCA 활동지원 하루차집이 열렸다. 활동지원 하루차집은 코로나19로 인해 2018년 이후 문을 열지 못하다가 5년 만에 진주 시민들과 만났다. 정덕은 진주YWCA 회장이 인도하고 김성이 이사가 기도로 함께한 예배로 차집의 문이 열렸다. 진주YWCA는 하루차집을 찾는 손님에게 직접 담긴 레몬과 자몽청, 전문 바리스타가 내리는 커피, 로컬푸드(오미자, 찹) 재료를 이용한 차를 대접했다. 하루차집 한편에는 진주YWCA 응원 나무를 설치해 차집을 찾은 손님들이 진주YWCA의 활동을 알고, 응원하는 한마디를 엽서에 적어 나무에 거는 퍼포먼스를 경험하게 했다. 퍼포먼스에 참여한 손님에게는 친환경 상품인 대나무 칫솔, 천연 고무장갑, 천연 수세미로 만든 수세미, 재사용 파우치 등을 선물로 증정했다. 진주 시민과 진주YWCA 회원, 연대단체 실무활동가 등 많은 사람들이 하루차집을 방문했다. 진주YWCA는 단체의 활동을 알리고 지역 시민의 응원을 받는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

**(사)진해YWCA** 김방현 간사

**기후 위기 비상 대응활동 금요 기후 캠페인**



(사)진해YWCA는 6월 23일 창원 용호동에서 진행되는 '54차 창원 기후 위기 비상행동 금요 기후 캠페인'에 함께했다. 미래의 우

리와 아이들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자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를 다니며 홍보했다. 나날이 악화돼가는 지구의 기후를 보며 시민들이 심각성을 느끼고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진해YWCA는 하루하루 빠르게 변하는 기후변화를 체감하며 이를 위한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사)창원YWCA** 심진실 간사

**(사)창원YWCA 창립35주년 행사**



6월 27일(화) 10시 창원시 여성회관 창원관에서 (사)창원YWCA 창립 35주년 행사가 열렸다. 행사에는 창원YWCA 활동가를 비롯해 이사, 위원회 위원, 회원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총 2부로 진행됐다. 1부 행사는 김지숙 이사의 기도로 시작해 구미정 숭실대학교 교수(이은교회 목사)의 '성서 속 여성 리더십' 특강으로 이어졌다. 주목받지 못한 성서 속 여성 리더와 현 사회에 필요한 여성리더십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구미정 교수는 축복기도로 1부 행사를 마무리했다. 2부 행사는 회원증모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회원증모 워크숍으로 각 대대를 구성해 대대별로 창원YWCA의 SWOT(강점·약점·기회·위기)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회원증모 방안을 논의했다.

**(사)통영YWCA** 변은실 과장

**인형극으로 특성화된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 실시**



(사)통영YWCA는 2023년 통영시 양성평등 사업으로 '인형극으로 특성화된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인형극으로 특성화된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은 기관에서 교육을 이

수한 강사가 지역 유·아동 및 청소년, 노인 기관을 찾아가 올바른 양성평등 인식을 갖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경력단절 여성, 실직여성, 취약계층 등이 강사로 육성돼 기관으로 파견됐다. 통영YWCA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 사회참여 활동 폭 확대 등을 꾀하고 있다.

**(사)포항YWCA** 김민경 간사

**사랑의 일일차집 개최**



6월 2일(금) 포항중앙교회 선교센터 엘림홀에서 '2023년 사랑의 일일차집'이 열렸다. (사)포항YWCA는 청소년운동과 양성평등운동, 평화통일운동 등 포항YWCA 중점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차집 문을 열었다. 일일차집에서는 청각장애인들이 만든 반찬류가 판매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버려질 물품을 재활용하는 환경운동 차원에서 아나바다 운동도 진행됐다. 아나바다 운동에는 포항YWCA 자원활동가와 회원, 포항시민이 함께했다.

**전라·제주권역**

**(사)광양YWCA** 이효진 주임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캠페인 진행**



(사)광양YWCA는 6월12일(월)과 26일(월) 광양시 광양읍 일대에서 '정전70년 한반도평화행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은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만드는 월요일(PEACE MONDAY,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2020년부터 매주 월요일을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만드는 월요일’로 정해, 한반도 평화선언 거리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에 열렸다.

광양YWCA는 광양 시민을 대상으로 광양농협로컬푸드와 광양 5일시장 등의 일대에서 350여 명의 평화행동 서명을 받았다. 높아지는 전쟁 위기 속에서 전쟁의 영원한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염원하며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광주YWCA** 오희경 국장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절대 안돼**



7월 22일(토) 오후 7시 광주 금남로 1가에서 광주 전남 시·도민 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의 심각성을 국제 사회와 일본 정부에 알리고자 진행됐다. (사)광주YWCA는 광주와 전남의 250여 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광주전남공동행동’의 연대단체로 함께했다. 노은미 광주YWCA 회장은 이날 구호를 제창했고, 광주YWCA회원들은 가족들과 함께 꾸린 고래 고래합창단을 통해 노래와 율동을 선보였다. 대회에 참가한 시·도민들은 다이인(die-in) 퍼포먼스(여러 사람이 한 장소에 죽은 듯이 드러누워 항의를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의 뜻을 표했다. 깨끗한 바다와 안전한 식탁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해양투기 범죄를 막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사)군산YWCA** 황수미 팀장

**기후위기속 인권 씨앗교실 강사양성 교육 진행**

(사)군산YWCA는 6월 19일(월)과 23일(금), 27일(화), 7월 10일(월) 4회에 걸쳐 기후위기 속 인권 씨앗교실 강사양성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인권과 지구적 생물권이 기후위기로 인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는지를 깨닫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



래 세대에게 인권 씨앗을 뿌리는 강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 수강생들은 기후위기와 인권, 기후정의, 젠더정의에 대해 공부하고 전주에너지센터와 군산 수라갯벌을 찾았다. 모두 15명이 교육을 이수했고, 이들은 군산YWCA 활동 회원 자격으로 강사 활동을 펼치기 위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

**(사)남원YWCA** 임진아 간사

**소비자보호 및 피해 예방 홍보 캠페인**



(사)남원YWCA는 7월 6일(목) 남원하나로마트 앞에서 소비자보호 및 피해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악화된 경제상황 속에서 사회취약계층에게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방안과 금융사기 예방법을 알리기 위해서다. 특히 소비자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층에 소비자 피해 사례를 공유하며 피해 대응법을 알렸다. 피해를 입게 될 경우 남원YWCA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안내했다. 남원YWCA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들이 각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사)목포YWCA** 박혜림 부장

**문화가 있는 행복한 동행 ‘Y랑 여기 어때?’**

(사)목포YWCA는 7월 15일(토) 20여 명의 Y-틴과 실무활동가가 함께 문화가 있는 행복한 동행 ‘Y랑 여기 어때?’를 다녀왔다. ‘Y랑 여기 어때?’는 학업으로 문화생활의 여유를 누릴 수 없는 Y-틴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 마련됐다. 행복한 동행 참가자들은 아르떼뮤지엄과 테디베어뮤지엄, 사격체험장, 다이노밸리 등을 방문했다. 목포YWCA는 이번 체험을 진행하기 위해 사전에 목포YWCA 청소년 회원들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했다. 청소년들이 지역 놀거리와 볼거리 등을 충분히 즐기게 하기 위해, 자연을 주제로 하는 다채로운 미디어아트가 전시되고 있는 아르떼 뮤지엄과 세계최초 포스트스튜디오형 테디베어 전시관인 테디베어뮤지엄을 관람 장소로 낙점했다. 몸을 움직이며 학업 스트레스를 날리고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사격체험과 다이노밸리 방문도 계획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Y-틴 청소년들은 학업으로 인한 피로를 풀며 즐겁게 견문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사)서귀포YWCA** 김지희 팀장

**2023 서귀포여성취업박람회 개최**



(사)서귀포YWCA는 ‘2023 서귀포여성취업박람회’를 7월 7일 금요일 서귀포YWCA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취업박람회에서는 취업상담과 취업알선·연계, 현장 면접, 이력서 컨설팅, 유관기관의 취·창업 상담부스 등이 운영됐으며 취·창업 특강, 체험프로그램, 퍼스널브랜딩을 통한 이미지메이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여성구직자 400여 명이 이번 취업박람회에 참가했다. 총 48곳의 기업이 박람회에 참여했고, 이중 12개 기업이 현장 면접을 통해 구직자 연계서비스를 제공 받았다. 서귀포YWCA는 취업박람회 이후에도 서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지속적인 취업알선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새일여성인턴 등 구인기업 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취업연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순천YWCA** 신정은 간사

**전남YWCA협의회 RE100워크숍 ‘후쿠시마를 넘어, 다시 탈핵으로’**



전남YWCA협의회는 7월 4일(화) 순천시 와온마을에서 ‘전남YWCA협의회: RE100 워크숍’을 진행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전남의 4개 YWCA(순천, 여수, 목포, 광양YWCA)가 머리를 맞댄 것이다. 워크숍은 2022년 녹색교회로 선정된 순천덕신교회에서 원오섭 목사가 함께하는 바다예배로 시작됐다.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공동대표의 탈핵 강의 ‘후쿠시마를 넘어, 다시 탈핵으로’가 이어졌다. 실무활동가들은 김혜정 대표의 강의를 듣고, 도쿄전력과 IAEA가 발표하는 ‘안전하다’라는 공허한 메아리 외에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없어 답답했는데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발생 원인과 문제점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는 소회를 나눴다. 실무활동가들은 계속해서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해 각 지역에서 어떤 운동들을 펼쳐갈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특히 여성과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하다.” 이번 워크숍에 참여한 실무활동가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가 바다 생태계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하는 행동이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저지 활동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사)여수YWCA** 설수연 간사

**(사)여수YWCA ‘사무총장 이취임식’**



(사)여수YWCA는 6월 27일 오후 2시 여수 동광교회 1층 소예배실에서 사무총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제5대 한윤덕 사무

총장이 정년 퇴임하고, 유춘진 사무총장이 제6대 사무총장으로 취임했다. 이·취임식은 1부 기념 예배와 2부 이·취임식으로 진행됐다. 1부 기념 예배에는 여수 성은교회 변영원 담임목사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고, 축도로 기념 예배를 마쳤다. 2부 이·취임식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박은영 관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장에는 각 시민단체 대표, 전국의 YWCA 관계자들, 각계각층 지역 인사, YWCA 회원 등 1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했다. 오광중 중경이사장(여수YMCA)이 축사를 전하고, 20여 년의 소임을 다한 한윤덕 이임 사무총장의 이임사와 공로패 및 선물 증정이 있었다. 이어서 유춘진 신임 사무총장이 취임사로 포부를 밝혔다. 한편 유춘진 신임 사무총장은 2002년 여수YWCA 한글교실 자원봉사로 시작해, 2005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상담원, 2009년부터 현재까지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센터장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사)익산YWCA** 김지수 간사

**'세상의 중심에서 엄마를 외치다' 체험 진행**



(사)익산YWCA는 7월 21일(금) 익산시 지방보조금 사업 '세상의 중심에서 엄마를 외치다' 체험을 익산글로벌문화관에서 진행했다. 여성들의 일과 가정 양립문화를 확산하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이번 프로그램은 평등한 가정문화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2회, 부모와 자녀 관계개선을 위한 소통교육 2회, 테라리움 만들기 체험 1회, 익산글로벌문화관 요리체험 1회, 문화탐방 1회로 진행된다. 이날 체험에서 익산시 여성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해 채식 위주 재료로 두부텐더 샌드위치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사)전주YWCA** 최은주 간사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투기 저지 행동 펼쳐**

(사)전주YWCA는 6월 13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전주YWCA 회관 앞에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한 행동'을 진행했다. 지난 7월,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태평양



양에 투기하겠다고 결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중에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긴급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전주YWCA는 YWCA 기도문과 YWCA 성명서 낭독으로 활동을 시작하며 우리의 결의를 표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노래와 구호도 외쳤다. 6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매일 아침 30분간 1인시위도 진행했다. 전주 시민들에게 방사성 오염수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바다를 지켜야 함을 알렸다. 또한 전주 지역 국회의원에게 오염수 투기에 대한 입장과 대응 등에 대한 공개질의서 답변을 요구했다. 일본정부에게 손편지 보내기, 우리의 물결 SNS 활동 등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사)제주YWCA** 진애령 간사

**독일 탈핵 재생에너지전환 벤치마킹을 위한 '2023 YWCA 법인이사 연수'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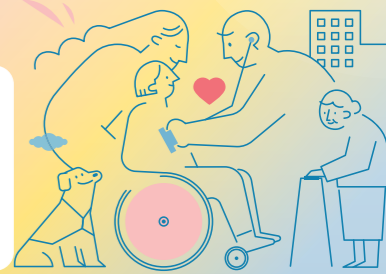
6월 23일(금)-7월3일(월) 2박 3일간 독일 탈핵 재생에너지전환 벤치마킹을 위한 2023 YWCA 법인이사연수에 (사)제주YWCA 고미연 회장이 참석했다. 법인이사 연수단은 이번 연수에서 독일과 한국의 탈핵, 재생에너지 정책 현황 및 지역 단위에서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사례 등을 공유한 후 독일의 현장을 방문해 탈핵과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독일에서의 성평등(여성들이 만든 여성고용창출 및 창업지원), 평화통일(평화기원 자전거 투어, 마르타스 방문 등)과 관련한 활동을 확인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할 과제에 대해 생각하고 의견을 나눴다. 고미연 회장은 이번 연수가 한국YWCA연합회 법인이사로서의 역할과 법인이사 간의 협력방안 등을 다시 한번 모색할 수 있는 긍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로 의료비 부담이 더 가벼워집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드립니다.

**2023년 달라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 **대상질환 확대**: 입원(모든 질환), 외래(중증 질환) → **모든 질환(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구분 없이 지원) 확대**
- ◎ **지원한도 확대**: 연간 최대 3천만 원 → **5천만 원으로 확대**
- ◎ **의료비부담수준 완화**: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비율 15% → **10%로 완화**
- ◎ **재산기준 완화**: 과세표준액 5억4천만 원 → **7억 원 이하로 완화**



**신청대상**

▶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 **질환기준**: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 질환 진료 시 지원**  
※ 다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 ◎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소득하위 50% 이하) 중심
- ◎ **재산기준**: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 7억 원 이하**
- ◎ **의료비 부담수준**: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신청 가능**

소득구간	의료비 부담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	80%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	70%
	(2인 가구 이상)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	60%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개별심사 대상)	50%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분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신청방법 및 기한**

-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지원제외**

- ◎ 미용·성형, 특·1인실 비용, 간병비, 요양병원 의료비 등 제도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제외
- ◎ 국가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실손) 등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급

**신청 및 문의**

-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홈페이지\(www.nhis.or.kr\)](http://www.nhis.or.kr) '재난적의료비 지원안내'에서 확인바랍니다.



**지원범위**

- ◎ **지원수준**: 본인부담의료비 일부항목 중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금액의 50~80% 비율로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
- 지원금 계산법**  
[본인부담의료비(예비·선별급여, 병원 2·3인실 입원료 등 +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 - (지원제외항목+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실손보험금 등)] × 50~80%
- ◎ **지원일수**: 동일 질환별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수 제외)
- ◎ **지원금액**: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